한라산총서 개정증보판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821-01

한라산총서 3

한라산의 역사와 유적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이어도를 꿈꾸다(2020)

채기선 | 蔡基善, Chae Ki-seon

제주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논문 : 한라산 형상의 심상표현연구)

수상

200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대상 '像-한라산'(국립현대미술관)

주요작품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라의 봄, 100호)
수원지방법원 (한라산, 300호)
서울지법 고양지원 (한라산, 300호)
제주도 문화진흥원(범섬, 20호)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산, 1000호)
제주KCTV방송국 (일출봉, 200호)
한라병원(섭지코지의 아침, 1000호)
서울지방법원 (한라산, 300호, 150호)
한라일보사 (한라산, 300호)
기당미술관 (한라산 영원의 빛, 50호)
KBS 제주방송총국 (한라산 영원의 빛, 500호)
제주도립미술관 (마음의 풍경-한라산, 300호)
제주국제공항 의전실 (100호 한라산)

MONO12023000004026
915.1985 -23-5

한라산총서 3

한라산의 역사와 유적

0002959381
NATIONAL ASSEMBLY LIBRARY
국회도서관
2023.02.13(기증)

인쇄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디자인·인쇄 디자인리더제주 (064-746-0775)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821-01
ISBN 979-11-977355-2-3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자료 중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인용·복제할 경우 사전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림과(064-710-2752)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064-757-1008)

목 차

제1장 한라산과 주민생활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

1. 한라산이라는 명칭의 사용 9

2. 신앙대상으로서의 한라산 12

3. 준거 지표(指標)로서의 한라산 17

4. 생활자원 제공처로서의 한라산 21

5. 한라산 등반 기록의 사서와 등반자들 26

제2장 한라산의 역사유적

1. 한라산의 칠성대 31

한라산 칠성대에 관한 문헌 기록 31

지도에 나타난 칠성대 35

칠성대는 용암돌탑인가 37

2. 제주의 굴빙고(窟氷庫) 구린굴 ····· 42
자연동굴을 활용한 제주의 빙고(氷庫) ····· 42
구린굴은 어떤 굴인가 ····· 44
빙고(氷庫)로서의 구린굴 ····· 46

3. 한라산지 국마장 잣성 ····· 48
목장사의 산물, 잣성 ····· 48
한라산지 목장사의 변천과 잣성 등장 ····· 49
잣성의 문화재[향토유산] 지정 가치 ····· 68

4. 없어져 버린 옛 사찰 ····· 70
존자암 ····· 71
수행굴 ····· 82

5. 한라산의 마애명 ····· 89
백록담 동벽과 분화구내 마애명 ····· 91
백록담 북벽내 마애명 ····· 105

제3장 한라산과 그 주변 동굴유적의 분포와 성격

1. 동굴유적의 분포와 검토 ····· 121

2. 동굴유적의 유형 ····· 144

3. 동굴유적의 성격 ····· 147

제4장 제주도내 오름과 일제군사유적

1.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 168

2. 오름에 남아 있는 일제 군사유적 ····· 182
전체 지역별·유형별 개괄 ····· 182
복곽진지(제58군 사령부) ····· 184
사단·여단사령부 및 예하부대 ····· 187

3. 오름에서 평화를 추구하며 ····· 204

제5장 한라산의 4·3유적

1. 제주4·3사건 ····· 211

2. 한라산과 4·3유적 ····· 213
무장대 훈련장 ····· 213
무장대 근거지 ····· 217
주민피신처 ····· 218
토벌대 주둔지 ····· 221
잃어버린 마을 영남리 ····· 228
기념비 ····· 229

제6장 국가제사로서의 한라산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1. 산악신앙과 한라산 ····· 238

2. 한라산과 국가제사 ····· 242
통일신라 ····· 242
고려 ····· 243
조선 ····· 249
대한제국 및 통감부 ····· 259

색인 ····· 270

한라산총서 3

한라산의 역사와 유적

제 1 장

한라산과 주민생활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

여 백

1. 한라산이라는 명칭의 사용

예나 지금이나 한라산은 주민 생활에 자원을 제공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앙 행위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한라산과 주민 생활의 관계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생겨나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음은 각종 사서(史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라산이라는 명칭이 기록에 드러나는 것은 조선 시대 1397년(태조 6) 권근(權近)이 지은 어제시(御製詩)가 가장 이르다. 그는 탐라(耽羅)라는 시제(詩題)를 내걸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지었음이 《태조실록(太祖實錄)》권11, 태조 6년 3월 신유(辛酉)조에서 확인된다.

그림 1-1. 서귀포시 지역에서 바라본 한라산 설경(제주도청 제공)

푸르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漢羅山)이,

만경창파 아득한 속에 멀리 있네.

사람이 별[星芒]을 움직여 바다 나라에 왔었고,

말은 용의 씨를 낳아서 천한(天閑)에 들어갔다오.

땅은 궁벽되나 백성들이 업이 있어 살아가고,

바람이 편하면 장삿배가 겨우 오고가오.

성명의 시대에 직방(職方)에서 판적(版籍)을 꾸밀 때,

그 고장 누추하지만 부디 빠뜨리지 마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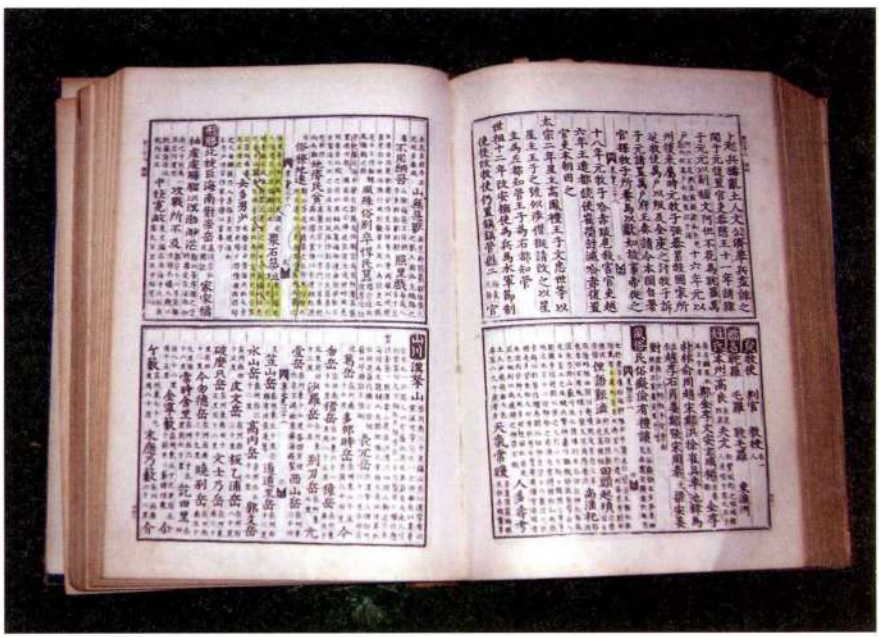


그림 1-2. 《신증국여지승람》 한라산 명칭 기사 부분(2005년 10월 촬영)

그러나 한라산이라는 명칭은 1374년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즉, 고려 말 최영(崔瑩) 장군이 제주도 몽골족 목호세력(牧胡勢力)의 반란을 평정하러 왔던 1374년(고려 공민왕 23)에 군대를 '한라산' 아래 주둔시켰다는 사실이 《고려사(高麗史)》권113, 열전(列傳), 최영전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라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제주목(濟州牧), 산천(山川)조에 은하(銀河)를 끌어당길 만큼 높다는 연유로 1481년 이전에 이미 붙여진 호칭이나, 봉우리가 평평하고 둥근 탓에 두무악(頭無岳), 혹은 원산(圓山)으로 일컬어져 왔었던 일도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이 오늘날과 같은 명칭으로 일컬어졌음이 확인되는 시기는 14세기 후반 무렵부터이다. 그러나 한라산이 주민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훨씬 그 이전부터였다.

2. 신앙대상으로서의 한라산

고려는 건국 초창기부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신앙 행위로 산천숭배(山川崇拜) 등이 성행하고 있었다. 이후 일부 산천은 사전(祀典)에 올려져 국가제사가 거행되었다.

고려 시대 산천의 신(神)에게는 《고려사》권21·24, 세가(世家), 신종(神宗) 즉위년 11월·고종(高宗) 40년 10월조에 의하면, 두 차례에 걸쳐 한 번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호(號), 다른 한 번은 '제민(濟民)'이라는 호도 더해졌다. 여기에는 탐라의 신도 해당되었음이 특기되어 있다. 그리고 탐라의 신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천의 신이며, 그것은 제주도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우뚝 솟은 한라산의 신을 지칭하였음이 틀림없다. 이는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될 만큼, 오랜 옛날부터 제주의 많은 마을에서 들을 수 있는 호종단(胡宗旦) 설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호종단 설화는 1981년 현길언 채록의 《제주도의 장수설화》 등에 실려 있는 한편, 조선 시대 1481년(성종 12) 편찬의 《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사묘(祠廟)조에 광양당(廣壤堂)의 내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고려 때 송나라 사람 호종단(胡宗旦)이 제주에 와 지기(地氣)를 누른 다음, 해로로 돌아가는데, 신[한라산신의 동생이 죽어서 된 신]이 매로 변해 돛대머리에 날아올랐다. 잠시 후 북풍이 크게 불어서 호종단의 배를 쳐부수니 그가 비양도(飛揚島) 바위 사이에서 죽었다. 조정에서 그 신령스러움을 포상해 식읍(食邑)을 주고 광양왕(廣壤王)으로 봉하고, 해마다 향과 예물을 내려주어 제사 지냈는데, 본조[조선]에서는 본읍[제주]이 제사케 하였다.
>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사묘조)

《동국여지승람》에는 호종단 설화가 '속설'이라는 전제를 두고 실려 있기는 하나, 조정(朝廷)에서 광양당의 신령스러움을 포상해 토지를 줌과 아울러 광양왕(廣壤王)이라는 작호(爵號)도 주고, 해마다 향과 예물을 내려주어 제사를 치르게 했다는 내용도 전해주고 있다.

호종단은 1106~1146년경에 걸쳐 고려의 벼슬을 지냈던 실재 인물이다. 그는 송나라 사람이고, 지기(地氣) 누르는 술법을 익힌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의 행적이 실려 있는 《고려사》권97, 열전, 유재(劉載) 부(附) 호종단전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는 그가 1106~1146년경에 걸쳐 고려에 와 벼슬을 지냈음이 드러나고 있으나, 호종단 설화에 나와 있는 행적 또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미세한 근거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호종단이 제주의 지기를 눌렀거나, 그로 인해 이곳 신의 노여움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 등은 믿을 수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한라산신 또는 그에 버금가는 제주의 산신은 이 지역에 위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수호신으로서 인식되어 고려 시대부터 제주 사람들에게 숭배되고 있었음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라 하겠다. 그리고 제주의 산신에게 식읍과 광양왕의 작호가 주어졌고 매해 예물까지 내렸다는 것은 과장이 섞였겠지만, 제사 비용으로 일정액의 곡식이 책정됨과 아울러 일종의 작호가 수여되고, 향과 축문을 내려 국가제사가 거행된 것 또한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한라산에 대한 신앙적 행위는 계속되었다. 조선 시대 한라산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제주목조에 보이듯이, 제주도를 수호하는 진산(鎭山)으로 인식되는 한편, 제주목의 남쪽에 자리 잡은 한라호국신사(漢拏護國神祠)에는 광양당(廣壤堂)이 마련되어 있었음이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사묘(祀廟)조에 드러나고 있다.

2002년 발표된 강정식의 〈제주도(濟州島)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에 의하면, 광양당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무속적(巫俗的) 형태의 제사를 거행했다. 이때 가장 으뜸이 되었던 숭배대상이 한라산신이었다. 기근이나 흉년, 혹은 자연재해가

들었을 때도 한라산에 대한 치제(致祭)가 이루어지곤 하였다. 또한 조선 정부는 한라산을 사전(祀典)에 올려 정기적으로 국가제사를 거행하였다. 이때도 민가(民家)와 관가(官家) 모두 한라산을 신앙적 숭배대상으로 섬겼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라산신제(漢拏山神祭)는 한라산 정상 백록담(白鹿潭) 주변에서 치러졌다. 그러던 중 제단(祭壇)이 1470년 제주목사 이약동(李約東)에 의해 산천단(山川壇)으로 옮겨졌다. 이는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권1, 단묘(壇廟)조와 1996년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이 편찬한 《제주시의 옛터》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많은 주민이 백록담으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얼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단을 산천단으로 옮겼던 것이다. 하지만 한라산신제는

그림 1-3. 구좌읍 송당 백중 마불림제(한라일보사 제공)

계속 백록담 주변에서 치러졌던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에도 매년 정월 초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주민들은 산천단 곰솔나무 밑 한라산신제단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또한 제주의 가장 큰 축제인 탐라문화제도 산천단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내는 것을 제일 첫 의식으로 삼는다.

한편, 앞서 언급한 2002년 강정식의 연구에 의하면, 한라산은 제주도 각처에 산재한 신당(神堂)의 당신(堂神)들을 하나의 혈연적 계보로 묶어 파악할 만큼 많은 당신이 공유하는 공통의 출생처임이 당신본풀이에서 드러난다. 이들 당신본풀이는 신당에 좌정한 신들의 내력이 구전을 통해 전해진 것이며, 이들 당신은 당신앙의 숭배대상이다.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연원은 섬이 되고 난 제주도에 사람들이 살 때부

그림 1-4. 중문동 불목당

터 생겨났을 원초적 신앙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신본풀이의 내용이 무속적(巫俗的) 문화 배경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한라산이 주민들의 숭배대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당신본풀이의 연원과 때를 같이했다고 보인다. 즉, 한라산이 신앙적 숭배대상으로 섬겨지기 시작한 것도 무속적 신앙이 생겨났을 고대사회 이전부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라산은 신격화(神格化)가 이루어진 고대사회 이전, 즉 상고시대(上古時代)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을과 개인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한편, 제주지역에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수호신으로도 인식되어 제주 사람들의 숭배대상으로 섬겨져 왔었다고 하겠다. 고려 시대에 와서는 한라산에 대한 주민들의 신앙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져 국가제사가 거행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 또한 현대에 와서도 한라산은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지고 있다고 하겠다.

3. 준거 지표(指標)로서의 한라산

한라산은 주민 생활과 그 인식에 하나의 준거 틀로 작용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한라산은 제주도 지역에서 우뚝 솟아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중심점이 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197개에 달하는 제주도의 행정동(行政洞)과 행정리(行政里) 가운데 단 두 곳, 즉 고내리(高內里)와 대평리(大坪里) 지역의 마을에서만 한라산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제주도의 지형과 지세는 한라산의 화산폭발 이후 갖추어졌다. 이에 제주도 지역은 한라산 정상부로부터 점차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아지면서 해안가에 이르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96년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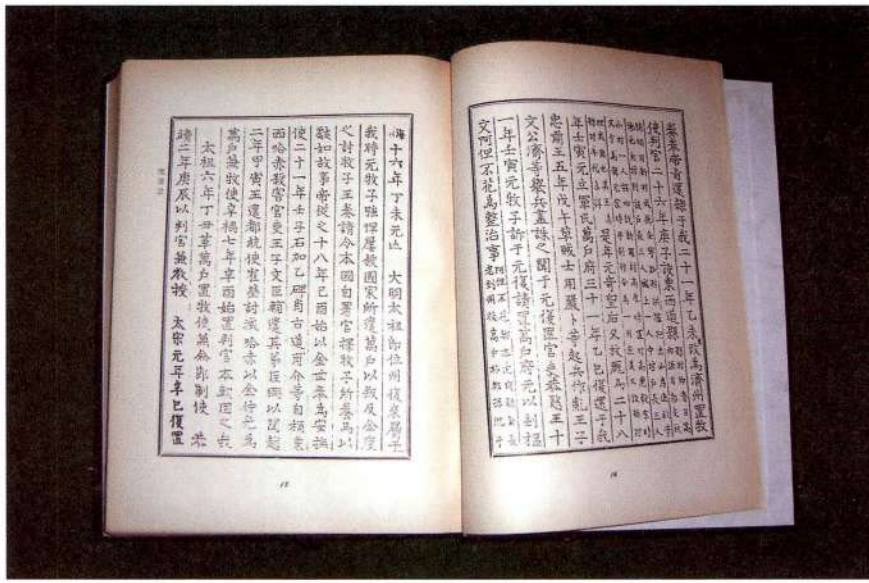


그림 1-5. 《탐라지》 제주연혁조 동·서도현 설치 기사 부분(2005년 10월 촬영)

용준 편찬의《제주도 전설》등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설화와 전설에서도 오름 등과 같은 제주도의 자연지형이 한라산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생성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한라산은 거의 모든 제주도 내의 마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규모와 위치를 갖춤과 아울러, 제주도 지역을 낳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이해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 지역의 방위(方位)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는 인식이 생겨났다.

> (충렬왕) 26년 경자(更子)에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하였다. - 현촌(縣村)은 곧 귀일(貴日 : 애월읍 귀일리)·고내(高內 : 애월읍 고내리)·애월(涯月 : 애월읍 애월리)·곽지(郭支 : 애월읍 곽지리)·명월(明月 : 한림읍 명월리)·신촌(新村 : 조천읍 신촌리)·함덕(咸德 : 조천읍 함덕리)·김녕(金寧 : 구좌읍 김녕리)·호촌(狐村 : 남원읍 신·하례리)·홍로(洪爐 : 서귀포시 서·동홍동)·예래(猊來 : 서귀포시 예래동)·산방(山房 : 안덕면 화순리)·차귀(遮歸 : 한경면 고산리) 등이다.
>
> (《탐라지(耽羅志)》제주, 연혁조)

이는 고려 시대 1300년(충렬왕 26)에 시행된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 개편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때 제주도 지역은 제주목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14개 군현이 신설되었는데, 이들 군현이 각각 한라산을 기준으로 삼아 동쪽과 서쪽의 행정단위로 구분·파악되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도《태종실록(太宗實錄)》권 31·33, 태종 16년 5월 정유(丁酉)·태종 17년 5월 갑진(甲辰)조에 드러나고 있듯이, 한라산을 기준에 두고서 북쪽은 제주목(濟州牧), 동쪽은 정의현(旌義縣), 서쪽은 대정현(大靜縣) 등이 각각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혹은 산남(山南)과 산북(山北)으로 나누고, 산북(山北)은 제주목(濟州牧), 산남(山南)은 정의·대정현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파악하기도 했다.

그림 1-6. 한라산 전경이 바라보이는 제주시내 모습(한라일보사 제공)

지금에 이르러서도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삼아 동부와 서부, 혹은 산북과 산남지역으로 나뉘며, 그에 따라 지역 정서와 연고주의가 형성·추구되는 경우를 왕왕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도 한라산을 중심에 두고, 남북을 나누어 남제주군(南濟州郡)과 북제주군(北濟州郡)으로 편제하기도 했다.

한라산이 제주도 지역 방위 구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인식은 고려 시대부터 이미 생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한라산은 주민 생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지배 편제방식에서도 방위 구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이다.

한편, 한라산이 자리 잡은 제주도(濟州道)는 남한(南韓)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게다가 한라산은 남한 지역 내에서 가장 높다. 때문에 제주도는 조선 시대

초기부터 이미 한민족(韓民族) 영역의 남방 경계 끝으로 주목받았고, 그 상징성으로는 한라산이 내세워지곤 하였다. 이는 앞서 소개한 권근(權近)의 어제시(御製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라산의 위치와 규모는 한라산으로 하여금 한민족 영역의 범위를 뜻하는 상징성을 띠게했다. 이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민족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활발하게 내세워지는 작금의 사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4. 생활자원 제공처로서의 한라산

한라산은 생업활동의 터전과 각종 특산물 산출의 자연환경을 갖추게 해 주었던 존재이기도 하다.

제주 주민은 3~7세기 무렵부터 목축을 활발하게 행하였다. 특히 고려 시대 들어와서는 국가 수요의 상당량이 제주 말로 충당될 만큼 제주에서는 말(馬) 사육이 성행했다. 더욱이 제주 주민이 몽골족과 더불어 말을 사육하기 시작한 13세기 말부터는 동·서아막(東西阿幕)이라 일컬었던 탐라목장이 세계 도처에 위치한 몽골 제국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간주 될 만큼 규모가 커졌고, 제주도의 산과 들에는

그림 1-7. 한라산 지역의 말 목장(제주도청 축정과 제공)

말이 가득했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무렵부터 제주도의 말 사육은 제주도 전 지역, 즉 한라산 산간지대도 방목지로 삼고, 풀어놓아 기르는 방목방식도 함께 취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에도 10개 소장(所場) 등의 국립목장이 한라산 산간지대와 중산간 지대에 걸쳐 설치되어 전국 말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했고, 우마 사육이 민가와 관가에서 계속 성행했다. 1973년의 통계에서도 전국의 말 1만 3,100필 중에서 70%가 제주도 산이라고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제주도의 총면적이 대략 5억 5,000만여 평으로 전국토의 1.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놀랄 만한 점유율이다.

1,000여 년 동안 이어진 제주도의 말 사육은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왕성했는데, 이는 한라산의 존재에 말미암은 바가 컸다. 이는 1998년 고광민의 〈제주도 마소치기의 기술과 문화〉(《제주도》102, 제주도청)라는 연구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그림 1-8. 만개한 한라산 지역의 호장근 모습
(한라일보사 제공)

제주도 지역은 섬 전체가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비탈을 이루고 있는 형상이며, 비교적 겨울철이 따뜻하고 여름철은 시원한 편이다. 목초도 풍부하게 자생한다. 더구나 자주 쏟아지는 폭우의 빗물이 한라산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의 비탈로 급하게 흘러내려 만들어놓은 여기저기의 내는 말과 소가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담 구실을 한다. 그리고 완만한 비탈을 이루면서 해발 1,950m에 이르는 한라산 지역은 풀이나 나뭇잎의 싹트기가 해발 낮은 곳으로부터 정상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시들기는 정상으로부터 해안 낮은 곳까지 서서히 내려온다. 말과 소의 먹이가 되는 풀이나 나뭇잎의 생육과 시들기 이동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마(牛馬) 주인은 절기에 따라 우마의 소재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 지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토산(土産)조에 기록되고 있듯이, 한라산의 존재 때문에 목축의 신(神)이 임한 곳으로 여길 만큼 천연적 방목지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제주 주민은 넓은 지역에 걸쳐 말 방목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말 사육의 성행은 2003년 김일우의 〈고려 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한국사학보(韓國史學報)》15)라는 연구에서 밝혀놓았듯이, 경제력과 인구증가 등과 같은 사회 규모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제주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라산은 제주 주민들에게 오늘날의 제주사회 형성의 모태로도 작용했던 생업활동의 터전을 마련해 준 존재라고도 하겠다.

한편, 한라산은 2003년 강정효의 《한라산》이라는 연구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해발고도가 1,950m에 달하다 보니, 아열대(亞熱帶) 식물부터 한대(寒帶) 식물까지 수직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 식물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특산식물만 하더라도 75종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산보다도 많다. 더욱이 국용(國用)에 널리 쓰이기에 국가에서 거두어들이고, 주민생활에도 긴요한 특용작물도 상당수 분포되어 있다. 즉, 안식향(安息香)·이년목(二年木)·비자목(匪子木)·산유자(山柚子) 등의 열매와 목재는 《예종실록(睿宗實錄)》권3, 예종 1년 2월 갑인(甲寅)조 등과 같은 각종 사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약재나 향료, 혹은 재목으로 중앙정부에 진상품으로 바치던

공물(貢物)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가에서도 유용하게 쓰였던 한라산 지역의 특용작물이었다. 또한 노죽(蘆竹)은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상당수 주민이 그 열매인 죽실(竹實)을 먹어 살아남았던 적이 있는 한라산 지역의 구황작물에 해당했음도 《경종실록(景宗實錄)》권13, 경종 3년 7월 신사(辛巳)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정효의 저서에 의하면, 비자나무는 목재로서도 매우 훌륭하고, 그 열매 비자는 구충제(驅蟲劑)·강장제·치질·기침 감기·황달 등에 약효가 뛰어나며, 또한 식용유·등불기름·머릿기름으로도 사용되는 등 다용도로 쓰였다고 한다. 제주도 비자나무는 한반도 육지부의 이식재배와는 달리 자생으로 보이며, 그 열매가 고려 시대부터 중앙정부에 진상품으로 바쳐졌고, 그것이 조선 시대에도 이어졌다. 일제(日帝)

그림 1-9.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지대(한라일보사 제공)

도 주민들에게 비자나무 열매를 주워가지 못하도록 해 전량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 이렇듯 제주도의 비자림은 국가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지역은 중앙정부의 공물대상 또는 전시체제하의 국용에 필요하였음과 더불어 주민 생활에도 널리 유용했던, 특용작물이 자라는 곳으로도 그 존재가치가 높았다고 하겠다. 이는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에서 엿볼 수 있다. 즉, 평대리 비자림 지대가 오늘날 제주도에서 가장 울창한 숲으로 손꼽을 수 있음과 동시에, 약 44만 8,000㎡(13만 6,000평)에 달하는 군락을 이루어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가장 크며, 또 하층구조의 양호한 발달 등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가의 관리·보존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이다.

5. 한라산 등반 기록의 사서와 등반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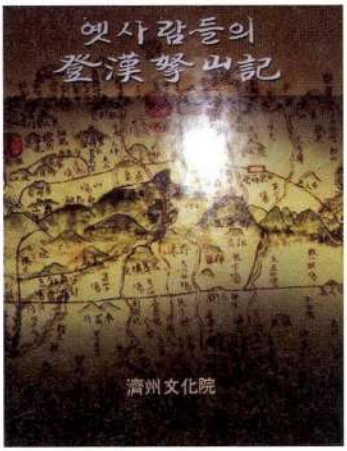


그림 1-10. 《옛사람들의 등한라산기》
(제주문화원편, 2000)

한라산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경탄을 자아내는 존재이기도 하다.

한라산이 주민 생활 및 그 의식과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것은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이나, 여기에 올랐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임제(林悌)의 저서《남명소승(南溟小乘)》이 가장 이르다. 즉,《남명소승》에는 과거 급제자 임제가 1578년에 한라산을 오르는 과정과 그 경관을 읊은 시 등이 실려 있다. 이어《남사록(南槎錄)》에는 1601년 제주안무어사(濟州按撫御史) 김상헌(金尙憲)의 등반기, 〈와유록(臥遊錄)〉에는 1609~16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치(金緻)의 등반기,《남환박물(南宦博物)》에는 1702~1703년 사이에 걸친 이형상(李衡祥)의 등반기,《탐라록(耽羅錄)》에는 1841년 이원조(李源祚)의 등반기 등이 수록되어 전하고, 조선 기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의 거두로 이름이 높은 최익현(崔益鉉)의 1875년 한라산 등반기도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외국인으로 한라산을 처음 올라간 독일인 지그프리드 겐테(Siegfroied Genthe)의 1901년 등반기와 아울러,《탐라기행 한라산》에 실린 이은상(李殷相)의 1937년 등반기가 명성이 높다. 이들 한라산 등반기는 2000년 제주문화원에서 편찬·발행한《옛 사람들의 登漢拏山記(등한라산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들 등반기에는 한라산이 빼어난 경관과 다양한 식생을 갖추었고, 이에 더하여 장엄하면서도 신령스러운 선경(仙境)의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들

인 다음, 이를 오르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케 했던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독일인 겐테의 1901년 등반기에는 한라산의 해발고도가 1,950m에 달한다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지는 과학적 측량활동이 나타나 있으며, 이은상의 1937년 등반은 80명이나 산행에 나선 한라산 최초의 단체 등반이었다. 또한 이은상의 1937년 등반은 국토순례행사의 일환으로 한라산에 올라가는 행사의 원조라 하겠다.

옛적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라산은 명산(名山)이자, 영산(靈山)으로 그 존재가치가 높았으나, 이를 올라가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지방관 혹은 유배인 등과 같은 일부 계층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등반이 레저활동의 하나로 자리잡고, 그 효용가치가 강조되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라산을 오르는 데 애용되는 등산로 코스만 하더라도 다섯 개나 조성되는 한편, 등반 계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즉, 1년간 한라산 탐방객이 1980년에는 8만 8,802명에 달했는데, 해마다 늘어나 2000년에 이르러서는 무렵 6배가 넘는 54만 5,423명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한라산 지역은 등산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유실·지반붕괴·식생파괴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훼손이 이루어졌고, 이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남벽·서북벽 등산로 중심의 해발 1,700m 이상은 자연휴식년제, 즉 출입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조치가 1994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속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한라산이 사람들에게 명산이자, 영산으로 다가가 같이 호흡하는 존재임을 반증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흔히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라고 한다. 이는 단지 지형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라산이 주민 생활에 깊게 자리 잡아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한라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통일지향을 뜻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백두산과 더불어, 남·북한을 뜻하는 상징성의 존재로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한라산총서 3

한라산의 역사와 유적

제 2 장
한라산의 역사유적

여 백

1. 한라산의 옛 사찰, 존자암과 수행굴

존자암

한라산에 있는 존자암은 제주도 사찰 가운데 역사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찰이다. 존자암지는 제주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존자암 세존사리탑(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7호)이 남아 있고, 현재 새로운 존자암이 한라산 영실 지경에 복원되어 있다.

존자암에 관한 기록

존자암에 관한 역사 기록으로는 존자암지 발굴 유물과 조선 시대 공적 기록물, 제주도 관련 인물들의 개인 기록 등 다수이다.

표 2-1. 존자암 관련 기록

분류	저자	자료명	연도
발굴 유물		존자암지 명문 기와	1373년~1384년
		건물지, 석축시설, 부도, 목탑 주초석, 청동제 지국천왕상, 청자 분청 도자기류	고려말 조선 초
존자암 관련 기록		성종실록	1484년
	홍유손	존자암 개구 유인문	1507년
	김정	존자암 중수기	1520년~152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481년, 1530년
	임제	남명소승	1578년
	김상헌	남사록	1601년
	김치	유한라산기	1609년
존자암 관련 기록	이경억	존자암(시)	1651년
	이원진	탐라지	1653년
	이증	남사일록	1680년
	이익태	지영록	1694년
	이형상	남환박물	1702년
제주도 관련 지도		탐라전도(존자암 표시)	1700년대 경
		조선강역총도(존자암 표시)	1700년대 전반
		제주삼현도(존자암 표시)	1750년 경
		동여도(수행굴 표시)	1857년
		남사록	1861년

존자암의 시대별 활동

① 탐라국 시대 존자암

존자암은 탐라국 시대부터 활동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홍유손과 김정은 "제주도에 세 성(姓)이 처음 일어날 때 창건되어 세 읍(邑)이 정립한 뒤에까지 오랫동안 전해왔다"고 하였다. 김상헌은 제주도 사람들 "누구나 부처에게 축원한다. 성주(星主) 때부터 내려온 풍속이 그러하다."고 하였다.

세 성(姓)은 탐라를 개국한 고을나·양을나·부을나를 일컬으며, 세 읍(邑)은 제주도의 행정구역인 제주·정의·대정을 말하는 것이다. 탐라국은 300~400년경에 개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탐라국은 성주(星主)와 왕자(王子)가 다스렸으며, 고려 숙종기(1105년) 정도에 이르러서야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제주도가 삼읍 체제로 된 것은 조선 태종 16년(1416년)에 이르러서이다. 즉 존자암은 탐라국 시대에 창건되어 당대까지 활동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탐라국이 백제·신라·고구려와 교류하였음은 《삼국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외국과의 교류 기록으로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 《속일본기》, 《북사》, 《당회요》, 《구당서》 등이 있다. 476년부터 백제와, 504년부터 고구려와, 662년부터 신라와 교류하였던 탐라국의 활동 기록이 있다. 한반도 삼국과의 교류 혹은 해외 교류를 하고 있었던 탐라국이었으므로, 그 역량으로 미루어볼 때 불교도 탐라국 시기 제주도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자암이 탐라국 시대부터 활동하였다는 홍유손과 김정의 기록이 허황된 이야기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② 고려 시대 존자암

존자암의 고려 시대 활동은 발굴 유물로 증명된다. 제주대학교박물관의 존자암지 발굴 조사 결과 존자암지에서는 고려 말 조선 초에 걸친 석축시설과 금당·선방·

비각 등 건물지 5개소, 부도와 부도지, 배수시설, 적석시설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존자암 건물지와 석축시설은 정교하게 축조되었고 상당한 인력을 동원하여 시설물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가람 배치의 기본적 구조물인 금당과 선방, 탑을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존자암지 발굴 세존사리탑은 높이 93cm의 종형으로 옥개석을 쓰고 있다. 또한 목탑의 중심 주초석이 발굴되었고, 유물로는 청자·분청 도자기류와 5.2cm 크기의 청동제 지국천왕상 등이 출토되었다. 존자암지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의 '어느 해 이월 수정선사 대부 김충광 만호 겸 목사가 바친다.(●二月修正禪師大夫金沖光, 万戶兼牧使奉●●●)'는 기록으로 존자암은 1373년부터 1384년 사이에 새로 만든 기와를 사용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음이 파악되었다.

탐라국은 고려 시대 1034년(고려 정종 즉위년)부터 국가의례인 팔관회에 참석하였다. 팔관회는 '부처를 공양하고 신을 즐겁게 하는 모임(供佛樂神之會)'으로 왕이 주도하고 온 국민이 즐기는 국가 행사로 고려 시대 내내 행해졌다.

"탐라국도 또한 방물을 바치니 자리를 내주어 의례를 관람하게 하였고 이후로는 상례로 삼았다." 탐라국은 송나라, 동번, 서번, 여진 등의 외국과 함께 참여하다가, 1153년경에 탐라현으로 개편되면서는 지방 행정단위의 책무로 국가의례에 정례적으로 참여한다. 제주도에서 팔관회에 참여하는 규모는 80여 명에서 200여 명에 이르렀다. 팔관회에 참여한 외국은 상거래를 행하기도 하였는데, 탐라국도 마찬가지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매년 정례적으로 개경 혹은 서경의 팔관회에 참여한 탐라국이 고려 불교의 양상을 제주도에 들여왔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려 시대 존자암의 기록은 발굴 유물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팔관회에 참여하는 탐라국의 활동 모습에서 고려 시대 제주불교의 모습 나아가 존자암의 활동을 융성했던 고려 불교의 모습과 빗대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조선 시대 존자암

1483년 표류하고 1484년 귀국 절차에서 기록되는, 제주 존자사의 주지 사식에 관한 기록 "표류한 배 한 척을 타고 저희 고을의 언덕에 닿은, 그들 가운데 한 승이 필연을 얻어서 쓰기를, '이것은 조선국 제주의 상선이고, 승인 나는 제주 존자사(尊者寺)의 주지인 사식(斯湜)이라는 사람이다."가 있다.

존자암은 1500년경까지도 나라에서 하사받은 논으로 국성재를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점점 사세는 기울었고 간간이 쇠락한 건물을 중수하며 명맥을 잇고 있었다. 1507년 홍유손은 "정의현의 대족들이 악질에 많이 걸린 것이 이 암자를 폐한 뒤부터이고, 비바람이 때때로 어긋나 흉년이 드는 것도 이 암자를 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여, 민간의 호족과 관가의 관원으로부터 논밭을 가는 사내와 물을 긷는 아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늙은이와 초동, 목동들까지도 모두 달려와 이 절을 중수하자고 하소연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공덕 가운데에는 절을 짓는 것이 제일인데, 절을 세우는 것은 또한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는 일의 일환이 되기도 한다."며 존자암 중수 권유 활동을 하였다.

1520년경 김정은 "국성재를 폐지한 지 겨우 8~9년이 된다."고 기록하였다. 1530년《신증동국여지승람》은 수행동의 존자암을 기록하고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 1481년에도 존자암이 있었음을 파악해낼 수 있기도 하다. 1578년 한라산 등반에 나섰던 임제는 존자암에 5일을 머무르며 승려 청순과 바둑을 두거나 시를 지으며 시간을 보냈다.

1593년 "강진에 사는 승려가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들어와 군역을 섰는데, 군역을 마치자 곧 돈을 들여서 중수하였습니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 1601년 김상헌은 한라산제를 지내기 위해 한라산에 올라 존자암에서 쉬었다. "먼저번에 이 산에 오른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날 존자암에서 재계(齋戒)하면서 머물고"라고 하여 한라산제를 위해 존자암이 계속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제주판관, 대정·정의현감과 존자암 승려들이 한라산제에 동행하였고, 존자암의 규모는 아홉 칸

판자로 지은 집이었다.

1609년에는 제주판관 김치가 한라산에 올라 존자암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승려 수정과 함께 수행굴, 칠성대, 백록담까지 다녀왔다. 존자암은 판자집 8, 9칸 규모였으며 사치스럽지도 누추하지도 않은 정사였다. 1651년 이경억의 시 존자암을 통해서는 천년 묵은 탑이 남아 있고 쇠락한 건물이었으나 예불하는 승려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653년 이원진은 영실에서 10리쯤 서쪽 기슭 대정현으로 옮긴 존자암을 기록하였고, 이틀 존자암에 머물렀음을 기록하였다.

1680년 이증은 한라산제를 위해 향축을 모시고 제주판관과 정의현감·대정현감 등과 함께 한라산에 올라 존자암에서 점심을 먹었다. 1694년경에는 "부서진 지붕과 몇 개 기둥의 모습이었고 가가(假家)를 지어 산에 놀러 왔을 때 점심을 해 먹는 곳"이었다고 이익태는 기록하였다.

1702년 이형상은 "존자암은 초가 몇 칸으로 남아 있으나 스님은 살지 않는다고 하고, 별성(別星)이 산에 오를 때 숙식할 뿐"이라고 하여 이 시기 무렵 존자암은 건물은 남아 있으나 승려는 없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존자암이 기록된 기록물로는 1700년대 지도 중 《탐라전도》와 《조선강역총도》가 있으며, 1750년경에 제작된 《제주삼현도》가 마지막이다.

1841년 이원조의 기록에는 "불우(佛宇)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으나 섬 안에 고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존자암 [한라산에 있다. 영실골 입구에 돌이 있는데, 승이 행도하는 모양과 같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수행골(수행동)이라 한다.]"라고 하여 존자암이 없음을 기록하였고, 또한 산행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원조가 한라산을 올랐을 때는 존자암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원조는 영실의 오백나한 지경에 장막을 가설하여 음식을 먹었고 한라산의 대정현 지경에서 노숙을 한다. "낭떠러지가 완만한 곳에는 기이한 암석이 늘어서 있었다. 나한이라는 이름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대정현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장막을 이곳에다 가설하여 놓았다. 대정현은 30리 거리에 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가까운 곳에 인가도 없었다. 부득이 노

숙할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존자암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1875년 최익현이 한라산을 올랐을 때도 백록담에서 영실 방면으로 내려오면서 최익현 일행은 노숙을 했다. "여기서 인가까지는 매우 멀다 하며, 밤공기도 그리 차지 않으니, 가다가 길거리에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보다 차라리 노숙하고서 내일 홀가분하게 가는 것이 어떤가? 하니, 일행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 바위에 의지해서 나무를 걸치고 모닥불을 피워 따뜻하게 한 뒤에, 앉은 채로 한잠 자고 깨어 보니, 벌써 날이 새어 있었다."

존자암이 어느 시점에 완전히 활동을 멈추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1750년경 이후로 더 이상 존자암의 기록은 보이지 않고, 1840년경부터는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표 2-2. 존자암의 시기별 내용

시기	내용	기록
탐라국 시대 (3~400년경부터 12세기)	세 성(姓)이 처음 일어날 때 창건	홍유손, 김정
1034년 이후 정례적	탐라국 팔관회 참여	고려사
1373~1384년	김충광 등 시주 기와	명문기와
고려말 조선 초	건물지 5개소, 부도, 목탑주초석, 지국천왕상	존자암지 발굴 조사
1481년	한라산 영실 존자암	신증동국여지승람
1483년	존자사 주지 사식	성종실록
1500년경까지	국성재 수행	홍유손
1512~13년까지	국성재 수행	김정
1507년	존자암 개구 유인문	홍유손
1520~21년	충암 존자암 중수기	김정
1530년	한라산 영실 존자암	신증동국여지승람
1578년	한라산행, 존자암 5일, 승려 청순	임제
1593년	존자암 중수(강진 승려)	김상헌
1601년	한라산제, 존자암에서 휴식, 승려 동행 산행, 아홉 칸 판자집	김상헌
1609년	한라산행, 존자암 2일, 승려 수정, 판자집 8, 9칸	김치
1651년	천년 묵은 탑, 승려, 쇠락한 건물	이경억
1653년	한라산행, 존자암 2일, 영실에서 10리쯤 서쪽 대정현	이원진
1680년	한라산제, 존자암 점심, 영실에서 10리쯤 서쪽	이증
1694년	부서진 건물, 점심 먹는 곳, 영실에서 10리	이익태
1702년	초가 몇칸, 승려 없음, 관리 산행시 숙식	이형상
1700년대 경	존자암	탐라전도
1700년대 전반	존자암	조선강역총도
1750년경	존자암	제주삼현도
1841년	존자암 없음	이원조
1875년	존자암 없음	최익현

존자암의 역할

① 비보사찰 존자암

비보사찰이라 함은 국가에서 토지를 분급 받아 운영하던 사찰을 말한다. 존자암은 비보사찰이었다. 홍유손의 기록 "나라에서 이 암자에 논을 하사하여 벼를 심어 재(齋)를 지낼 경비로 삼고, 음력 4월에 길일을 잡아 세 읍의 수령 중 한 분을 뽑은 다음 목욕재계하여 이 암자에서 제사 지내게 하고 이를 국성재(國聖齋)라 하였는데,"라고 하여 존자암이 국성재를 거행하는 비보사찰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홍유손은 "지금은 이 제사가 폐지된 지 6, 7년이 되었다." 하였고, 김정은 "지금은 그것을 폐지한 지 겨우 8, 9년이 된다."고 하였다. 존자암의 국성재는 1500년경 혹은 1512~13경까지 행해지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② 한라산제 역할 담당

존자암은 한라산제를 지내기 위한 일련의 활동 중에 활용하였다. 한라산제는 조선 시대 국가 주도의 상례적 의례였다. 예조에서 향과 축문, 교서 등을 내리고 의식을 행하게 하여 제주목사 혹은 어사 등이 한라산제를 주관하였다.

존자암은 한라산제를 지내기 위한 관리들이 재계(齋戒)하여 머무르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1601년 김상헌의 기록 "먼저번에 이 산에 오른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날 존자암에서 재계(齋戒)하면서 머물고"가 있고, 1680년 이증의 기록 "제관인 판관 강성좌, 정의현감 김성구, 대정현감 이당, 교수 정유설, 전현감, 훈장 고득종과 함께 향축을 모시고 … 주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이 산에 올랐던 사람은 존자암에서 반드시 여러 날을 재(齋)를 하며 잤습니다.'"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는 백록담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안될 때는 존자암에 단을 만들어 제를 올릴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의 기록 "오늘은 날이 이미 늦었고 여기서 산 정상까지는 아직도 40여 리가 남았는데 가는 길이 매우 험합니다. 비바람을 만나면

어둡고 길을 잃어 나아갈 수도 뒤돌아 갈 수도 없게 될 것이니 절대로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 뒤의 깨끗한 땅을 청소하여 단(壇)을 만들고 제사를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한라산 등반 숙소

한라산을 유람하는 사람들은 존자암을 숙소로 혹은 쉼터로 이용하였다. 임제는 1578년 한라산을 등반하였는데 존자암에 5일을 머무르며 승려 청순과 시간을 보냈다. 1609년 김치는 "한라산이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서 한번 올라가 평생에 장한 구경을 할 뜻을 이뤄보기를 원"하여 존자암에서 하룻밤을 머물렀고, 이튿날 존자암 승려 수정의 인도로 정상 혈망봉에 올랐다.

1694년 이익태는 "산에 놀러 왔을 때 점심을 해 먹는 곳"이라고 하였고, 1702년 이형상은 "별성(別星: 임금 명을 받들어 파견된 사신)이 산에 오를 때 숙식"하는 곳이라 하였다. 한라산행 중 개인적 용무로 혹은 공무를 위해 한라산에 오를 때 존자암을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존자암은 한라산 속에 위치 하고 있었던 이유로 사찰로서의 역할 외에도 관리들이 한라산제를 거행하는 기간 동안 활용하는 장소였고 한라산을 유람하는 사람들도 이용하였다.

존자암의 위치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었는데, 처음에 영실 오백장군동에 있다가 후일 아래쪽 대정현 지경으로 옮겼다. 1530년까지는 오백장군동에 있었고, 1578년 이전 언제쯤부터 오백장군동 밑으로 옮겼다. 존자암의 위치는 15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이전에는 오백장군동에 이후는 오백장군동에서 아래쪽으로 옮겨졌음을 살필 수 있다.

① 영실 오백장군동의 존자암

1507년 홍유손은 존자암의 위치를 "그 지경으로 말해보면, 기암괴석이 조각품처럼 깎아지르게 우뚝 솟아, 떨어져 서 있기도 하고 꼿꼿이 서 있기도 하고 나란히 서 있기도 하며"라고 하였고, 김정도 "기암이며 괴석들이 새기고 쪼고 갈고 깎은듯 곳곳에 우뚝 솟아있다."고 표현하여 존자암이 영실 오백장군동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1530년《신증동국여지승람》의 존자암도 수행동에 있었다. 1530년경까지는 확실히 영실 수행동 오백장군 부근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 대정현 구역의 존자암

임제 기록의 1578년 존자암은 "바람과 안개가 크게 일어 존자암에 머물렀다. 오백장군동에 가서 놀았다. … 산 밑에서 존자암까지 30여 리가 될 만하고 존자암에서 여기에 오는 것도 30여 리가 될 만한데 꼭대기를 쳐다보면 오히려 평지의 이른바 높은 산과 같다."고 한 기록을 통해 존자암은 영실 오백장군동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1601년 김상헌은 "존자암에 도착해서 조금 쉬었다. 산기슭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또한 40리이다. 제주 관아의 사람들이 모두 고하여 말하기를, '오늘은 날이 이미 늦었고 여기서 산 정상까지는 아직도 40여 리가 남았는데 가는 길이 매우 험합니다.'"라고 하여 존자암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40여 리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듣지 않고 그대로 가기로 하였다. 노상에서 천불봉을 바라보았다."라고 하였다. 김상헌은 존자암에서 쉬고 난 후 백록담을 향해 가던 길에 천불봉을 보았다고 하여, 김상헌도 오백장군동에서 옮겨진 곳에 있는 존자암에서 쉬었음을 알 수 있다.

1609년 김치는 "영실 골짜기에 다다랐다. 자못 널찍하고 컸는데 여기도 또한 옛날 존자암 터이다. 천 길 푸른 절벽이 둥그렇게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위에는 괴상한 돌 형상을 한 나한과 같은 것들이 5백여 개나 있고 밑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라고 하여 영실 오백나한이 있는 지경이 옛날 존자암 터였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골짜기 동남쪽 허리에 한 개 석굴이 있어 '수행'이라 하는데 옛날 어떤 도승이 그 속에 살아 무너진 연돌이 아직도 남아 있다. 수행을 거쳐 10여 리를 가서 칠성대에 닿았다."고 하여 영실 동남쪽의 수행굴과 10여리 위 칠성대도 기록하였다.

1653년 이원진은 "존자암 : 옛날에 한라산 영실에 있었다. 그곳 골짜기에 승려가 도를 닦는 모습을 한 바위가 있어 민간에서는 수행동이라고 전해온다. 지금은 서쪽 기슭 바깥 10리쯤 되는 대정현 구역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하였다.

1680년 이증도 "이 암자는 옛날에 영실에 있었다. 지금은 서쪽 기슭 밖 10리쯤의 대정 지경으로 옮겨서 다만 유허만 남아 있다. 충암의 기승(記勝)은 바로 옛날의 암자가 아니겠는가."라고 기록하였다.

1694년 이익태도 "속칭 오백장군동 혹은 천불봉이라 하고, 일명 행도동(行道洞)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자그만 사찰이 있었으나 지금은 옮겨져 있다. 존자암이었던 폐지에는 계단과 초석이 아직도 완연하다."라고 옮겨진 존자암을 기록하였다. 또한 "서쪽으로 산허리를 내려오며 칠성암을 지나왔다. 다닐 수 있게 굴이 뚫려 있었다. 소나무 숲으로 20리를 가니 영실이 있었다. 바위 봉우리들이 기이하여 오래 머물며 구경하였다. 또 10리를 가니 바로 존자암이었다. 다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부서진 지붕과 몇 개의 기둥뿐이었고 가가(假家)가 더 지어져 있어 산에 놀러왔을 때 점심을 해 먹는 곳이었다."라고 하여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칠성암을 지나 영실로 내려왔다. 영실에서 10리 아래의 존자암을 표현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존자암은 영실 오백장군이 있는 곳 수행동에 위치 하고 있었다가 1530년과 1578년 사이 어느 때인가 산 아래쪽으로 10리 밖 정도 대정현 지경에 있었다.

이상 한라산 존자암을 기록을 따라 정리하면, 존자암은 탐라국 시대에 창건하여 조선 시대까지 활동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사찰의 기능 외에도 국가의례인 한라산제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거나 한라산행을 위한 쉼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라산 영실 오백장군동에 위치해 있다가 1578년에는 서쪽 기슭 10리쯤 아래로 이전해 있

었다. 1702년까지 판자집 8, 9칸 혹은 초가로 이어지고 있다가 1750년경 이후로 기록에서 사라진다.

표 2-3. 시기별 존자암의 위치

시기	위치	기록
1507년	영실 오백장군동	홍유손
1520~21년	영실 오백장군동	김정
1530년	영실 수행동	신증동국여지승람
1578년	영실 오백장군동에서 내려온 곳	임제
1601년	오백장군동 아래쪽(존자암에서 정상까지 40리)	김상헌
1609년	영실 옛 존자암터	김치
1653년	서쪽 기슭 10리쯤, 대정현	이원진
1680년	영실 존자암 유허 / 서쪽 기슭 밖 10리쯤, 대정 지경	이증
1694년	오백장군동 존자암 폐지 계단과 초석, 영실에서 10리 아래	이익태

수행굴

영실은 예로부터 제주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맨 먼저 한라산을 올라《남명소승》에 등정 기록을 남긴 임제는 영실을 둘러보며 느낀 감상을 여러 편의 시문으로 남겼다. 그중에는 "절벽 아래는 옛 제단 터가 있는데 그 옆에는 복숭아나무가 한 그루 있다."는 글이 보인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제단이 있었던 곳을 옛터라고 부르고 있다. 조선 시대 훨씬 이전에 설치됐던 제단으로 짐작된다. 영실과 가까운 동남쪽 허리에는 옛날 고승이 도를 닦던 수행굴이 있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이처럼 영실 내외부에는 제주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존자암과 더불어 수행굴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이웃해 있었다.

수행굴에 관한 문헌기록

수행굴에 관한 기록은 1601년 한라산을 올랐던 김상헌 안무어사가《남사록(南錄)》에 남긴 글이 처음으로 보인다. 이 기록은 직접 현장을 둘러본 뒤 남긴 글이어서 주목된다.

> "또 수행굴을 지났다. 굴속은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 고승 휴량(休糧)이 들어가 살던 곳이다. 칠성대와 좌선암(坐禪巖, 길가에 높은 바위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북두칠성과 같다. 또 돌이 하나 있는데 앉아 있는 스님 모습과 비슷한 까닭에 이렇게 말한다.(又過修行窟 窟中可容二十餘人 古有高僧 休糧 入棲之處也 過七星臺 坐禪巖(道邊高巖列峙 狀如此北斗 又有一石 恰如坐僧故云)"

1609년 제주에 부임, 한라산을 오른 김치(金緻) 판관도 〈유한라산기〉에 수행굴을 답사한 기록을 남겼다.

"골짜기(註;영실)의 동남쪽 허리에 석굴 하나가 있는데, 수행동이라 부른다. 옛날에 도승이 그곳에 살았다고 하는데 부서진 온돌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洞之東南山腰 有一石窟 名曰修行 昔有道僧栖於其中 廢突至今猶存)"

1702년 한라산을 등정했던 이형상 목사는《남환박물(南宦博物)》에 앞의 기록보다 상세한 내용을 남겼다.

"위에 수행동이 있다. 동에는 칠성대가 있어 좌선암이라 부른다. 이는 옛 스님이 말한 팔정 옛터인데, 이를 존자암이라고 부른다. (중략) 존자가 암을 짓기는 고량부 삼성이 처음 일어난 때 비로소 이루어졌고, 삼읍이 나누어진 때까지 오래도록 이어졌다. …지금은 스님이 없고 헐린 온돌만 남아 있다."

1930년에 불교 유적을 탐방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던 양세환(梁世煥)이 '백양환민'이라는 필명으로《조선불교》라는 간행물에 남긴 순례기에도 수행굴에 관한 글이 보인다.

… 동부(洞府: 영실을 지칭)의 동남 산허리에 있는 석굴은 이른바 수행굴이다. 옛날에 도승(道僧)이 그 속에서 입정수행(入定修行)했던 곳으로 아직도 부서진 온돌 자국이 남아 있으며 수행굴로부터 뒤로 1리를 올라가면 기도수행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도인선객(道人禪客)들이 하늘에 제를 지냈던 칠성대이다.

이처럼 문헌에 수행동(修行洞)이 등장하는 기록은 4가지로 파악된다. 이들 기록에는 약간의 첨삭이 있지만, 옛날 고승이 도를 닦았던 석굴이 있는데 곧 수행굴이며, 굴 안에는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고, 지금은 부서진 온돌 자국만 남아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행굴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문헌에 수행굴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여 년 전 수행굴을 발견하기까지는 제주의 향토사학자와 원로 등산인들에게는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2001년 12월 3일 한라산학술탐사팀은 도순천 발원지인 영실 탐사에 들어가게 됐다. 영실 탐사에 앞서 탐사위원들은 수행굴 탐사가 영실 지역 탐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러 고문헌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탐사팀은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들에게 수행굴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행굴을 아는 이들은 없었다. 그래서 탐사팀은 청원경찰의 안내로 한라산 동남쪽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살펴보기로 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수행굴을 찾았다는 소리가 들려 현장에 도착한 순간 한눈에 수행굴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림 2-20. 가시리 갑마장과 10소장 경계돌담인 간장

수행굴은 길이가 대략 20~24m, 최대 폭 5~7m 정도 되는, 마름모꼴형에 가까운 굴이었다. 굴 가운데는 가로와 세로 약 2m, 두께가 30㎝쯤 되는 자연 판석이 놓여 있었다. 바닥과 전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판석을 흙을 깔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울퉁불퉁한 판석 위를 흙으로 평편하게 깔아 온돌처럼 잠자기 편하게 만든 것으로 짐작됐다. 가장자리는 아궁이 흔적도 남아 있었다. 요리를 하며 판석을 온돌처럼 따뜻하게 달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옛 기록에 남겨진 '부서진 온돌 자국'이었던 것이다. 동굴 구석에는 반 평 정도 되는 너비의 잘 정돈된 공간이 있는데 작은 돌로 경계를 짓고 있었다. 그 자리는 온돌로 사용됐던 자리보다 약간 높은 위치인데다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옛날 고승이 도(道)를 닦던 공간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주었다.

굴속에는 흥미로운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시대를 달리하는 여러 형태의 기와편과 토기, 자기편이 발견됐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이 굴을 이용했음을 짐작케 하는 유물들이다. 굴 입구 왼쪽에는 다양한 동물 뼈가 확인되고, 오른쪽은 취사 공간으로 사용했는지 검게 그을린 화덕자리가 남아 있었다. 이는 도승이 떠난 자리에 나뭇꾼이나 사냥꾼과 같은 이들이 거처했음을 짐작케 한다. 다만 뼈가 쌓여있는 반대쪽에는 폭삭 삭은 나뭇단이 오랜 세월 인적의 왕래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누군가 이 굴을 찾았다면 잠자리 또는 폭우나 눈으로부터 피신처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뭇단을 태워 산속의 추위를 물리치려 했을 것인데 나뭇단이 수북이 쌓인채 그대로 삭아있다는 것은 어느날 황급히 굴을 떠나야 했던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수행굴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기억에서 잊혀 찾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사람이 오래 머물기 힘든 여건 때문일 것이다. 해발 1,300m에 있는 영실은 일 년 중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추위와 습기가 엄습해 사람들이 머물기 힘들다. 해발 1,500m에 있는 수행굴은 더욱 그렇다. 한라산에서의 산림도벌과 방목 금지도 한 요인이 되었음직하다. 이 굴을 사용했던 이들이 오랫동안 굴을 찾지 않으

면서 굴의 위치와 존재도 함께 잊힌 것이다. 특히 4·3사건으로 한라산 입산이 금지된 것은 결정적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행굴과 '지그프리트 겐테'박사

수행굴에 관해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록도 남아 있다. 1901년 한라산을 등정한 뒤 높이를 측정해 발표한 지그프리드 겐테(Siegfroied Genthe : 1870~1904)의 기행문이 그것이다. 그는 1901년 한라산을 등정하던 중 수행굴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가 가져왔던 잉크병과 술병이 깨어진 조각 형태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겐테의 기록 속에 수행굴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의 한라산 등정 기록을 읽다보면 그가 영실 옛 탐방로를 따라 등정했고, 영실 동남쪽에 위치한 어느 굴에서 하룻밤(실제로는 하산할 때도 묵었으나 이미 그 굴에 대한 묘사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을 묵은 굴이 수행굴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림 2-21. 1901년 한라산을 등정, 높이를 측정한 뒤 독일의 퀼른신문을 통해 세계에 처음 알린 지그프리드겐테(Siegfroied Genthe : 1870~1904)박사

지그프리드 겐테는 독일인으로서 퀼른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지리학자이자 당시 퀼른신문의 동아사아특파원으로 1901년 파견되어 중국에서 발생한 아편전쟁을 취재한 뒤 우리나라로 들어와 여러 지역을 취재했는데 제주에 오게 된 것은 한라산 탐사가 주목적이었다. 그것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한라산을 보고 선장에게 제주에 기항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겐테 박사가 제주탐험에 나선 것은 온 섬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재수난(李在守亂)'이 진압된 1901년 5월이었다. 그는 이재수난이 발생하자 급히 제주에 파견된 바 있는 황실고문 샌즈를 통해 제주도와 한라산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 고

종황실에서 제주목사에게 보내는 친서와 독일대사관의 협조 서한을 갖고 제주탐험에 나서게 된다.

제주에 도착한 그는 제주목사를 만나 한라산을 오른 뒤 사진을 찍고 높이를 측정할 뜻을 밝혔는데, 목사와 그의 시종들은 극구 만류했다. 한라산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마침내 산 높이 측정과 사진 찍기가 결코 제주도민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님을 설명한 뒤에야 그는 제주목사의 호의로 12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등정에 나설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제주목사는 포고문을 통해 외국인이 한라산을 등정한다는 사실과 그 목적을 밝히고 주민들이 경거망동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재수난 직후의 상황이라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라산을 직접 등정한 뒤 2개의 다른 측정기구(영국제, 독일제)를 이용해 한라산 높이가 1,950m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독일의 《퀼른신문》(1901.10.13.~1902.11.30.)에 연재함으로써 한라산을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이 됐다. 1650년 폭풍에 밀려 제주에 좌초한 뒤 훗날 《하멜 표류기》를 통해 제주도는 물론 한국을 서양에 최초로 알렸던 헨드릭 하멜처럼 한라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히 기억돼야 할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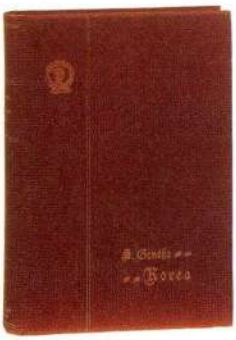


그림 2-22. 겐테박사의 유고집 《섬(濟州島) 탐험과 동해 중국에서의 표류》의 표지

겐테의 제주탐험에 관한 기록은 그의 유고집 《섬(濟州島) 탐험과 동해 중국에서의 표류》라는 제목의 책에 실렸다. 《한라일보》는 이 자료를 입수한 뒤 한라산을 직접 등정한 뒤 높이가 1,950m임을 밝혀낸 첫 측정자이자 기록상 한라산을 등정한 첫 번째 외국인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처음으로 보도했다(《한라일보》1995년 1월 17일자).

그의 제주도 여행기를 보면 영실 옛 코스를 따라 등정·하산 길에 하룻밤씩 굴에서 묵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기자였던 그는 매일 탐험의 기록을 기행문 형식으로 남겼는데, 수행굴 입구에서 서양풍의 잉크병 조각을 찾아냈다. 병 바닥에는 'Saifor'라는 제조회사명이 박혀 있었다. 탐사팀은 굴 밖 입구 가장자리에서 'Canada Dry'라는 상표가 적힌 깨진 술병도 찾아냈다(깨진 잉크병과 술병은 보존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부설 '한라산연구소' 관계자에게 넘겨졌다). 이 굴 속까지 외국제 잉크병과 캐나다산 술병을 가져왔던 주인공은 누구인가. 탐사팀은 바로 겐테를 지목했다.

겐테의 제주여행기를 보면 한라산을 등정하다 영실의 어느 굴에서 그의 호위병들과 굴에서 살고 있던 나무꾼 가족 등 10여 명과 굴속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이야기가 상세히 그려져 있다. 그는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 등정하느라 불만이 가득한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온 술과 커피를 권함으로써 순식간에 우호적 분위기로 만든 내용과 굴 중앙에 누워 잠을 잤던 이야기도 들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안무어사 김상헌의 기록에 '굴속은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다'는 내용과 굴 안 중앙에는 사람이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온돌 바위가 있는 동굴의 내부, 그리고 나뭇꾼과 사냥꾼의 거처로 사용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지금의 수행굴과 거의 일치한다. 한편 탐사팀은 동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시대의 토기편과 자기편 수십 개를 모아 보존을 위해 동굴 속에 파묻었다.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유적이면서 외국인으로서 한라산을 처음으로 등정하고, 그 높이를 첫 측정한 겐테박사가 이틀 밤을 묵었던 수행굴,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동굴인 수행굴은 한라산이 간직한 매우 중요한 유적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수행굴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가치 재정립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 한라산의 칠성대

제주는 별과의 인연이 많은 곳이다. 탐라국이 개국할 무렵에 도성 안에 칠성대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숱한 문헌자료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 문헌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칠성도=주성 안에 있다. 돌로 쌓은 옛 터가 있다. 삼성이 처음 나와서 삼도를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칠성 모양으로 대를 나누어 살았다. 그 때문에 칠성도라 한다."라고 하였다. 탐라시대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별문화는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주변에 남아 있다. 여기에 한라산에도 칠성대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몇몇 고지도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 한라산의 칠성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일까.

한라산 칠성대에 관한 문헌 기록

한라산 칠성대에 관한 첫 기록은 김상헌의 《남사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601년 안무어사로 파견된 뒤 그해 9월 24일과 25일에 한라산 산신제를 거행하기 위해 산을 등정했던 등반기를 남겼다.

> … 칠성대(길가에 높은 바위가 늘어선 것이 흡사 북두칠성과 같다.)와 좌선암(坐禪巖)(또한 바위 하나가 있는데 흡사 앉아 있는 승(僧)과 같다고 한다.)을 지났다. 중봉 이상은 소나무가 없고 오직 단향과 철쭉 밑에 눈과 같은 흰 모래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글은 한라산 등반 중 길가에 북두칠성처럼 늘어선 높은 바위들과 승(僧)과 흡사한 바위를 지나자, 소나무는 없고 단향목과 철쭉 밑에 깔린 흰 모래를 보았다는

그림 2-1. '선작지왓' 일대에서 바라 본 한라산 정상체 모습. 이러한 돌무더기들은 이 일대에 숱하게 흩어져 있다.

내용이다. 필자는 1998~2008년까지 진행된 '한라산대탐사' 중 이들 지대를 몇 차례 탐사한 바 있다. 이러한 탐사 경험으로 볼 때 칠성대로 지칭되는 돌탑은 한라산 정상부의 서남쪽 '선작지왓'으로 불리는 드넓은 평원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폐쇄된 영실(靈室)의 옛 남쪽 등반로를 따라 '선작지왓'에 이르면 커다란 돌무더기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들 칠성대로 추정되는 돌무더기를 지나 남벽으로 가는 길에는 약간 회색빛이 감도는 부서진 '선작지'들이 하얀 모래와 자갈처럼 깔려 있다. '선작지'는 제주 방언으로 '덜 익은 자갈'이라는 뜻이다. 현무암처럼 까맣지 않아 덜 익은 자갈 정도로 보았던 것 같다. 김상헌이 말한 '하얀 모래'는 이곳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남벽 가까이 다가서면 중간 지점에 장삼을 걸친 듯한 승(僧)을 닮은 큰 바위를 만날 수 있다. 남벽에는 거의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듬성듬성 단향목(檀香木)이 보이다가 정상인 백록담에 이르게 되면 못 주위에 촘촘히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상헌의 글에서 칠성대가 펼쳐져 있는 지대는 지금의 '선작지왓' 일대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칠성대에 관한 기록은 1609년 제주판관으로 도임했던 김치(金緻, 1577~1625)의 한라산 등반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

… 수행동(修行洞)을 지나서 10여 리를 가자 칠성대에 닿았다. 칠성대로부터 5리쯤 가자 석벽이 깎아 세워지고 반공(半空)에 기둥처럼 지탱하는 것을 보았는데, 곧 상봉(上峰)이었다.

김치 판관이 언급한 수행동(修行洞)은 영실 동남쪽 해발 1,300고지 부근에 있는 석굴을 말하는데 수행굴(修行窟)이라 부르기도 한다. 옛날 고승이 수행했던 굴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수행굴(修行窟)은 한라산 영실 동남쪽에 지금은 폐쇄된 옛 등반로를 따라 30~40분 정도 거리에 있다. 여기에서 다시 약 10리(약 4km)를 동남쪽으로 곧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라산 '선작지왓' 일대 커다란 돌무더기들이 흩어져 있는 전경이 눈에 들어온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커다란 돌탑이 있는데 이를 속칭 '탑궤'라고 부르는 돌무더기이다. 거대 돌탑처럼 이루어진 탑 안에 1m 남짓 들어간 공간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한라산 칠성대의 하나로 여겨지는 '탑궤'는 육안으로 볼 때 높이 3~4m, 너비 4m, 길이 6~7m 남짓한 규모다. 이들 크고 작은 돌무더기는 탑궤를 시작으로 남동쪽으로 이어지다 한라산 정상체가 있는 동쪽으로 향하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한라산 남벽 정상부로 오르는 등반로 주변에 있어서 탐방객들은 누구나 돌탑 사이를 지났을 것이다.

한라산의 칠성대에 관한 글은 1702년 이형상 목사의 등반기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그는 "영실 위쪽에 수행동이 있다. 동에는 칠성대와 좌선암이 있다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형상 목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앞서 언급한 김상헌의《남사록》이나 김치의 등반기를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930년에 불교 유적을 탐방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던 양세환(梁世煥)이 '백양환민'이라는 필명으로《조선불교》라는 간행물에 남긴 순례기에도 칠성대와 수행굴에 관한 글이 보인다.

… 동부(洞府: 영실을 지칭)의 동남 산허리에 있는 석굴은 이른바 수행굴이다. 옛날에 도승(道僧)이 그 속에서 입정수행(入定修行)했던 곳으로 아직도 부서진 온돌 자국이 남아 있으며 수행굴로부터 뒤로 1리를 올라가면 기도수행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도인선객(道人禪客)들이 하늘에 제를 지냈던 칠성대이다. 나도 금번 여행이 무차하기를 묵도(默禱)하면서 대(臺)를 지나 동으로 한참 올라가서 우러러보니 깎아지른 (한라산)석벽이 반공(半空)에 천주(天柱)를 괴인 듯하였다.

이 글에는 수행굴로부터 1리 떨어진 곳에 칠성대가 있는 것으로 쓰고 있다. 이는 김치 판관의 기록 10리와 비교할 때 거리상의 큰 차이가 있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수행굴에서 선작지왓에 접어들 때 처음 마주치게 되는 '탑궤'가 아닐까 추정되지만 거리의 착각인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이전 기록들에서 나오지 않았던 흥미로운 점이 나타난다. 즉 '탑궤'로 보이는 칠성대가 기도 수행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도인선객(道人禪客)들이 하늘에 제를 지냈던 제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탑궤는 사람들이 안쪽으로 1m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이곳은 제단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공석축인지 조사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지도에 나타난 칠성대

한라산의 칠성대에 관해서는 조선 시대 이후 최근세까지 제주를 찾아왔던 관리나 학자들의 시문이나 등반기를 통해 언급되어 왔다. 그러면 한라산 칠성대는 지도 속에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1861년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속 제주지도를 보면 제주도가 오늘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그려져 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혈망봉(穴望峰)'과 '십성대(十星臺)'라는 표기도 보인다. 혈망봉은 문헌 기록에는 간혹 산 정상을 나타내는 봉우리로 기록되기도 하였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십성대에 대해서는 칠성대의 오기(誤記)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오상학(吳尙學)의 연구를 통해 십성대가 칠성대의 오기임을 바로잡게 되었다. 그러면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 한라산 칠성대를 넣게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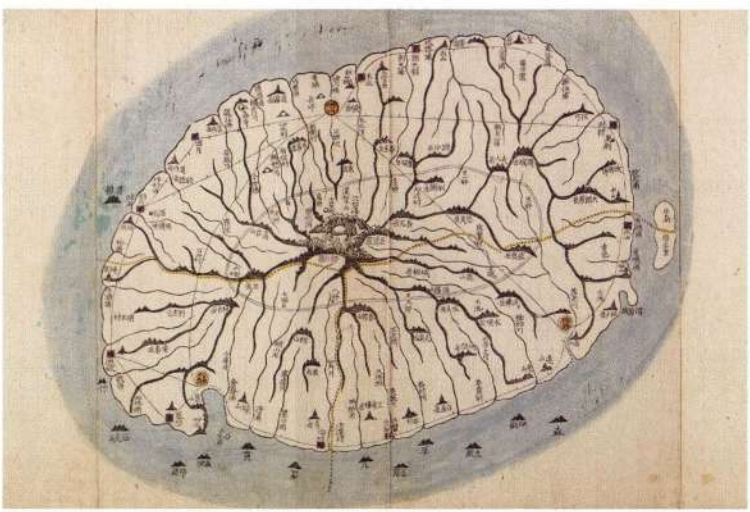


그림 2-2.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처음 한라산 정상 부근에 표기했던 '십성대(十星臺)'는 뒤에 칠성대로 정정 표기하고 있다.

오상학은 김정호가 앞서 1834년에 제작한 《청구도》에는 한라산 칠성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대동여지도》 제작의 저본 지도라 알려진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는 백록담 옆에 십성대가 아닌 칠성대로 표시되어 있음을 주목했다. 이에 의문을 두고 김정호의 다른 지도와 저서를 검토한 결과 그에 관한 단서를 찾았는데 김정호가 말년에 저술한 전국 지리지인 《대동지지》가 그것이다.

《대동지지》에는 다음과 같이 칠성대와 관련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었다.

수행동을 지나서 10여 리를 가자 칠성대에 닿았다. 칠성대로부터 5리쯤 가자 석벽이 깎아 세워지고 반공에 기둥처럼 지탱하는 것을 보았는데, 곧 상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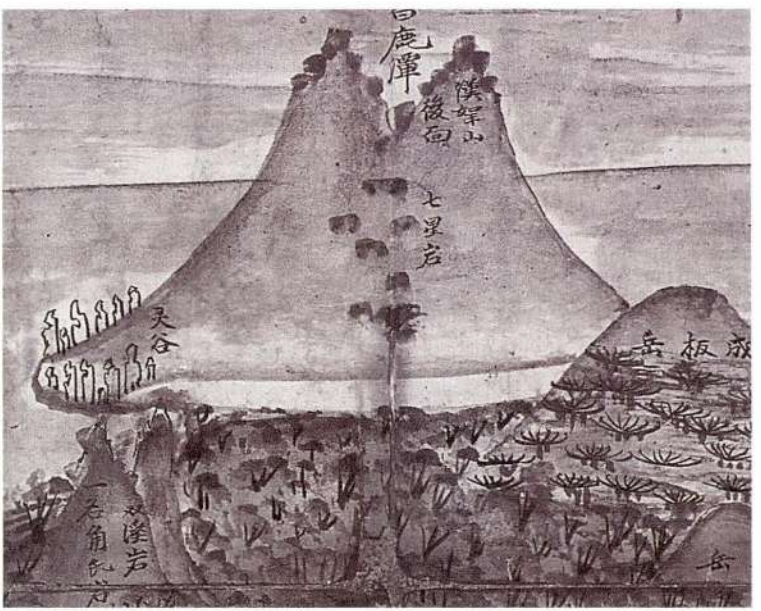


그림 2-3. 19세기에 서귀진에서 한라산의 칠성대(암)를 그린 작자 미상의 그림.
백록담을 북극성자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소개했던 김치 판관의 한라산 등반기에 적혀진 내용과 일치한다. 김정호는 뒤늦게 김치 판관의 기록을 접한 뒤 이를 보고 그대로 자신의 책에 옮겨 적었고, 이것이 지도에도 반영되었다.[1]

이처럼 한라산에 칠성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관련 문헌과 지도 외에도 19세기에 그려진 작자 미상의 그림인 〈탐라십경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탐라십경도〉 중 '서귀소(西歸所)' 그림은 서귀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며 그린 것이다. 우뚝 솟은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이라고 표기된 아래에는 돌무더기들이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다. 이를 '칠성암(七星岩)'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그림 오른쪽 상단에는 '한라산 후면(後面)'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는 제주목에서 볼 때 한라산 뒤쪽인 남쪽에 칠성암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칠성암의 주걱 방향도 한라산 정상부를 향하고 있다. 따라서 칠성암을 북두칠성으로, 백록담은 북극성으로 이해하며 그렸다고 볼 수 있다. 당대 지식인들이 한라산 칠성대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칠성대는 용암돌탑인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칠성대는 탐라 시대에 삼을라가 삼도(三都)를 분거할 때 북두칠성의 형태를 모방해 축조되었다고 한다. 이는 칠성신앙만이 아니라 도읍을 설계하고 나아가 삼을라 집단의 결속을 도모하는 상징으로 세워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촌에 세워진 칠성대는 석축누토(石築累土)의 방식으로 쌓아졌는데 규모는 너비가 20m, 높이는 3~4m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당시 대규모의 노동력이 투입된 토목공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북두칠성에 대한 탐라지배층의 숭배의식이 매우 강했음을 보여준다.

1) 오상학, 〈천문도와 지도로 보는 제주의 별문화〉, 탐라별문화 학술세미나, 2016, 62~69쪽.

그렇다면 한라산에도 칠성대를 쌓았을까. '한라산학술탐사'를 통해 칠성대가 분포한 '선작지왓' 일대는 넓적한 바위들이 주변 수만 평의 대지 위에 산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칠성대와 같은 석조물을 구축할 경우 재료를 쉽게 구하고 운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록을 볼 때 탐라인들은 1,500~2,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어느 시기에 탐라도성에 칠성대를 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여러 조건을 볼 때 한라산 정상 가까운 지대에 '거대한 돌탑을 탐라인들이 쌓았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선작지왓 일대의 용암돌탑에 관한 연구 자료를 공개했다. 한라산 남서부 선작지왓 일대에 분포하는 다수의 용암돌탑이 용암 상승작용으로 만들어진 '튜물러스', 즉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독특한 화산지형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림 2-4. 칠성대의 하나로 보이는 암괴들은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사진= 제주유산본부 제공)

… 조사에 따르면 선작지왓 일대에는 약 140여 곳에 용암상승 작용에 의한 튜물러스 및 그와 관련된 지형(붕괴된 튜물러스)들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형들은 주변에 비해 평균 5m 이상 높고 최고 15m까지 솟아 있기도 하며, 이 중 30여 곳은 탑궤와 같이 전형적인 용암돌탑의 형태를 갖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2020.10. 6)

이러한 지질학적 연구자료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칠성대가 화산분출에 의해 쌓여진 돌무더기인지, 인공적으로 쌓은 석축물인지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산이나 골짜기 등지에 북두칠성처럼 형성된 지형을 '칠성대'로 일컬었던 사례는 전국적으로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다. 황해도, 경상도 해인사, 충청도 속리산, 강원도 금강산, 평안도 효성산, 서울 도봉산 등지에도 칠성대라는 지명이 전해오고 있다. 대부분 산 위의 돌무더기 혹은 선돌이 여럿 중첩되어 있을 때 신성시된 것들이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정의 돌이 별 신앙과 만난 자리로 보인다.

여기서 김춘수의 시 〈꽃〉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후략)

우리는 〈꽃〉과 같은 사례를 주변에서 수없이 볼 수 있다. 오래된 고목을 신목(神木)이라 부르기도 하고, 한라산을 영산으로 신성시하기도 한다. 한라산의 돌탑들을 지질학적 시각으로는 용암이 솟아오르다 굳은 암괴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도인선객(道人禪客)들에게는 제천의례의 성소이며, 칠성신앙을 간직한 이들에게는 땅에 내려앉은 또 다른 일곱 개의 별의 형상으로 여겨왔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탑궤와 같은 돌탑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용암돌탑과는 달리 인간들이 일부를 큰 암석으로 덧씌운 느낌도 있다. 탑궤처럼 일곱 개의 칠성대마다 한 덩어리의

암석을 갖다 쌓아도 그것은 훌륭한 인공축조물로서 인식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여러 기록과 지도, 그림 등에서 보듯이 칠성대는 예부터 최근까지 한라산을 찾는 이들에게 중요한 명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록을 남긴 이들은 어명을 받고 제주에 내려왔던 어사나 제주목사 또는 제주판관이거나 학자였다. 중요한 사실은 인위적 조형물이든, 화산분출의 산물이든 왜 이들 돌무더기가 사람들에 의해 한라산의 칠성대로 인식되며 그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고대 탐라인들의 신앙이나 정신세계와 맞물려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축복은 땅을 통해 인간들에게 전해진다고 여겼다. 그게 고대로부터 전해내려 온 동아시아의 전통 천문관이다. 탐라가 육지부의 그것들과 달리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상당한 규모의 칠성대를 탐라도성 안에 축조한 것도 고대의 천문관과 칠성신앙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탐라인들은 왕의 호칭

그림 2-5. '선작지왓'일대에 흩어져 있는 돌무더기들(드론 사진: 임재영)

마저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주(星主)' 즉 '별나라 주인 또는 군주'로 불러왔다.

따라서 탐라인들이 도성(都城)안에 북두칠성 형태의 칠성대를 축조했다면 땅의 중심인 한라산에도 칠성대를 구축하거나 의미 부여하는 발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하늘의 칠성, 땅의 칠성, 그리고 인간세계의 칠성을 완성하고, 천·지·인의 성신신앙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고 해석된다.

한라산의 칠성대 연구는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부족한 인문적 유산을 칠성대를 통해 그 가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의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작지왓 일대에는 1백 40여 개의 돌탑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그중에 어떤 돌탑들이 칠성대의 형태로 배열되었으며, 주걱의 모양으로 백록담 쪽을 향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들 돌탑 중에 인공적 흔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라산의 칠성대는 남벽으로 등정하기 위한 등반로 주변에 산재해 있다고 해석된다. 이들 돌탑이 연결되는 곳은 서귀포의 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조망처다. 더구나 돌탑이 흩어져 있는 '선작지왓'은 봄에는 영산홍이 흐드러지게 피는 신들의 정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언젠가는 '선작지왓'을 둥그렇게 하나로 연결하는 데크 시설이 놓이는 날을 기대한다. 그것은 최소한 조선 시대부터 수백 년간 활용되었던 옛 등반로의 복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가치를 드높인다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한라산의 굴빙고(窟氷庫)

자연동굴을 활용한 제주의 빙고(氷庫)

한라산 속에는 선인들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유적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 '구린굴'은 제주선인들이 자연동굴을 빙고(氷庫)로 활용해 왔던 유적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부터 얼음을 저장했던 석빙고가 만들어졌고, 그 후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장빙제도(藏氷制度)가 도입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러면 제주에도 장빙제도가 존재했을까. 이원진 목사가 펴낸 《탐라지》의 〈창고〉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빙고(氷庫) : 한라산 바위굴 속에 결빙된 얼음이 있다. 무더운 여름에도 녹지 않는다. 파내어 가져와서 필요한 곳에 공급했다. 별도로 창고에 저장하지 않는다(氷庫. 漢拏山巖窟中所結之氷 盛夏不瀜 鑿來給用 不別庫藏)."

짧은 내용이지만 육지부의 석빙고와 달리 제주인들은 산속에 있는 굴을 이용해 겨울에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꺼내 사용했던 사실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제주의 얼음을 저장했던 굴빙고(窟氷庫)는 어디에 있었을까. 《탐라지》의 기록을 볼 때 굴은 제주목관아와 가까운 산속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목사나 판관 등이 거처하는 제주목관아에 얼음을 급용하기 위한 빙고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펴낸 《제주시 일원 천연동굴 분포조사보고서》(1999. 12)에 따르면 제주목관아가 소재했던 제주시권의 한라산에는 두 개의 굴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해발 700~800m의 구린굴과 해발 600m에 위치한 평굴이 그것이다.

그림 2-6. 병문천 상류에 위치한 구린굴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

한라일보 '한라산학술대탐사팀'은 '하천과 계곡' 탐사의 일환으로 무수천(외도천) 탐사에 이어 1999년 2월부터 제주시 3대 하천의 하나인 병문천 탐사에 착수했다. 탐사팀은 사전 탐사를 통해《탐라지》에 기록된 빙고가 구린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한라산의 또 다른 평굴을 현장 확인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쉽지 않고 굴 내부로 들어갈 경우 출입자가 엎드려 들어가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출입이 어렵고, 얼음을 저장하기에도 적당치 않은 굴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탐사팀은 병문천 탐사와 함께 직접 눈으로 마주하게 될 구린굴이 빙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림 2-6>에서처럼 병문천 상류에 위치한 구린굴 입구는 천장이 무너지며 하천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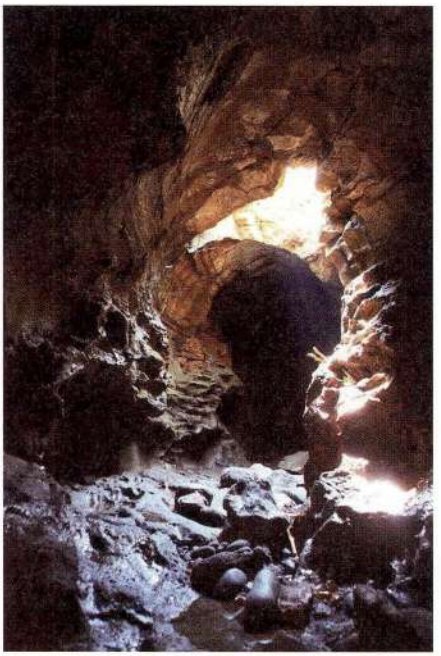


그림 2-7. 구린굴은 천장 위를 흐르는 병문천의 영향으로 동굴상부가 붕괴되며 하천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린굴은 어떤 굴인가

제주시 3대 하천의 하나인 병문천은 해발 1,530m 지점에서 발원한 뒤 세 갈래로 나누어져 북쪽 하류로 내려오다 1,000m 지경에서 다시 합류하면서 본류를 형성한다. 구린굴은 이들 합류지점에서 150~200m 하류지점에 위치해 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음사 등반안내소에서 약 1.5㎞ 정도 올라가면 등산로와 인접한 바로 서쪽에 하천이 무너지면서 일부 구간이 지하로 뻥 뚫려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입구에는 등반객들의 추락위험을 경고하는 푯말을 붙여 놓고 있다.

구린굴 입구는 북쪽에서 본류를 타고 내려온 병문천변에 붙어 있다. 지형적으로 보면 하천의 바닥 아래 굴이 형성돼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S'자 형태의 굴 중 반은 굴 형태로 남아 있고, 반은 하천화가 되면서 덮게 부분은 대부분 무너져 있고 외벽과 바닥만 남아 있는 형태다. 실제로 병문천은 오랜 급류에 의한 침식 활동으로 구린굴의 일부를 허물어뜨리면서 동굴이 하천으로 변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이처럼 구린굴은 제주도 하천의 생성요인을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이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하도(河道)를 결정짓는 요인은 화산열곡, 유수의 침식작용 및 지하수 방향 그리고 용암의 붕괴 등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린굴을 거느린 병문천은 바로 용암동굴의 붕괴로 형성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는 굴이다.

구린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굴 형태를 갖추고 있는 총 280m 가량 중 입구 부분인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68m의 구간에는 5~38m의 간격으로 모두 네 군데의 동굴천장이 붕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 동굴바닥은 오랜 세월 물이 흐르면서 유속에 의해 하상(河床)처럼 매끄럽게 마모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천 상류에서 밀려온 자갈과 모래가 쌓여 있다. 천장의 일부와 벽면은 여전히 동굴이지만 바닥은 이미 하천으로 변한 것이다. 함몰된 천장의 너비는 작게는 2~3m, 큰 것은 6m 남짓하다.

병문천 상류계곡이 동굴 붕괴로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곳은 굴 내부만이 아니다. 구린굴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200m 구간에는 높이 7.5m, 너비 14m 크기의 1차 함몰지점이 나타난다. 이를 시작으로 10여 군데에서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더구나 하천 양쪽 암벽은 지금도 동굴 내부처럼 표면이 거칠다. 동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린굴은 당초에는 약 450m 길이의 동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m 가량이 침식작용으로 허물어졌고, 나머지 350m 정도만 동굴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탐사팀이 대략 조사한 수치로서 앞으로 정확한 계측이 필요한 부분이다.

빙고(氷庫)로서의 구린굴

구린굴 내부는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는가. 굴 내부의 총 길이는 대략 약 250m 내외, 진입로의 너비는 2~3m 정도이다. 진입로 양쪽에는 굴을 이용하기 쉽게 돌들을 양쪽 언저리로 가지런히 정리한 흔적이 뚜렷하다. 내부에는 평탄 작업을 한 것처럼 잘 정리돼 있는데, 가장 안쪽에는 높이 2~3m, 넓이 150~210여 평방m 정도 되는 광장이 형성돼 있다. 광장의 밑바닥은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얼음을 저장하기 좋게 다져놓은 것으로 보인다. 입구에서부터 안쪽까지는 길이 1m 정도로 자른 직경 10cm

의 나무토막들이 수십개 흩어져 있다. 얼음을 운반할 때 바닥에 깔기 위한 재목으로 짐작되는데 온도가 일정한 굴 내부여서 그런지 아직도 썩지 않고 바닥에 깔려 있다.

구린굴이 굴빙고 역할을 했던 곳이라면 바로 구린굴 바로 위 지점에 있는 하천에서 얼음을 캔 뒤 굴속 깊은 곳에 있는 넓은 광장(氷庫)에 저장했을 것이다. 평평하게 정돈된 진입로와 일정한 크기로 잘라낸 나무토막들은 얼음을 운반하기 쉽게 만들어진 도구이며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빙고는 사용이 지속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구린굴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굴 내부의 몇몇 곳은 2~3층으로 형성돼 있고, 2층 굴에는 작은 연못도 있다. 이 곳 역시 동굴 위인 하천에서 침투하는 누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곳곳에서 굴 내부의 침식과 균열 현상이 보인다. 굴속 가장 깊은 곳, 다시 말해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氷庫] 구실을 했던 현장을 보면 천장 곳곳에 균열된 틈새를 타고 물방울

그림 2-8. 무너지고 있는 구린굴 입구 모습

이 뚝뚝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굴 내부에 틈새가 생겨나는 것은 외부에서 물과 공기가 유입됨을 뜻하고, 이는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얼음 창고로서의 치명적 결함을 의미한다.

구린굴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면 선인들이 남긴 집터와 숯 가마터 흔적이 보인다. 얼음을 캐어 저장하고, 급용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살며 이용했던 자취가 아닐까. 숯 가마터와 같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숯을 구웠던 이들은 얼음을 저장·급용하는 일 외에도 틈틈이 숯을 구워 관에 공급하거나 일반인들에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육지부와는 달리 천연동굴을 빙고로 활용했던 제주선인들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굴빙고의 유적은 아직도 조사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동굴의 하천화가 지속되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자취마저 찾기 힘들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굴빙고인 구린굴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는,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하나인 한라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립하려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4 한라산지 국마장 잣성

목장사의 산물, 잣성

《승정원일기》(1654)에 따르면, 조선시대 마정(馬政)은 국가의 중대한 일로 인식되어 전국의 말 목장에 대한 관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전국 최대 면적의 말 목장이 있었던 제주지역에서도 제주판관, 대정현감, 정의현감이 감목관을 맡아 국마장을 운영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고려말 몽골이 탐라목장(1276~1374)을 운영했던 지역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양질의 말들이 존재하여 조선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졌음을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 제주역사는 마정사(馬政史)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 지형도를 보면 한라산지 중산간 동부지역에 성(城)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돌담은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표선면 중산간 지역에 선형(線形)으로 길게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잣성[잣담]이라고 부르는 조선 시대 국마장 경계 돌담이다. 이것은 외적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용 석성(石城)이 아니라 국마장의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해 만든 돌담으로, 조선 시대에 제주 한라산지에 국마장이 설치돼 운영되었음을 실증하는 역사유적이다.

잣성은 조선 시대 국마장을 운영했던 목장사의 산물이다. 목장 경계 돌담은 전남과 경남지역 남해안 국마장 터와 제주지역 국마장[십소장]과 산마장 터에 일부 남아있다. 이 돌담은 제주도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로 등장했으며, 조선 시대 중산간 토지이용 형태인 목축의 실재를 입증한 유적경관(遺蹟景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조선왕조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제주도민과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지배했던 역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이러한 잣성의 실체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탐라지》, 《제

주계록》, 《제주읍지》 등의 문헌사료와 함께 《탐라순력도》,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지도〉와 같은 고지도에서 확인된다.

한라산지 목장사의 변천과 잣성 등장

한라산지 목장사의 변천

① 고려말 몽골의 탐라목장

고려 시대 정부에서는 해도(海島)에도 목장을 설치했다.[2] 문종 25년(1071)에는 제도목장(諸島牧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섬 목장에서 말을 죽게 한 자는 도리(島吏)가 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며 말 생산을 강조했다. 고려가 원의 간섭기에 들어간 이후, 원은 충렬왕 원년부터 고려에서 마필 확보에 주력하면서 충렬왕 14년(1288) 원은 마축자장별감(馬畜孳長別監)을 통해 고려의 목마장에서 마필을 징출(徵出)해 갔다. 제주지역에서는 원나라가 운영했던 말 목장이 등장했다. 이것이 《元史》에 등장하는 탐라목장(耽羅牧場)이다.

원의 세조인 쿠빌라이(1215~1294)는 1276년 8월 탑라적을 탐라 다루가치로 임명한 다음, 현재의 성산읍 수산리 초지대인 수산평(首山坪)에 말 160필, 소, 양, 낙타, 나귀 등 5축과 카라치[하치, 합적, 목호]들을 탐라에 파견하여 목장을 운영하게 했다. 탑라적은 10여 년간(1276~1287) 목마사업을 일으켜 탐라목장을 원나라 14개 황가(皇家) 목장 가운데 하나로 성장시켰다.

---

2) 해도(海島)에 섬이 설치되었다는 근거자료로는 《高麗史》 권82(兵志2, 馬政條)에 문종 25년 기록에 '島阹'가 등장하고, 충렬왕 원년 7월조에 '點閱諸島牛馬', 충렬왕 14년 2월조에 '先是牧馬於諸島', 《高麗史》 권1권(世家1. 태조 6년 8월조)에 '影島牧場', 《高麗史》 권1(태조 15년 9월조)에 '猪山島牧場' 등이 있다.

탐라목장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원제국은 1273년 고려군과 함께 삼별초군을 진압한 후, 군마 생산과 확보를 위해 1276년부터 탐라목장을 설치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제38권)에도 충렬왕 2년(1276)에 원 제국이 수산평에 말 160필을 방목했다고 기록했다. 1277년 다루가치[搭剌赤]는 탐라목장과 동·서아막 설치를 주도했다.

둘째, 원제국은 1296년 탐라목장의 말 생산을 전담시키기 위해 단사관을 파견했다. 1300년에는 원 제국 황후의 구마(廐馬)를 탐라목장에 방목했고, 탐라총관부를 일시 부활시키는 등 목장 운영에 적극성을 보였다. 일본원정이 실패로 끝난 후 1295년 원 제국은 관리를 보내 처음으로 탐라에서 말을 반출해 갔다. 이것은 탐라목장 운영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원 조정에서 목장 운영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

셋째, 공민왕이 원·명 교체기를 이용해 배원 정책을 전개했고, 명나라가 고려에 탐라마 2,000필을 요구하면서 원 출신 하치들의 반발을 샀다. 위기를 느낀 하치집단이 반란을 일으키자 1374년 공민왕이 탐라에 남아 있던 원의 잔존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최영 장군에게 탐라 정벌을 명했다. 최영에 의해 목호의 난(1374)이 진압되면서 그들이 관리했던 탐라목장은 쇠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탐라목장은 100년 가까이(1276~1374) 운영되다가 고려 정부로 귀속됐다.

② 조선 시대 제주 국마장

조선 시대에도 말의 안정적 확보는 통치자들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서남해안의 수초가 좋은 곳에 새로이 목장을 설치했다. 당시 설치되었던 목장 수는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58개, 《동국여지승람》(1481)에 92개, 《반계수록》(1670)에 123개, 《목장지도》(1678)에 138개, 《대동여지도》(1861)에 114개, 《증보문헌비고》(1903~1908)에 114개로, 조선 전기에는 100개 이내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100개 이상으로 증가하면서도 폐목장들도 등장했다.

■ 국마장 설치와 십소장으로 재편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보낼 제주마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안지역의 목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라산 중턱에 국마장 설치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제주 출신 고득종(高得宗)이었다.[3]

세종 11년(1429) 고득종이 세종에게 한라산에 돌담을 쌓아 목장을 설치하자고 건의함에 따라 세종이 '제주한라산목장'을 개축(改築)하라고 윤허했다. 그 결과 143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해 목장 경계용 돌담(잣성)을 쌓고, 국마장 예정지 내에 있었던 344호의 주민들을 국마장 예정지 밖으로 옮기면서 국영목장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사료 (ㄱ)와 (ㄴ)은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ㄱ) 兵曹啓上護軍高得宗等上言請於漢拏山邊四面約四息之地築牧場不分公私馬入放場內居民六十餘戶悉移於場外之地從願折給 : 상호군 고득종 등이 청하기를, 한라산 가의 사면이 약 4식(120리)쯤 되는 면적의 땅에 목장을 축조하여, 공사의 말을 가리지 말고 그 목장 안에 들여보내어 방목하게 하고, 목장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 60여 호는 모두 목장 밖의 땅으로 옮기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땅을 떼어 주도록 하여 주십시오.[4]

(ㄴ) 改築濟州漢拏山牧場周圍一百六十五里移民戶三百四十四 : 제주 한라산의 목장을 개축하였으니, 주위가 1백 65리(里)이었다. 민호(民戶) 3백 44호를 옮기었다.[5]

제주지역에서 국마장이 설치된 구체적인 시기는 《세종실록》(49권) 기록과 같이, 세종 12년(1430) 8월 23일 이후라 할 수 있다. 당시 세종의 명을 받아 목장 설치의 타

3) 고득종은 조선 전기 세종 때의 문신으로, 1439년 통신사로 일본 왕의 서계를 가지고 돌아왔으며, 예조참의, 호조 참의, 중추원동지사·한성부판윤 등을 지낸 인물이었다. 고득종에 대해서는 일본인 학자 고교공명이 쓴 〈高得宗 硏究〉(《탐라문화》 10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0)가 참조된다.

4) 《세종실록》 45권, 세종11년(1429) 8월 26일(경자).

5) 《세종실록》 47권, 세종12년(1430) 2월 9일(경진).

당성을 검토했던 제주안무사(濟州安撫使)는 김흡(金洽)이었다.

> 판부사 최윤덕(崔閏德)이 아뢰기를, 금년 벼농사가 꽤 잘되었사오니 제주목장(濟州牧場)의 수축을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제주안무사(濟州安撫使)에게 축조에 대한 편의 여부를 심찰해 연구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쌓을 만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아뢰어 올 것이오.[6]

세종 12년(1430)부터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국마장은 성종 24년(1493) 고대필(高台弼)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된다. 그는 성종 24년 당시 제주에'십목장(十牧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십목장은 곧 십소장(十所場)에 해당한다고 하며 십소장이 성종연간에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있다.[7] 그러나 십소장은 송정규 제주목사가 1705년 목장재정비정책 즉, 규모가 작은 목장을 큰 목장에 편입시키며 전도의 국마장을 10개로 통폐합시킨 결과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것은 첫째, 이원조의《탐라지초본》(1841)에 등장한 "肅廟甲申牧使宋廷奎啓聞築場舍劣取優合小爲大定爲十所"라는 기록을 통해 입증된다.

둘째, 1703년에 발간된《탐라순력도》의〈한라장촉〉에 십소장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십소장은 1703년 이후에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더욱 부합한다. 십소장의 공간 구분이 최초로 제시된 사료는 1706년경 제주목사 송정규가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탐라지도〉이다(원본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소장)(그림 2-9). 이 지도에 근거해 1709년 제주목사 이규성은〈탐라지도병서〉(1709)에 십소장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었다.〈탐라지도〉에 따르면 제주목 관할 구역에는 1소장

---

6)《세종실록》49권, 세종12년(1430) 8월 23일(신묘) : 辛卯/受常參視事判府事崔閏德啓 今年禾穀稍登 請築濟州牧場上曰曾令濟州按撫使審度便否今若可築則必啓矣

7) 남도영,《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박물관, 2003, 202쪽 : 필자는 고대필이 언급한 십목장과 십소장은 다른 존재로, 공간적 분포 차이가 있다고 본다. 1493년 '십목장(十牧場)'은 제주목 지역에 있었던 10개의 소규모 목장이었던 반면에 1705년에 등장한 '십소장(十所場)'은 제주도 전역에 분산되어 분포했다.

그림 2-9. 탐라지도(1706년경)에 나타난 십소장(강창룡 제공)

부터 6소장, 대정현에는 7, 8소장, 정의현에는 9, 10소장이 입지했다.

십소장은 해발 200~400m 범위에 설치되었던 10개 대규모 목장이었다. 각각의 소장(所場) 안에는 자목장(字牧場)들이 분포했다. 자목장은 둔마(屯馬)를 천자문의 글자로 낙인한 후, 편성해 만든 소규모 목장으로, 1개 자목장은 암말 100필과 숫말 11필로 구성되었으며, 군두 1명과 군부 2명, 목자 4명이 자목장을 관리했다. 목장과 목장의 경계는 하천을 이용하거나 돌담을 쌓아 활용했다.

자목장에는 제주마(조랑말)들이 방목되었다(그림 2-10). 조선 후기 제주지역 십소장과 산마장의 분포는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0. 제주마방목지의 조랑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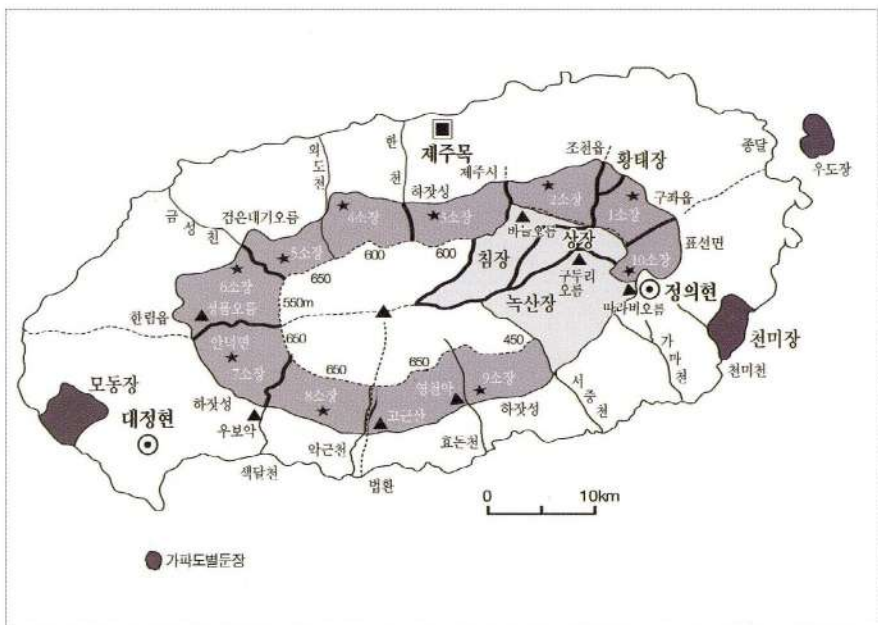


그림 2-11. 조선후기 제주도 십소장과 하잣성(강만익, 2016)

■ 산마장 등장과 운영

제주 중산간 지대에 형성된 10소장 경계선(상잣성) 위의 산간지역에는 산장(山場) 또는 산마장(山馬場)이 존재했음이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지도에는 산마장이 총 9개 등장한다. 정의현 9소장 위에 1개, 10소장 위 1개, 9소장과 10소장 위에 5개 그리고 제주목 1소장 위에 1개, 2소장 위에 2개가 나타난다. 이곳의 산마(山馬)는 초지대와 삼림지에서 연중 방목되어 십소장의 말보다는 운동량이 많았으며 아무나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야생상태에 가깝고 민첩해 전마나 군마로 적격이어서 정부에 의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송정규 제주목사의 《해외문견록》에 따르면 순치 기해년(1659, 효종 10) 조정에서 김만일의 자손들에게 흩어져 있던 말들을 한데 모아 국마와 맞바꾸고는 따로 산마목장(山馬牧場)을 설치하여 김만일 자손에게 산마[장] 감목관의 직책을 세습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8] 즉, 산마장은 효종 10년인 1659년에 등장했으며, 조정에서 김만일 자손들의 우수한 말들을 국마와 교환한 후 이 말들을 산마장에 방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산마장을 구성했던 '삼장(三場)'은 정조6년(1782)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침장(針場)', '녹산장(鹿山場)', '상장(上場)'이었다.[9]

제주목 지역에 위치했던 침장은 조천읍 교래리 '바농오름'[針岳] 일대, 산굼부리와 성불오름 일대는 상장(上場), 정의현 지역에 위치했던 표선면 가시리 따라비오름과 큰사스미 오름 그리고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일대는 녹산장(鹿山場)이 입지했다. 침장과 녹산장이라는 명칭은 오름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상장은 침장 위에 위치한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해석된다. 녹산장 내에는 최고 품질의 상등마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갑마장(甲馬場)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갑마장은 따라비오름과 대록산을 연결하는 가시리 협업목장에 해당된다.

---

8) 송정규 지음, 김용태·김새미오 옮김, 《해외견문록》, 휴머니스트, 2015, 104쪽: 順治己亥 朝家收其餘馬之散在孫者 以國馬相換 別設山馬牧場 以萬鎰子孫 世襲監牧之職

9) 《승정원일기》, 정조 6년(1782) 3월 29일(병인).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은 정조 18년(1794)에 제주도에 파견된 어사 심낙수(沈樂洙)가 산마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18세기 말 산마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 문서에는 첫째, 산마장이 재정비되어 등장한 녹산장, 침장, 상장의 공간 범위와 각 목장에 있는 경계용 돌담[間墻]과 하천이 표시되어 있다. 둘째, 산마장의 운영 조직이 나타나 있다. 산마장은 산마감목관-군두-군부-목자로 이어지는 마정체제를 기초로,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을 하나의 패(牌, 群에 해당)로 편성, 매 패마다 목자 10명을 배치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10] 셋째, 산마장이 경작이 가능한 장소와 농경이 금지된 방목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라산지 잣성의 등장과 구분

① 한라산지 잣성의 기능과 구분

잣성은 조선시대 국마장 운영의 산 증거이다. 이 용어는 1970년대부터 제주도 지형도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이것은 국마장 경계에 쌓은 담장을 가리키며,[11] 제주어로 '잣'은 '널따랗게 돌들로 쌓아 올린 기다란 담'을 의미한다.[12] 전통사회에서 제주도민들은 잣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잣' 또는 '잣담'을 사용했다. 실례로, 마을 촌로들은 '알잣', '웃잣', '하잣담', '상잣담'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목장에 쌓은 성이라는 의미에서 장성(場城)이라고 부르기도 했다.[13]

조선시대 잣성은 〈耽羅地圖竝書〉(1709)의 '석장(石墻)', 《濟州啓錄》(1846~1884)의 '상하장원(上下牆垣)'이라는 용어로 등장했다. 특히 《濟州啓錄》 자료는 상잣성과 하잣성의 명칭과 역사적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다.

---

10) 남도영,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박물관, 2003, 310쪽.
11) 金奉玉, 〈잣성〉, 《굽소리》 4월호, 한국마사회, 1989, 48쪽.
12) 濟州道, 《濟州語辭典》, 1995, 484쪽.
13)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162쪽. 濟州道, 《濟州道誌》(下卷), 1982, 115쪽.

그림 2-12. 제주시 회천동 3소장 하잣성 모습

잣성은 그 위치에 따라 하잣성, 중잣성, 상잣성 그리고 간장(間牆)으로 구분된다. 1:50,000 지형도를 토대로 잣성 위치를 보면, 대체로 해발 150~250m 일대에 하잣성, 해발 350~400m 일대에 중잣성, 그리고 해발 450~600m 일대에 상잣성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잣성들은 한라산지를 환상(環狀)으로 크게 3등분하는 역할을 했다. 하잣성은 국마장의 하한선에 해당하며 국마장과 농경 가능지를 경계 짓는 역할을 했다(그림 2-12).

상잣성은 우마들이 한라산 밀림지역으로 들어가 동사하거나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중잣성은 하잣성과 상잣성 사이의 공간에 축조되었다. 간장(間墻)은 목장을 남북방향으로 구획하기 위해 축조된 돌담이다. 이것은 목장간 경계가 될 만한 하천이 없는 목장지역에서 각 목장간 남북방향 경계선 역할을 했다. 이것을 '사잇담', '선잣'이라고도 부른다. 조선후기에 설치된 산마장(침장, 상장, 녹산장) 내에도 간장이 설치되었다. 제주도 잣성들은 거주지역과 비거주지역, 농경지와 방목지 그리고 식생분포 즉, 초지대와 삼림지를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

② 한라산지 상산방목용 돌담

상산방목은 근현대시기 한라산 백록담 부근인 해발 1400m 이상의 완경사지에 형성된 고산초원지대에서 이루어진 방목형태였다. '상산'(1400~1950m)은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철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아 진드기 피해가 적은 곳이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초지와 물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궤(바위굴)가 삼위일체 되는 장소여서 일찍부터 방목지로 활용되었다. 이곳의 방목은 한라산 산정부의 지형조건과 기후 및 식생환경을 인식한 목축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상산방목지 중'선작지왓'은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고원 초원지대로, '산상정원'(山上庭園)으로 불리는 곳이다. 넓은 초지와 노루샘,'탑궤'가 있어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호근동 주민들이 방목했던 곳이었다. 윗세오름 방목지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제주군 지역 우마들과 테우리들의 만남 장소였다(그림 2-13).

그림 2-13. 1988년 윗세오름 일대 마지막 말 방목(신용만 제공)

상산방목의 실례로, 서귀포시 하원마을에서는 집에서 기르던 우마들이나 공동목장의 소들을 대상으로 상산방목이 이루어졌다. 마을공동목장의 소들은 더워지면 상산(백록담 아래 윗세오름, 만세동산 일대)에 올라가 풀을 먹었다. 4~5월에 상산으로 올린 다음, 대체로 10월까지 방목했으나 농사 사정에 따라 8월에 소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여름철 비바람이 불 때 소들은 구상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비바람을 피했다. 상산방목이 이루어질 때 테우리들은 서로 인정이 있어서 다른 마을 소를 보면 인편을 통해 알려줬다.

하원마을 주민들의 주된 상산 방목지는 백록담~윗세오름~만세동산~볼레오름 일대였다. 그런데 이곳은 당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경계선이 지나는 곳이어서 남북군 소와 말들이 만남의 장소가 되어 방목지 경계를 둘러싼 남북군 마을간 분쟁이 발생했다. 실례로 별다른 방목지 구분이 없었을 당시에는 남군 하원마을과 북군 광령마을 우마들이 서로 편한 곳에서 풀을 먹다 보니 방목지가 중복되어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군 경계를 대충 의식하며 쌓은 돌담이 현재 만세동산과 볼레오름 사이에 남아 있다. 이 돌담을 하원마을 목축민들은 '곰잣'이라고 부른다. <그림 2-14>는 2017년 4월 30일 하원마을 상산방목 옛길 탐험 행사에 참여하여 촬영한 '곰잣'사진이다. 이 돌담은 해발 1200~1300m에 위치한다. 해발 1500~1600m에 위치한 만세동산[만수동산, 망동산]에도 돌담이 현존한다(그림 2-15). 이곳 역시 과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소들의 상산방목 공동방목지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해 방목지 구분용 경계돌담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4. 볼레오름과 이스렁 오름 사이에 위치한 경계돌담, '곰잣'(2017.4.30. 촬영)

그림 2-15. 만세동산 상산방목지 구분용 돌담

한라산지 잣성의 축조양상

① 역사사료에 등장하는 잣성

잣성의 축조시는 한라산지에 국마장이 설치되기 시작한 세종대 즉, 15세기 초반부터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마장은 그동안 제주도 전역에서 자유방목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우마를 특정지역으로 들여보내 사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득종의 건의가 세종에 의해 채택된 결과 비로소 한라산지에 국마장이 설치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잣성 축조라는 대토목 공사가 제주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역사(役事)는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루어졌으며 길이 면에서 볼 때 조선 시대 지방단위에서 이루어진 각종 공사 중에서는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축조되었던 잣성은 무엇일까?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국마장을 설치함에 있어 농민들의 농경지(또는 거주지)와 목장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잣성이 가장 먼저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5세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하잣성 길이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당시'한라산목장(漢拏山牧場)'[17] 목장 주위가 약 165리 정도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하잣성 역시 적어도 160여 리 이상 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라산지 잣성 축조에는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김영수, 송정규 그리고 정부 고위관료였던 서명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잣성 축조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들이 참조된다.

《承政院日記》(1623~1910) : 서명선이 말하기를, 당초 제주목사 김영수(金永綏)는 정부에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축장했다. 산마들은 산판(山坂)을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본성인데 축장해버릴 경우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구마(驅馬)의 폐단이 있을지

17) 《世宗實錄》 권 47, 세종 12년(1430년) 2월 庚辰 :"改築濟州漢拏山牧場周圍一百六十五里".

라도 마땅히 담장을 헐어야 한다.[18] 또 우진(羽晉)이 말하기를, 침장횡축(針墻橫築)의 바깥쪽에는 외장구지(外墻舊址)가 있어 전 목사 이양정(李養鼎)이 횡축을 헐어 새롭게 구장(舊墻)을 보수했다.[19] 산마 3장(침장, 상장, 녹산장) 내에는 간장(間墻)이 있어 헐라고 명령했으나 전목사 이문혁(李文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20]

<그림 2-16>은 〈山馬牧場新定節目〉(1794)에 수록된 지도로, 여기서 횡축은 가로질러 쌓은 돌담으로, 간장(間墻)에 해당한다. 이것은 구경당금(舊耕當禁: 과거에는 경작했으나 현재는 당연히 금하는 땅)과 신정허경(新政許耕: 새로이 경작을 허락한 땅) 땅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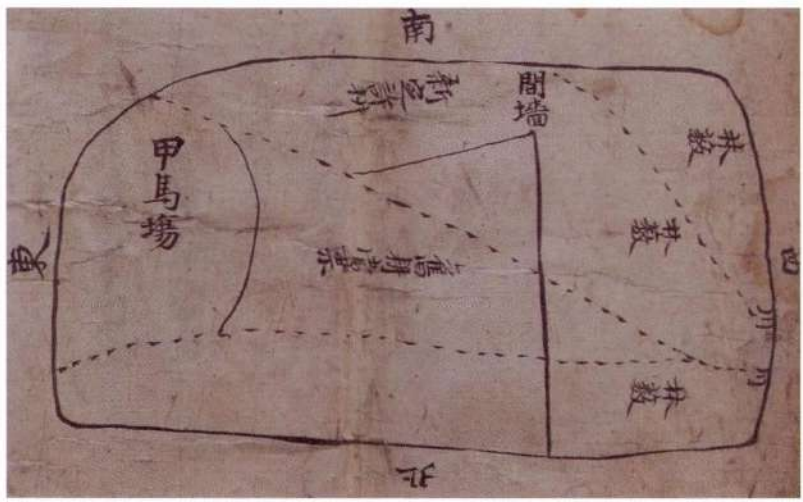


그림 2-16. 〈山馬牧場新定節目〉(1794)에 나타난 녹산장과 갑마장 그리고 간장

18) 《承政院日記》 正祖 6년 4월5일(壬寅)(乾隆47년) : 命善曰...當初金永綬之不本寺, 恣意築墻者, 誠極怪駭矣...山馬之種子將絶矣...馬之上下山坂, 自是性也, 而今若築墻拘牧, 則必失其性, 驅馬之弊, 雖或有之, 所築之墻, 必當毁之矣

19) 《承政院日記》 正祖 6년 4월 5일(壬寅)(乾隆47년): 羽晉曰... 針墻橫築之外, 又有 外墻舊址, 而前牧使李養鼎, 纔毁橫築, 新修舊墻.

20) 《承政院日記》 正祖 8년 8월 10일(癸巳)(乾隆 49년): 濟州牧使嚴思晩狀啓,...因御史朴天衡狀請, 山馬三場之內間墻, 有竝爲毁撤之命, 而前牧使李文爀, 未及擧行矣.

〈濟州邑誌〉(1780-1789) : 목장 일소장(一所場)과 이소장(二所場) 간에는 본래 경계를 나누는 간장(間場)이 없어서 양장의 말들이 서로 왕래하여 많이 분실되었으므로 지난 경자년 봄에 목사 김영수가 새로 936보의 간장을 쌓아 그 폐단을 막았으며 일의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21] 3소장(三所場)에는 본래 횡장(橫墻)이 없어서 곧바로 한라산의 정상에 통하였으므로 말이 많이 분실되자 지난 경자년 봄에 목사 김영수가 비로소 1,110보의 횡장을 쌓아 그 폐단을 막았으며 일의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 오소장(五所場)에는 본래 횡장이 없어서 곧바로 한라산의 정상에 통하였으므로 말이 많이 분실되자 지난 경자년 봄에 목사 김영수가 비로소 1,530보의 횡장을 쌓아 그 폐단을 막았으며 일의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

《濟州啓錄》(1846~1884) : 국축(國畜)이 많이 모자라 매우 황송하온 바 금년은 비록 (말을) 점검하고 낙인하는 해는 아니나 다소의 간악한 상황이 있어 하나를 미루어 백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나머지 방목하는 마축은 불가피하게 지금 그 수효를 대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7월부터 시작하여 해당 감목처(監牧處)에서 상잣과 하잣은 허물어지는 대로 수축한다.[22]

잣성의 축조과정과 관련하여 사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하잣성은 세종대인 1400년대 초부터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반면 상잣성은 조선 후기인 1780년대에 등장했다. 이를 통해 1700년대 중반까지 제주도 국마장에는 해안지역과 중산간 지대 경계부근에 하잣성이 축성되어 그 기능이 유지되다가 17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상잣성이 등장함으로써 하잣성과 상잣성이 목장 상하 한계선으로 이용되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상잣성은 3소장과 5소장에서 먼저

21) 《濟州邑誌》(1785-1789) <牧場> 條

22) 西歸浦市, 《濟州啓錄》, 서귀포시고서총람 번역 1권, 1995, 62쪽 : "國畜之如是多縮誠極惶悚是白乎所 今年雖非點烙之次 多少奸狀推一如百其餘 留放馬畜 不可不及 今照數故 始自七月該監牧處上下墻垣 隨毁修築"

그림 2-17. 5소장 장전리 상잣성 모습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상잣성 축성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17).

둘째, 간장은 십소장간 그리고 산마장 지역인 침장, 상장, 녹산장에도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23](그림 2-18) 셋째, 잣성 축조와 보수 및 허무는 토목공사에는 백성들이 요역 형태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잣성은 조선 초에는 150여 리 정도에 불과했으나《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179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축성 길이가 597리로 증가했다.[24] 이것은 국마장 면적의 확대 또는 잣성 유지, 보수 과정에서 상·하잣성 등이 신축, 개축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23)《山馬牧場新定節目》(1794),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

24)《濟州大靜旌義邑誌》正祖17년(1793), 南都泳,《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박물관, 1996, 402쪽 : 이 자료에 의하면, 조선 초 중산간 목장인 十所場 설치 당시는 周圍가 165리였으나 조선 후기인 1793년경에는 주위가 597리로 확대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만일 목장의 상·하 한계선에 잣성이 축장되었다면, 목장의 주위와 비슷한 규모로 잣성 역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약 600리 정도의 잣성이 제주도의 목장지역에 형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18. 가시리 갑마장과 10소장 경계돌담인 간장

그림 2-19. 남원읍 수망리 중잣성

한편, 중잣성은 하잣성과 상잣성 사이에 쌓은 돌담이다. 남원읍 수망리 물명아리오름 근처에는 중잣성이 잘 남아 있다(그림 2-19). 그러나 상·하잣성처럼 제주도 전역에 걸쳐 축조된 것이 아니다. 실례로, 1소장(성읍리 지역)에 대한 답사 결과 이곳에는 중잣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중잣성 축장시기와 규모는 관련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 단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② 잣성의 축조방식

현재 잣성은 제주도 중산간과 산간지대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하잣성은 과거 목축지로 이용되었던 중산간 지대가 농경지화되고 도로 건설이 늘어나면서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밀림지대에 있어 쉽게 노출되지 않은 상잣성은 다행히도 그 형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1:5,000 지형도에 나타난 잣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상잣성이 위치한 평균 해발고도는 450m, 중잣성은 350m 그리고 하잣성은 220m로, 지역차가 있으나 대략 100m 높이 간격으로 잣성이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라산지 남부 지역 잣성들은 산북 지역에 비해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산남지역(특히 9소장 지역)에는 경사가 급한 사면이 발달한 결과(즉 남사면은 북사면에 비해 한라산 정상부와 해안지역 간의 거리가 짧다), 하잣성이 해안과 가까운 지역까지 내려와 배치된 결과로 보인다. 상잣성의 총길이는 약 3,200m, 중잣성은 약 13,400m, 하잣성은 약 43,000m 정도이다. 1:5,000 지형도에 표시된 이들 잣성의 총길이는 약 60km 정도이다. 섬이라는 환경을 반영하여 등고선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하잣성은 남동북부 중산간 지역에 가장 많이 남아있다. 반면에 서부 중산간의 하잣성은 농경지와 도로 건설 등에 영향을 받아 훼손이 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잣성은 지방관아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을 동원해 축조되었다.[25] 잣성은 이것이 축조될 위치가 기상변화가 많은 중산간 지대임을 감안할 때 쉽게 부패되는 목재 대신에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며 내구성 또한 강한 석재(현무암)가 잣성 축조 재료로 자연스럽게 선택되었다.[26]

---

25)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문헌사료가 아직 발견되지 못해 잣성 축조를 둘러싼 지방관아의 역할과 지역주민 동원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6) 제주도의 목장지대에는 석재를 이용하여 목장 경계선을 구축한 반면 한반도 지역의 경우는 석재보다 목재를 이용하여 목장 주위에 목책(木柵)을 둘렀다. 조선 시대 한반도 지역에 설치된 목장의 목책에 대해서는 許積이 숙종4년에 제작한 《牧場地圖》가 참고된다.

잣성 축조에 필요한 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했을까? 하잣성은 겹담으로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여 길게 쌓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즉, 하나의 마을에서 공급되는 노동력만으로는 모두 쌓을 수 없으며, 인접 마을과 공동작업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하잣성이 축조될 인근 여러 마을에서 노동력을 공급받았으며, 잣성 축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각 마을에게 일정 축조범위를 할당했다. 이러한 실례는 정의현(旌義縣) 법환리와 호근리 간에 이루어진 다음의 축장 장면으로 알 수 있다.

> 옛날에는 … 목장의 잣(城 혹은 담)을 할당하여 쌓았다. 호근리 담당 구간은 '각시바위' 남쪽에서 시작하여 고근산 동편에서 끝나고, 법환리 담당 구간은 고근산 북쪽에서 시작하여 '빌레냇도(頻來川)'까지 끝나게 되었다. 그런데 법환리 사람들은 모의하기를 자기들의 담당 구역 안에는 성 쌓을 돌이 없으니 일하기가 곤란할 것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둠을 틈타서 돌이 많이 쌓인 곳을 골라 경계를 넘어 못 밖으로 쌓아 버렸다.[27]

한편, 하잣성과 상잣성은 형태면에서 일반적으로 겹담(접담, 두 줄로 만듬) 구조로 만들어졌다. 하잣성은 예외 없이 겹담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하잣성을 겹담 구조로 만든 이유는 하잣성이 만들어질 위치가 농경지와 인접한 방목지였기 때문에 우마들이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다 견고한 겹담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겹담 구조로 하잣성을 축조하는 데에는 많은 석재와 인력동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잣성이 촌락과 비교적 근접한 위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력동원이 용이하였으므로 가능했으리라고 판단된다.

---

27) 許垠, 《好近錄》, 吳成贊 外, 《好近. 西好里》, 도서출판 반석, 1986, 60~61쪽.

하잣성 형태를 보면, 높이는 대체로 110~170㎝ 내외, 넓이는 60~120㎝ 정도로, 축성 당시는 현재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잣성의 전형적인 형태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공동목장 하잣성,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번널오름 갑마장 하잣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상잣성 역시 겹담 구조를 보이나 외담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시간변화에 따라 상잣성 형태가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처음 축장시부터 외담 구조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잣성 위치가 해발고도가 높은 삼림지대여서 접근성이 낮고, 둘째, 촌락지역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인력동원이 어려워 외담 구조가 선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경우, 겹담 구조에 비해 견고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외담 구조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큰 암석을 이용해 쌓았다. 중잣성은 해발 350~400m 일대에 형성된 것으로, 하잣성이나 상잣성에 비해 축조시기가 늦으며, 겹담 또는 외담구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잣성의 문화재[향토유산] 지정 가치

한라산지에 오롯이 남아 있는 조선 시대 잣성은 말 목장의 산물이다. 조선 시대 제주도에는 고려말 탐라목장을 계승한 국마장[십소장]과 산마장 그리고 우도장이라는 말 목장이 있었다. 조선 시대에 적어도 말에 관한 한 제주도 목장을 능가할 만한 지역은 없었으며,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을 정도로, 제주도는 그야말로 온 도민들이 말을 기르고, 특히 명마를 사육하는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말 목장의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선 시대 제주도 잣성의 설치 배경, 형성 시기, 분포 실태, 축조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잣성은 조선 초기부터 한라산지에 설치된 국마장의 상하(남북)와 좌우(동서) 경계에 쌓은 돌담이다는 점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잣성은 조선 시대 제주도 목장사와 목축문화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잔존유적에 해당 된다.

둘째, 잣성은 크게 하잣성, 상잣성, 중잣성, 간장으로 구분된다. 이중 하잣성은 해안지대 농경지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의 경계 부근에 그리고 상잣성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 산간지대 삼림지와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중잣성은 상잣성과 하잣성 사이의 공간을 이등분하는 잣성이다. 이러한 잣성들은 국마장 상하한선을 나타내는 경계선인 반면 간장(間墻)은 각 목장간 경계선에 해당된다.

셋째, 잣성 축조 동기를 보면, 하잣성은 중산간에 방목 중인 우마들이 해안지대 농경지에 들어가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축장되었다. 상잣성은 우마들이 한라산 삼림지역으로 들어가 동사하거나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넷째, 잣성 축조 시기를 보면 15세기 초 국마장이 설치되면서 하한선으로 하잣성이 축조되기 시작한 이후 18세기 중엽에 상잣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잣성 축조 시기는 현재 사료 부족으로 인해 단정할 수 없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구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잣성 축조와 보수를 위해 지방관아(해당 감목처)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에게 역을 부과하여 동원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제주도 잣성은 하루속히 문화재 또는 민속자료, 기념물 등으로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은 잣성이 첫째, 중산간 지대에서 행해진 목축이라는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조형물이며, 둘째, 조선 시대 목마장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유물 경관이라는 점에서, 셋째, 잣성이 비록 성에 속한다고는 하나 방어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목장을 구분하는 경계용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넷째, 선형(線形) 유물로, 제주도(한국 전체)에 남아 있는 역사유물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길며, 다섯째, 단순한 돌무지가 아니라 제주도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역사적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목축과 관련된 잣성이 제주도에만 분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5. 한라산의 마애명

금석문(金石文)은 쇠붙이에 글씨나 그림을 새긴 금문(金文)과 돌이나 암석(巖石)에 새긴 석문(石文)을 일컫는데, 금석에 새긴 문자나 도형은 쉽게 마모되지 않고 오랜 세월을 견뎌내기 때문에 종이나 죽백 등에 기록된 문헌보다 내구성이 높고 특정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현장에 새겨진 현장성으로 인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고증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그것을 새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한 서체와 조형성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술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금석문은 인류가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문자화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서예, 역사, 문화, 미술사를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고 있다. 그중 마애석각문(磨崖石刻文)이라고도 불리는 마애명(磨崖銘)은 바위나 벼랑에 새겨진 명문(銘文)으로써 제주에서도 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내륙문화(內陸文化)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제주지역의 향토사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고도가 높아 은하수를 끌어 당길만하다는 뜻을 가진 한라산은 정상부가 평평하여 두무악(頭無岳), 꼭대기가 둥글어서 원산(圓山)이라고도 알려졌으며, 정상에 못이 있어서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라산은 인간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져 왔다.

조선 시대의 김치(1609), 이해조(1707), 조관빈(1732), 최익현(1875)과 김희정(1895)이 한라산을 오른 후에 남긴 기록에는 백록담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잘 담겨있다. 한라산을 오른 유산자들은 백록담의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신선과 백록을 신비로움의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르면 백록담은 하얀 사슴들이 물을 먹는 곳이요, 맑고 깨끗하여 티끌이 전혀 없어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봉우리들이 백록담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어서 천부의 성곽으로도 여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산 15-1번지 일원에 위치한 백록담은 2012년 11월 23일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면적은 210,230㎡에 달한다.

백록담 내 마애명은 총 30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세분하면 그 지역을 방문한 인물의 이름자를 새겨놓은 제명(題名)이 1521년 김정(金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28건에 달하며, 1767년 임관주(任觀周)의 시 등 2건의 제영도 발견되었다. 지역별로는 백록담 동벽에서 22건, 백록담 북벽과 서측에서 8건을 발견했다.

마애명은 자연 암석에 모두 한자로 음각되었으며, 대부분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었다. 한문 번역 및 판독작업을 2013년도에 병행하였으며, 2014년《한라산의 마애명》(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책자로 발간하였다.

한자 원문은 우상에서 우하, 좌상에서 좌하 순으로, 우측의 인물을 선두로 좌측의 인물들을 동행인으로 판독하였다. 한자 원문의 표시는 새겨진 각자대로 세로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독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어법에 맞게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제시하였다.

백록담 동벽과 분화구내 마애명

한라산 백록담 내에서는 마애명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새겨져 있는 곳이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백록담 동벽의 단단한 바위 위에 올라서면 멀리 태평양을 내려다보며 호연지기를 누렸을 옛 선인들의 기개가 느껴진다.

백록담 동벽에서는 총 22건을 발견했는데, 1745년 윤식(尹植) 일행부터 1868년에 제주에 부임한 제주목사 조희순(趙羲純)과 행적을 알 수 없는 인물 4명까지 포함하여 약 67명의 이름자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는 동벽에서 분화구 내로 굴러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정철(趙貞喆)의 마애명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대별로는 18세기 마애명 13건, 19세기 마애명 5건과 행적 미상 4건을 발견하였

다. 한자 원문 및 한라산을 오른 시기는 추정하여 다음에 제시하였고 <부록 1>에서 참고할 수 있다.[28]

① 윤식 일행(1745년)

尹植 尹權 權德行 成永夏 朴璥 孟仁行 洪重健

탁본 37cm x 47cm (글자 10cm x 10cm, 7cm x 7cm)

尹命勳 尹基 乙丑 五月 尹命兼

탁본 39cm x 24cm (글자 8cm x 8cm)

28) 백록담 내에서 발견한 마애명에 대한 인물의 행적 및 인물사적 특징에 대해서는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에서 발행한 《한라산의 마애명》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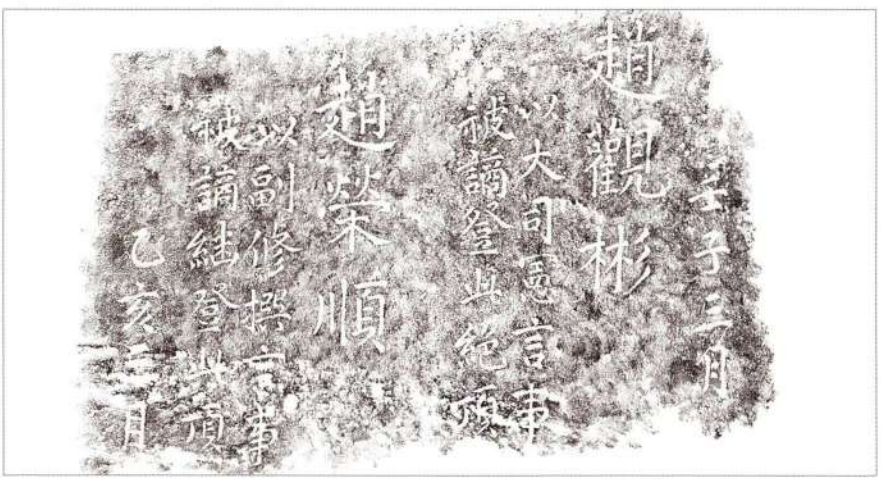
윤식 일행과 윤명훈 일행이 제명된 게 근처이기는 한데 동행인임을 확증할 수는 없지만 윤식목사의 도임시기가 1744년에서 1745년, 즉 을축(乙丑)년이므로 제명에는 윤명훈일행의 이름 가운데에 을축 5월이라 돼있어서 윤식목사 일행과 동행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윤식 목사와 동행한 윤군(尹權), 권덕행(權德行), 성영하(成永夏), 박휴(朴璜), 맹인행(孟仁行), 홍준건(洪重健)막료들로 보이는데 그 중 성영하는 이후 무관으로 등용되어 경덕궁 호위장이 된 인물로 보인다. 맹인행(孟仁行)과 홍준건(洪重健)은 윤식 목사일행과는 글씨체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동행한 인물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② 이경로(1754년)

李景老 탁본 13cm x 43cm (글자 11cm x 15cm)

승정원일기를 보면 같은 이름의 유배인이 보인다. 1754년 2월 5일 기록에는 이경로(李景老)를 제주목 대정현에 기한을 정함 없이 정배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③ 조관빈과 조영순(1755년)



壬子三月 趙觀彬 以大司憲言事 被謫登此絶頂
趙榮順 以副修撰言事 被謫繼登此頂 乙亥三月

조관빈 탁본 44cm x 69cm (글자 14cm x 14cm, 8cm x 8cm)
조영순 탁본 44cm x 64cm (글자 14cm x 14cm, 8cm x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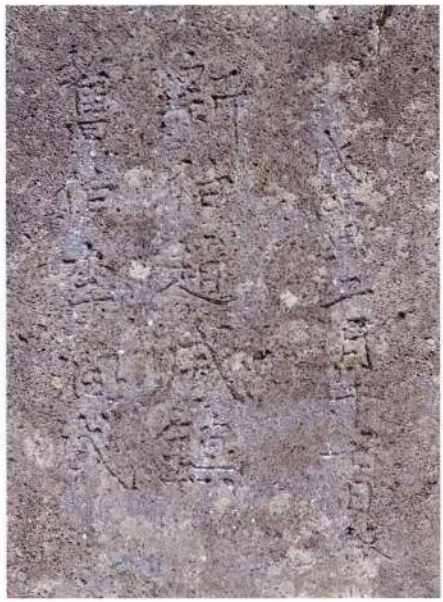
<원문번역>

임자년 3월에 조관빈(趙觀彬)이 대사간(大司憲)으로서 언사(言事)로 인해 유배되어 이 곳 정상에 올랐었는데, 조영순(趙榮順)이 부수찬(副修撰)으로서 언사(言事)로 인해 유배되어 이어 이 곳 정상에 오르니 을해년 삼월이다(乙亥三月).

<해설>

조관빈은 노론 4대신 조태채의 아들이다. 조영순은 조관빈의 조카가 된다. 양주 조씨 집안은 노론의 실세가문이었으므로 정치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후일 조영순의 아들인 조정철까지 제주로 유배되면서 제주와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는 집안이다. 조선 후기 정치적 난맥상이 이 집안의 가계도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이다. 유배인으로서 조관빈이 정상에 오른것이 임자 3월임을 강조하고, 이어 조카 조영순이 정상에 오른것인데 을해 3월이라고 하여 같은 3월임을 강조하면서 조영순이 문장 전체를 써서 새긴것으로 추정된다.

④ 목사 조위진 일행(1758년)



戊寅 二月 十七日 登此 新伯 趙威鎭 舊伯 李潤成

탁본 34cm x 52cm (글자 8cm x 8cm)

<해설>

1758년 무인(戊寅)년 신임 목사[新伯]와 임지를 떠나는 목사[舊伯]가 나란히 백록담에 오른 것을 기념하여 새겨놓은 특이한 방식이다. 이전 목사인 홍태두도 산에 올랐으므로 전 후 두목사 재임때 판관인 안세윤이 신구 목사와 더불어서 산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 2월 17일(戊寅 二月 十七日)이라고 구체적 날짜까지 밝힌 점이 특이하다.

⑤ 임관주(1767년)

茫茫滄海濶 一拳漢拏浮
白鹿仙人待 今登上上頭 丁亥 秋 任觀周

탁본 56cm x 58cm (글자 7cm x 7cm)

<인물>

임관주(任觀周, 1732년~?)는 본관은 풍천이고 자는 숙빈(叔賓)이다. 1756년(영조 32) 정시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767년(영조 43) 정언 재임 중 언론의 중요성, 「어제유곤록(御製裕昆錄)」의 불합리한 서술, 재상의 잦은 교체, 제술(製述) 시험 때 성균관 유생을 모독한 도승지 송형중(宋瑩中)의 파직, 서울과 지방 관원들의 비리 적발, 무장들의 권위 존중 등 10여 가지에 달하는 조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로 인하여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제주도에서 창천촌에 유배지를 정하고 독서에 열중하였다. 유배된 지 두 달이 지나자 대신들이 바른 말을 하는 관리를 섬에 계속 둘 수 없다 하여 특별히 석방되었다. 1782년(정조 6) 시폐(時弊)를 상소하자 대사헌 김이소(金履素)의 탄핵을 받아 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1784년(정조 8)에 남해현에서 풀려났다. 1801년(순조 1) 복관(復官)되었다.

망망한 창해 드넓은데	茫茫滄海濶
한라 봉우리 떠 있구나	一峯漢拏浮
백록을 탄 신선 기다리는데	白鹿仙人待
난 오늘에야 정상에 올랐네	今登上上頭

⑥ 정이환(1767년)

東西南北海 撑挿一峯浮 獨立乾坤大 居然最上頭
鄭履煥 身之 丁亥四月日 題白鹿頂

탁본 45cm x 85cm (글자 15cm x 15cm, 7cm x 7cm, 5cm x 5cm)

<해설>

정이환은 1766년에 제주도에 정배되었다가 유재가 풀린 이듬해인 1767년(丁亥) 4월에 한라산에 올라 그 기쁨을 시로 지어 제영하였다.

그가 제영해놓은 시를 해석하여 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죄 바다인데	東西南北海
하늘 떠 받친 봉우리 하나 꽂혀서 떠 있네	撑插一峯浮
홀로 올라서니 하늘과 땅 드넓은데	獨立乾坤大
문득 최정상이구나.	居然最上頭

⑦ 신호인(17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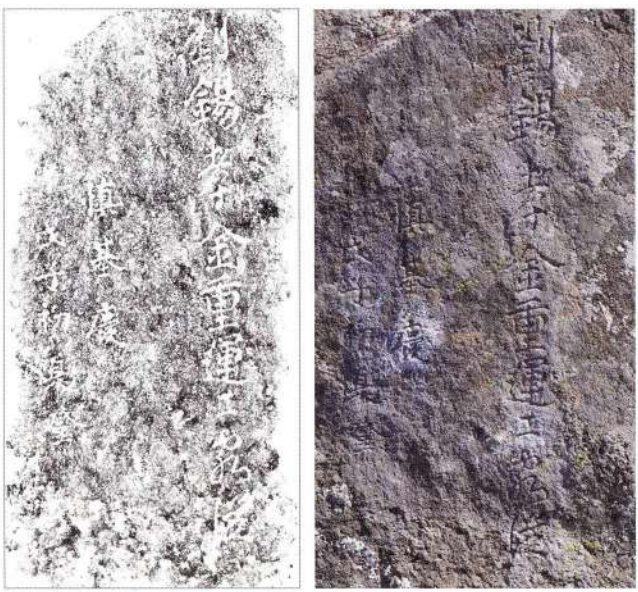
申豪仁 丁亥四 탁본 6cm x 17cm (글자 6cm x 6cm)

<인물>

제주 유생들의 시취 내용과 시문 등이 수록되어 있는「탐라빈흥록(耽羅賓興錄)」무과 입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승정원일기 1789년(정조 13) 5월 4일(庚申)의 기록을 보면 병조에서 신호인(申豪仁)을 명월만호로 삼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⑧ 남익상 일행(1768년)

南益祥 南峴 戊子四月 탁본 26cm x 30cm (글자 7cm x 7cm)



劉錫孝 金重運 二客從
愼基慶 戊子初夏登 탁본 26cm x 30cm (글자 7cm x 7cm)

<해설>

목사인 남익상과 일가붙이로 보이는 남현(南峴)이라는 인물의 제명이 있는데, 그 옆으로 제주판관인 신기경(愼基慶)의 제명이 보인다. 신기경(1720~1797)은 조선 영조 때의 제주 판관이었는데 1766년(영조 42) 8월 제주 판관으로 도임하고 1769년 2월에 떠난 인물이다. 목사 남익상과 판관 신기경은 동시기에 제주에 재임하였지만 남익상과 남현은 무자(戊子)년 4월 이라고 기록했고, 신기경은 무자년 초하(初夏)로 되어 있어 시기적으로는 같지만 다른날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석효(劉錫孝)와 김중은(金重運) 두 사람도 이 때 손님의 자격으로 동행한 듯보인다[二客從].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말 그대로 육지부에서 개인적으로 찾아온 손님일 수도 있고, 육지부의 경우처럼 비장이나 막빈 등을 객(客)이라고도 하는 경우로 보아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⑨ 목사 이양정 일행(1781년)

李養鼎 李亨默 羅東善

탁본 48cm x 53cm (글자 15cm x15cm)

<인물>

이양정(李養鼎, 1739~?)은 1781년 7월 목사 김시구의 후임으로 도임하고 1782년 1월에 승지로 제수되어 떠났다. 재임 중 제주순무안사시제어사 박천형이 내도하여 과장(科場)을 개설하여 3명을 시취하고 열녀에게 정표를 내렸다.

<해설>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서 별다른 업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명은 용연과 백록담, 정방폭포, 산방굴사 네 군데에서 보인다. 이형묵(李亨默)은 이 시기에 제주판관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나동선(羅東善)이 동행인으로 보인다.

⑩ 양세술(1771년)

梁世述 辛卯 탁본 20cm x 20cm (글자 6cm x 6cm)

⑪ 황덕빈 일행(1771년)

黃德彬 沈恒之 梁塤 탁본 30cm x 30cm (글자 7cm x 7cm)

⑫ 엄제 일행(1783년)

嚴璹 任斗材 嚴思晩 李命啓 韓濟億 南履觀 尹濟商 丁載游
癸卯 九月 日 탁본 95cm x 44cm (글자 8cm x 8cm)

嚴墻 任百敏 李遠啓 탁본 95cm x 44cm (글자 8cm x 8cm)

⑬ 심낙수와 남수(1794년)

恩坡退士 沈樂洙 以巡撫御史來過 甲寅春

탁본 34cm x 77cm (글자 10cm x 10cm)

南涑 탁본 10cm x 27cm (글자 10cm x 10cm)

⑭ 목사 조정(철)(1811년)[29]

趙貞□ 丁酉以前□□ 被謫庚戌□□
趙貞□ 辛未以防□使□登絶□

탁본 52cm x 75cm (글자 19cm x 19cm, 12cm x 12cm, 9cm x 9cm, 7cm x 7cm)

<해설>

정유년(1777년)에 전별검(前別檢)으로 파적되어 경술년(1790)에 이곳을 올랐고[登此] 신미년(1811년)에 방어사로 부임해 와서 이어서[繼]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조정철은 조선의 유배인 중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30년이라는 기나긴 제주 유배생활을 끝낸 뒤, 1811년 환갑의 나이에 다시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제주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홍랑(洪娘)과의 애틋한 사랑은 유명한 일화이고, 유배 중인 몸으로 부종인 같은 제주사람과 사제의 인연을 맺고 가르치고 돌보아 준 일과 그와 홍랑 사이에서 얻은 손녀의 사위들에도 각별한 애정을 쏟은 일, 무엇보다 그가 제주도민들을 위해 선정을 베푼 일은 제주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할 만한 인물이다.

29) 이 마애명은 백록담 동쪽 벽에 새겨져 있던 것이 분화구 내로 굴러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바위 아랫부분이 파손되어서 각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조정철(趙貞喆)의 마애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⑮ 김종보 일행(1811년)

(金載兪 丁八日) 金鍾輔 夫士簡 李膺良 洪範植 張文明 辛未

탁본 75cm x 23cm (글자 6cm x 6cm, 4cm x 4cm)

⑯ 목사 박장복(1836년)

牧使 朴長復 乙未 八月 十一日

탁본 15cm x 42cm (글자 6cm x 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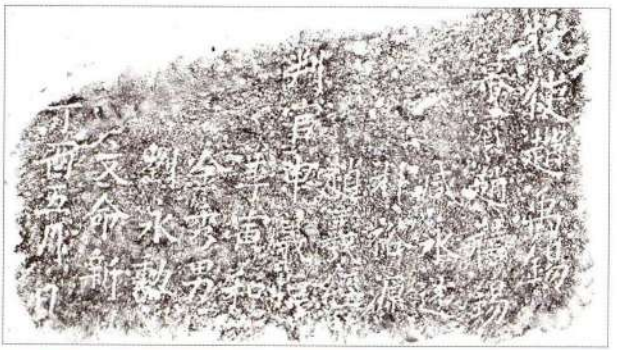
<인물>

박장복(朴長復, 1778~?)은 조선 순조 때의 제주 목사이다. 자는 내경(來卿)이고,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1834년(순조 34) 7월 제주에 도임하고 1836년(乙未年) 3월에 일처리가 부적절하였다 하여 파직 되어 떠났다. 1835년(헌종 1)에 향사당(鄕社堂)을 중수하였고 대정 향교를 중수하였다.

<해설>

박장복은 승지로부터 시작해서 대사간까지 올랐던 인물인데,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도정을 처리하던 과정에서 제주목마패 위조범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파직되었다는 승정원 기록이 보인다.

⑰ 목사 조우석 일행(1837년)



牧使 趙禹錫 幕賓 趙禧錫 咸永述 朴裕源 趙羲經
判官 申義恒 李寅和 金秀男 劉永勳 文命新
丁酉 五月 日 탁본 108cm x 62cm (글자 10cm x 10cm)

<인물>

조우석(趙禹錫, 생몰년 미상)은 헌종 때 제주목사이며 1836년 3월 박장복의 후임으로 부임하고, 1837년 11월에 흑우(黑牛)를 진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파직되어 떠났다.

⑱ 목사 조희순(1868~1872년 부임)[30]

趙羲純 탁본 18cm x 27cm (글자 8cm x 8cm)

⑲ 양당(행적 미상)

梁塘 탁본 6cm x 14cm (글자 6cm x 6cm)

---

30) 조희순(趙羲純, 생몰년 미상)은 조선 말기의 무신으로, 1872년 5월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났다. 조희순 목사의 마애명은 현재 방선문에도 남아 있다.

⑳ 김회 일행(행적 미상)

金會 朴萬淳 洪大成

탁본 37cm x 32cm (글자 12cm, 10cm x 10cm, 8cm x 8cm)

㉑ 홍구서(행적 미상)

洪九瑞

탁본 18cm x 36cm
(글자 8cm x 8cm)

백록담 북벽내 마애명

백록담의 북벽은 멀리 조선 시대 임금이 계신 한양과 제주목 관아를 마주 대하는 곳으로서, 한라산 백록담에 올랐을 때 가장 신성하고 임금을 향한 존경의 표시를 취할 수 있는 곳이다. 실제로 조선 시대 한라산 유산기 등 등산 기록을 살펴보면 백록담 북벽 정상에서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예를 표하는 모습의 글이 많이 나타난다. 마치 용의 머리 형상을 한 백록담 북벽의 병풍바위는 옛 지도상에서 구봉암(九峯岩)이라고도 불리며 그 위엄을 자랑하는 곳이다.

백록담 북벽에서는 총 8건을 발견했는데, 1521년 김정(金淨)부터 1966년 제주도지사 정우식 일행과 행적을 알 수 없는 인물 14명까지 포함해 약 27명의 이름자가 새겨져 있다.

시대별로는 16세기 마애명 1건, 17세기 1건, 19세기 1건, 해방 이후 3건과 행적 미상 2건을 발견했다. 원문 및 한라산을 오른 시기는 추정하여 제시하였고, <부록 2>에서 참고할 수 있다.

① 김정(1521년)

金淨
탁본 14cm x 42cm
(글자 14cm x 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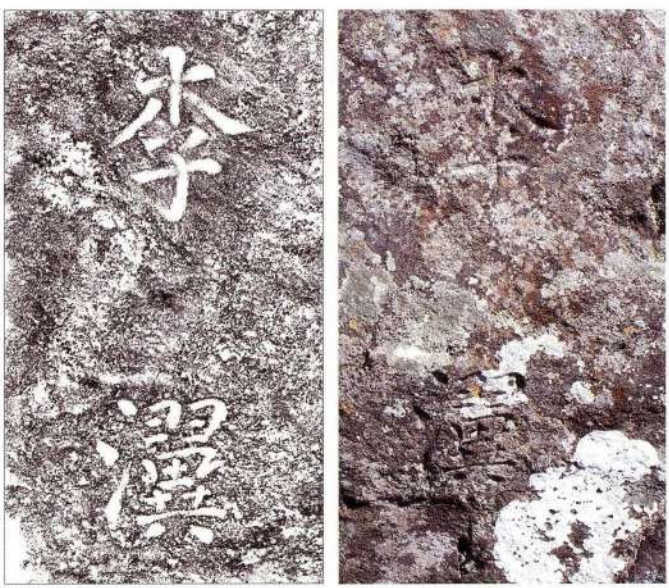
<인물>

김정(金淨, 1486~1521)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다. 자는 원충(元沖), 호는 충암(沖菴) 기묘사화로 제주로 유배되어 성안 가락천 동북쪽 금강사에서 지냈다. 이때 제주의 이속적(異俗的)인 문화를 소개하는「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지었고, 1521년 10월 사사(賜死)되었다.

<해설>

「제주풍토록」을 보면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어서 한라산의 웅대한 자연경관에서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아쉬워한다. 김정이 한라산에 과연 올랐는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시문과 인용문 등에서 그에대한 의문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② 이익(1619년)



李瀷
탁본 12cm x 42cm
(글자 12cm x 12cm)

<인물>

이익(李瀷, 1579~1624)은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이며 자는 형여(泂如), 호는 옥포(玉浦) 또는 간옹(艮翁)이다. 1618년(광해군 10)에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비를 반대하다가 제주로 유배되어 전적 고홍진(高弘進) 참봉 김진용(金晉鎔) 등의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해배되자 인목대비의 모친인 부부인 노씨와 더불어 상경하였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고향에 돌아가 그 해에 죽었다. 이익의 아들 이인제(李仁濟)는 어머니(헌마공신 김만일의 딸)와 함께 남아 제주 경주 이씨 중 한 계파의 입도조(入島祖)가 되었다.

③ 최익현(1875년)

崔益鉉

탁본 10cm x 40cm
(글자 10cm x 10cm)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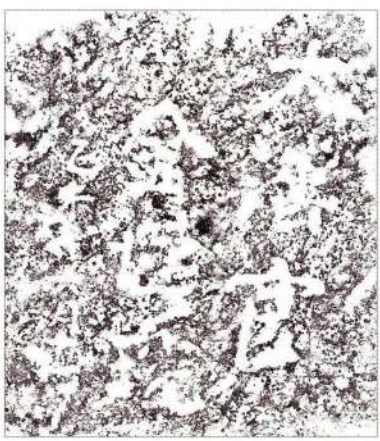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조선 고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위정척사파의 거두이다.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庵)이다. 1873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자 동직을 사퇴하는 상소를 하면서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였으며 그 해 11월에 호조참판을 사직하는 상소로 삼사의 탄핵을 받아 의금부에 수감되고 관직이 삭탈되었

다. 그리고 제주도에 유배되어서 지방유림의 사상과 학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광무 9년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켜 항쟁하다가 일본군에 잡혀 대마도 유배 중 단식사했다.

<해설>

최익현은 1873년 제주도 유배에서 풀리자 평소 원했던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한다. 제주 유생 이기온과 십 여 명과 동반하여 남문을 나와 방선문을 거쳐 한라산에 오른다. 이 일정을 「유한라산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최익현의 제명은 방선문에 이기온의 이름과 함께 제명되어 있으며 백록담 북쪽 안쪽 사면에도 그의 이름이 제명되어 있다. 그의 제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찾지를 못하고 있던 중, 이번 조사에 의해 새로이 발견되었다.

④ 김세완(195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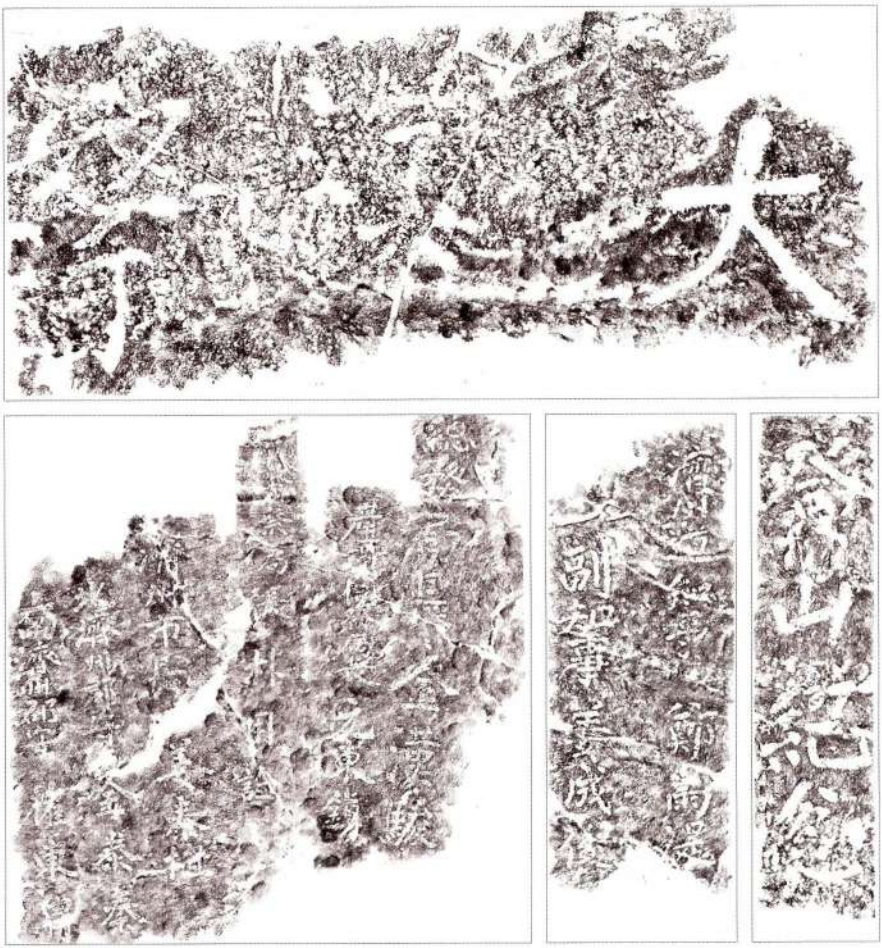
大法官 金世玩
乙未 六月 十一

탁본 37cm x 44cm (글자 13cm x 13cm, 5cm x 5cm)

⑤ 민복기(1955년)

漢拏靈峯探勝
檀紀 四二八八年 八月 十三日
海務廳長 閔復基 탁본 30cm x 95cm (글자 11cm x 11cm, 5cm x 5cm)

⑥ 정우식 일행(1966년)



大漢拏 / 登山記念 / 濟州道知事 鄭雨湜 副知事 姜成俊 /
總務局長 金漢駿 産業局長 元東鉉 警察局長 朴用詮
濟州市長 姜泰植 北濟州郡守 金泰秦 南濟州郡守 權東胄

탁본 115cm x 139cm(글자 15cm x 15cm, 10cm x 10cm)

⑦ 손경오 일행(행적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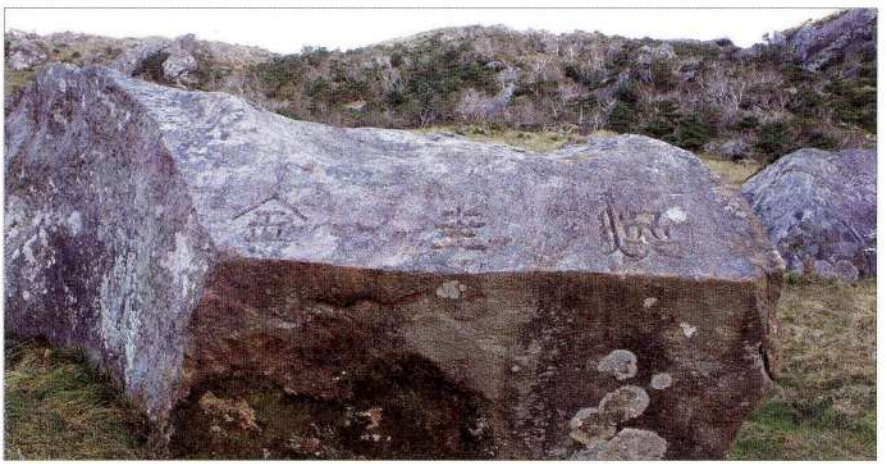
丙戌 孫京吳 梁元廈 孫才善 金善浩 孫炳鉉 趙君夏
姜奉秀 安大宜 孫武鉉 安宗根 高斗日 趙南俊 趙在建

탁본 67cm x 28cm (글자 5cm x 5cm)

<해설>

병술(丙戌)년 손경오(孫京吳)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13명의 인원이 한라산을 오른 듯 하다. 꽤 많은 인원이 올랐는데 앞서 소개한 백록담 동벽 마애명과 북벽 마애명들 사이에 새겨져 있다. 글씨체나 새겨진 상태로 보아 계모임이거나 단체 야유회를 기념하기 위해 새겨놓은 듯 보인다. 제주인들로 추정되지만 인물들에 대한 행적은 미상이다.

⑧ 김규환(행적 미상)



金圭煥 탁본 184cm x 66cm (글자 66cm x 66cm)

예로부터 신선들의 산으로 불리어 온 한라산에 새겨진 마애명은 제주지방에 부임해 온 관료 및 유배인들과 제주인 등에 의해 새겨졌으며, 한라산의 수려한 경관에 대한 감탄과 산수 유람의 풍류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인물들의 행적을 좇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목민관들의 풍류의식과 알려진 바와 사뭇 다른 유배 생활의 이면과 그들의 제영에서 보이는 독특한 찬축의 정서, 그리고 제주의 인물들과 촘촘하게 직조되는 교유관계까지를 고려한다면 마애명이 가지는 제주향토사적 가치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시대적 분포는 16세기 초 유배인 김정의 마애명부터 1960년대 제주도지사 정우식까지 조선 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대부분 조선 후기에 새겨진 마애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 또한 향후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조사를 통해 한라산 마애명이 가지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한라산이 소중한 우리나라의 유산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마애명 조사를 기초로 향후 제주도 금석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부록 1. 백록담 동벽내 마애명 현황

연번	명 칭	연도추정	내 용	비고
1	윤식 일행	1745	尹植 尹權 權德行 成永夏 朴璵 孟仁行 洪重健 尹命勳 尹基 乙丑 五月 尹命兼	
2	이경로	1754	李景老	
3	조관빈과 조영순	1755	壬子三月 趙觀彬 以大司憲言事 被謫登此絶頂 趙榮順 以副修撰言事 被謫繼登此頂 乙亥三月	
4	조위진	1758	戊寅 二月 十七日 登此 新伯 趙威鎭 舊伯 李潤成	
5	임관주	1767	茫茫滄海濶 一拳漢拏浮 白鹿仙人待 今登上上頭 丁亥 秋 任觀周	제영
6	정이환	1767	東西南北海 撑挿一峯浮 獨立乾坤大 居然最上頭 鄭履煥 身之 丁亥四月日 題白鹿頂	제영
7	신호인	1767	申豪仁 丁亥四	
8	남익상 일행	1768	南益祥 南峴 戊子四月 劉錫孝 金重運 二客從 愼基慶 戊子初夏登	
9	양세술	1771	梁世述 辛卯	
10	황덕빈 일행	1771	黃德彬 沈恒之 梁塤	
11	목사 이양정 일행	1781	李養鼎 李亨默 羅東善	
12	엄제 일행	1783	嚴瓆 任斗材 嚴思晩 李命啓 韓濟億 南履觀 尹濟商 丁載游 癸卯 九月 日 嚴墡 任百敏 李遠啓	
13	심낙수와 남수	1794	恩坡退士 沈樂洙 以巡撫御史來過 甲寅春 南涑	
14	목사 조정(철)	1811	趙貞□ 丁酉以前□□ 被謫庚戌□□ 趙貞□ 辛未以防□使□登絶□	
15	김종보 일행	1811	金鍾輔, 夫士簡, 李膺良, 洪範植, 張文明, 辛未	
16	목사 박장복	1836	牧使 朴長復 乙未 八月 十一日	
17	목사 조우석 일행	1837	牧使 趙禹錫 幕賓 趙禧錫 咸永述 朴裕源 趙羲經 判官 申義恒 李寅和 金秀男 劉永勳 文命新 丁酉 五月 日	
18	목사 조희순	1868-1872	趙羲純	
19	양 당	미상	梁塘	
20	김회 일행	미상	金會, 朴萬淳, 洪大成	
21	김재유	미상	金載瑜, 丁八日	
22	홍구서	미상	洪九瑞	

부록 2. 백록담 북벽내 마애명 현황

연번	명 칭	연도추정	내 용	비고
1	김 정	1521	金淨	
2	이 익	1619	李瀷	
3	최익현	1875	崔益鉉	
4	김세완	1955	大法官 金世玩 乙未 六月 十一	
5	민복기	1955	漢拏靈峯探勝 檀紀 四二八八年 八月 十三日 海務廳長 閔復基	
6	정우식 일행	1966	大漢拏 / 登山記念 / 濟州道知事 鄭雨湜 副知事 姜成俊 / 總務局長 金漢駿 産業局長 元東鉉 警察局長 朴用詮 / 濟州市長 姜泰植 北濟州郡守 金泰秦 南濟州郡守 權東胄	
7	손경오 일행	미상	丙戌 孫京吳 梁元廈 孫才善 金善浩 孫炳鉉 趙君夏 姜奉秀 安大宜 孫武鉉 安宗根 高斗日 趙南俊 趙在建	
8	김규환	미상	金圭煥	

참고 문헌

《世宗實錄》<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金淨, 〈濟州風土錄〉《冲菴先生集》

金緻, 〈遊漢拏山記〉

金羲正, 〈漢拏山記〉《海隱先生文集》

尹濟弘, 〈漢拏山圖〉《學山九九翁》

李源祚, 〈遊漢拏山記〉《耽羅錄》

李瀷, 《艮翁遺稿》

趙觀彬, 〈遊漢拏山記〉《悔軒集》

崔益鉉, 〈遊漢拏山記〉《勉菴先生文集》

고성훈, 〈1601년 제주도 역모사건의 추이와 성격〉, 《史學硏究》제96호, 한국사학회, 2009.

고윤정 외 공저, 《한라산의 마애명》,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2014.

고윤정,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고윤정, 〈한라산의 마애명(磨崖銘) 현황〉, 《조사연구보고서》제12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2013.

고정군 외 공저, 〈한라산의 자연자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2008.

김두봉, 《濟州島實記》, 제주문화, 2005.

김인기, 〈조선 후기 면암 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金粲洽 編著,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金粲洽 編著,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0.

김희정 저, 백규상 번역, 〈김희정의 한라산기(漢拏山記)〉, 《제주발전포럼》제41호, 제주발전연구원, 2012.

오문복 외 공저, 《제주도 마애명》,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 2000.

李榮培, 〈濟州地方의 磨崖石刻에 對한 小考〉, 《調査硏究報告書》 第4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0.

이원조 저, 김찬흡 외 편역, 《耽羅誌草本(상) 춘·하》, 제주교육박물관, 2007.

이원진 저, 김찬흡 외 편역, 《역주 耽羅志》, 푸른역사, 2002.

임제 외 저, 김봉옥 역,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제주문화원, 2000.

정광중 외,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제주교육대학교논문집》 제33집, 제주교육대학교, 2004.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濟州史年表 -古代~日帝時代》, 濟州道, 2005.

제주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제주목사〉, 《제주목사료집》 제1책, 제주시, 2005.

한라산총서 3

한라산의 역사와 유적

제3장
한라산과 그 주변 동굴유적의 분포와 성격

여 백

동굴유적은 자연적인 동굴을 주거(住居)나 무덤,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유적을 말한다. 동굴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자연환경의 해악으로부터 방어 또는 피신을 위한 좋은 장소이다. 동굴 이용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동굴유적은 석회암이 발달된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일부지역의 석회암동굴에서 확인된다. 동굴유적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북한에 위치한 '상원 검음모루동굴'에 대한 조사가 첫 시작이다. 이후 1980년대까지의 연구와 조사는 충청도와 강원도 일대에 산재해 있는 석회암동굴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생활상을 알수 있는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충청도와 강원도 일부지역, 제주도, 전라남도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동굴유적은 구석기시대는 물론 신석기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많은 수의 용암동굴과 해·하식동굴이 섬 전역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동굴을 이용한 유적은 70여 개소가 알려져 있다.

제주도 동굴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1970년대 초반 '어음 빌레못굴'유적을 시작으로 최근 '서귀포시 생수궤유적'까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유적은 상기한 유적을 제외하여 북촌바위그늘유적, 김녕 궤네기굴유적, 신천한못궤유적, 용천동굴유적 등이 있다. 그간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제주도에서도 동굴유적이 형성된 시대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탐라시대를 거쳐 근현대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성격을 규명하는 정도 외에 연구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며 보다 세부적인 시·공간상에서 유적이 내포하고 있는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굴유적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은 확인된 유적의 수에 비하여 유적에 대한 깊이있는 문화재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큰 이유이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초보적이나마 제주도 동굴유적에 대한 시공간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주도 동굴유적은 제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글의 시간적 하한은 탐라시대까지이다. 글의 순서는 먼저 동굴유적의 분포를 살펴보고 분포된 양상에 따른 유적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다음 분류된 유형별 동굴유적의 형성연대와 기능 및 성격을 살펴보았다.

1. 동굴유적의 분포와 검토

육지부의 동굴유적은 대부분 석회암지대와 하안단애가 형성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간지대, 중산간지대, 해안저지대, 해안 및 하안단구 등 제주도 전역에 용암동굴과 해·하식 동굴이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동굴유적 또한 육지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천연동굴의 수와 분포, 동굴유적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제주도동굴연구소에서 발간한 『동굴연구』 창간호에는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17개소, 북제주군 45개소, 남제주군 29개소의 천연동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주도 대부분의 천연동굴은 화산에 의해 형성된 용암동굴이며 해식·하식에 의해 형성된 동굴은 용암동굴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수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동굴유적의 분포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4개의 권역(한라산을 기준하여 넓은 용암대지가 형성되고 완만한 경사도를 갖는 동사면과 서사면, 급한 경사도를 보이면서 하천이 발달된 남사면과 북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사면 30개소, 서사면 21개소, 남사면 28개소, 북사면 19개소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굴유적은 총 70개소이며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서사면 9개소, 동사면 10개소, 남사면 35개소, 북사면 6개소가 확인되었다.

서사면 동굴유적

서사면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제주시 한림읍에서 서귀포시 대정읍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유적 대부분은 해안저지대에 자리한 동굴에 형성되어 있으며 조간대 단구에 형성된 작은 용암동굴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유적은 고산동굴유적, 월령 한드르굴유적이 대표적이다.

① 고산동굴유적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1리 788번지 내에 자리하고 있다. 고산1리를 지나는 일주도로변에서 산간쪽으로 약 2.5㎞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입구는 천장부의 함몰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낙반석과 주변 경작지의 잡석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상태이다. 트인 방향은 남서향이며 길이 6.5m, 높이 1.2m이다. 입구에서 동굴 내부로는 낙반석과 토사의 유입에 의해 경사를 이루고 있고, 동굴 내부는 터널형으로 S자 모양을 하고 있다.

입구 안쪽의 동편으로는 길이 6m 정도의 가지굴이 있고, 가지굴 북편으로 다시 경사를 이루어 동굴 내부로 내려가는 또 하나의 입구가 형성되어 있다. 입구에서

그림 3-1. 고산동굴유적 입구 모습

그림 3-2. 고산동굴유적 내부 모습

약 20m 지점까지 낙반석이 넓게 존재하고 있고, 다시 약간의 경사를 이루어 동굴 안쪽으로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퇴적층이 이어지고 있다. 유적의 범위는 입구에서 안쪽으로 170m 정도이고 유물은 약 30~136m 정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동굴 입구 부근의 퇴적층은 총 5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층에서 하층으로 니질점토층, 흑갈색점토층, 암갈색점토층, 소토층, 흑갈색점토층이 확인된다. 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동물뼈가 소량 확인되었다.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132m 지점에서는 총 5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다. 표토에는 최근에 유입된 토사층인 니질점토층이 퇴적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미세목탄이 다량 포함된 흑갈색점토층, 소량의 토기편이 포함된 황갈색점토층, 매우 단단하게 퇴적된 사질토층, 가장 두껍게 퇴적이 이루어진 암갈색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대부분 신석기시대 토기편이며 일부 동물뼈가 확인된다. 신석기시대 토기편은 융기문토기, 침선문토기, 압인어골토기, 조흔문토기 등이며 현무암 알갱이를 보강재로 사용하였다.

② 월령리 '한드르' 동굴유적

한림읍 월령리 산 13번지에 위치한다. 해안일주도로변의 금능리에서 중산간마을인 조수리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1.5km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입구는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대형 낙반석에 의해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고, 낙반석으로 이루어진 경사면이 동굴 내부로 이어지고 있다. 트인 방향은 서향을 하고 있으며 길이 8m, 높이는 3m이다.

그림 3-3. 월령리 '한드르' 동굴유적 입구 모습

유적이 형성된 곳은 입구 부분과 채광이 이루어지는 24m 안쪽까지로 천장이 급하게 낮아지고 낙반석무지가 자리하는 부분까지 대략 50㎡ 정도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동굴 내부에 퇴적이 이루어진 부분도 유적이 형성된 부분과 일치한다. 유적의 퇴적상황은 상층에서 하층으로 모래층, 흑색점토층, 암갈색점토층의 총 3개의 층으로 퇴적되어 있다.

① 모래층 : 바람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층으로 10~15㎝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② 흑색점토층 : 점토와 재가 혼재된 층으로 점성이 아주 약하고 회갈색의 점토가 전반적으로 얇게 존재한다. 일부 점토에는 불먹은 흔적이 확인된다. 조흔문토기와 방추차 1점이 확인되었다. 두께는 6㎝정도이다.

③ 암갈색점토층 : 암갈색조의 점토층으로 암반과 맞닿아 있다. 암반 사이에서 세석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잔날떼기 수법의 화살촉과 석기류, 대체로 직립구연을 하는 삼각 또는 원형의 점렬문이 압날된 점렬문계토기, 조흔문토기, 방추차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표토 및 상층에서는 구연이 크게 외반되는 적갈색경질토기와 심발형의 고내리식 토기가 확인되었다. 그 밖에 다량의 패각과 동물뼈가 토기와 혼재되어 확인되었다.

동사면 동굴유적

동사면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제주시 구좌읍에서 서귀포시 표선면까지의 지역이다. 제주도 내에서도 다수의 동굴이 분포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장굴과 김녕사굴, 수산굴, 용천동굴 등이 있다. 반면 현재까지 확인된 동굴의 수에 비하여 유적으로 이용된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은 편이나 추후 유적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신천 한못궤유적, 김녕 궤네기굴유적, 묘산봉동굴유적, 용천동굴유적이 있다.

① 신천 한못궤유적

성산읍 신천리 신천마장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에서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해발 20m의 평탄대지상의 동굴이다. 동굴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으며 장타원형의 넓은 함몰부와 함몰부 남동편으로 길이 450cm, 높이 165cm의 반원형의 입구를 가지고 있다. 입구는 남서향을 하고 있으며 유적은 동굴의 함몰부와 내부 약 25m까지의 범위에 형성되어 있다.

함몰부에는 6개의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상층에서 하층으로 표토층 - 흑갈색부식토층(소량의 사질과 미세목탄이 포함된층으로 각목토기와 석기가 확인됨) - 흑갈색점토층(점성이 강한 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주 얇게 퇴적되어 있고 침선문계의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석기편이 확인됨) - 황갈색점토층(소량의 미세목탄과 토기편, 석기박편이 확인되며 약간의

그림 3-4. 신천 한못궤유적 모습

수혈선이 확인됨) - 생토층 - 낙반석층이 퇴적되어 있다.

동굴내부에는 패총이 형성되어 있으며 총 8개의 층이 확인되었다.

표토층 - 명갈색점토층(자잘한 패각편과 소량의 곽지리식토기편·고내리식토기편이 포함된 토층으로 일부 약간의 수혈선이 확인됨) - 흑색혼토패각층(자잘한 미세패각이 포함됨) - 흑갈색점토층(소량의 패각편을 포함하는 층으로 북에서 남으로 경사를 이루고 일부 대형 전복이 확인됨) - 혼토패각Ⅰ층(다수의 배말고동과 함께 대형 전복과 소라가 포함된 토층으로 각목토기, 직립구연토기편과 일부 공이석기가 확인됨) - 혼토패각Ⅱ층(혼토패각Ⅰ층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다량의 패류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각목토기, 마연토기와 함께 패각으로 만든 유물 등과 전복껍질이 공반되어 확인됨) - 순패각층(보말고둥과 전복, 소라 등으로 구성된 순수패각층으로 소량의 석기편이 확인됨) - 낙반석층(북에서 남으로 경사를 이루며 낙반석 사이에서 소량의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확인됨)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② 김녕리 궤네기굴유적

구좌읍 김녕리 2121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동굴의 전체 길이는 200m 가량 되며 동굴공간의 평면 모양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동북쪽으로 휘어져 들어간다. 입구가 9.2m, 내부 안쪽이 7.5m에 이르나 대체로 거의 같은 폭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동굴바닥의 면적은 대략 65㎡정도 된다.

동굴의 바닥은 울퉁불퉁한 凹凸면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안쪽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내부 안쪽에 퇴적된 토층의 두께는 10cm 미만으로 거의 암반이 노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바닥의 레벨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동굴 바닥에 퇴적된 토층의 두께는 70~80cm 정도인데, 최근까지 이곳에서 마을제사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져 일부 교란이 이루어졌다. 유적 내 층위를 살펴보면 대체로 3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다.

① 제1층은 표토층으로 입구 부분과 내부 적석 부분에 15~20cm 가량의 두께로

그림 3-5.. 김녕리 궤네기굴유적

동일하게 퇴적되어 있으나 적석군 안쪽으로는 10cm 정도로 얇게 퇴적되어 있다. 대체로 암갈색을 띠며 입구 부분은 점성이 약한 밝은 암갈색을 띤다. 이 층에서 유물은 입구쪽보다 적석군 안쪽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② 제2층은 입구 부분의 두께가 35~40cm, 적석군 안쪽으로는 20cm 가량이다. 이 층은 흑갈색층으로 유물이 다량 출토되며, 특히 내부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대형의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편이 밀집되어 출토되는 유적의 주된 문화층이다.

③ 제3층은 최하층으로 암반 위에 7~12cm두께로 퇴적된 재층이다. 대략 3개의 층위로 세분되며 회색, 흑색, 담갈색조를 띤다. 입구 부분에서는 3개의 세분된 층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안쪽으로는 회색과 담갈색이 주로 나타난다.

최하층인 재층은 유적이 초기에 이용되었던 흔적임을 보여주는 층으로 삼각형 점토대토기, 패촉 등이 출토되었다. 재층 상면에서 확인되는 흑갈색토층은 두께가 비교적 두텁고 다량의 유물을 포함하고 있어 이 유적의 주된 문화층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층에서 다량의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가 출토되고 있어 유적이 가장 활발히 이용된 시기로 판단된다. 암반바닥 일부에서는 소량의 신석기시대의 토기편이 확인되는데, 이것으로 보아 최초의 이용은 신석기시대 후기단계로 판단해 볼 수 있다.

③ 김녕 묘산봉동굴유적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 남서편의 목장지대에 자리하는 동굴유적으로 김녕리 마을에서 중산간으로 약 3.5㎞ 정도 거리에 위치하며 유적의 주변으로는 넓은 곶자왈과 소규모의 동굴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입구는 잡목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천장부가 무너져 아치 모양으로 트여 있다.

동굴은 크게 동쪽과 서쪽에 2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굴의 입구는 남향을 하고 있고 천장부에서 떨어진 낙반석에 의해 대부분이 막혀 출입에 어려움이 있다. 바닥은 용암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일부 낙반석이 자리하고 있다. 입구 부근의 바닥에는 박쥐의 배설물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동굴 안쪽 서편에 4·3 당시의 유구로 보이는 돌담경계시설과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바닥 사이에 소량의 적갈색경질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동굴은 동쪽에 위치한 굴로 입구는 서향을 하고 있다. 입구는 길이 5m, 높이 2.3m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은 길이 2m 정도이다. 동굴 내부는 타원형모양을 하고 있으며 장축이 31m, 단축 20m, 높이 1~3m 정도이다. 입구에서 동굴 내부로 경사가 져 있고 내부 바닥과 천장은 서에서 동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낙반석이 넓게 자리하고 있고 일부 4·3 당시 이용되던 것으로 보이는 돌무더기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3-6.. 김녕 묘산봉동굴유적

동굴 전체에서 유물이 확인되는데, 특히 동굴의 입구부와 안쪽 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와 타날문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이 주를 이루며 낙반석 사이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이 외에 소량의 패각과 다량의 동물뼈가 확인되었다.

김녕 용천동굴유적

이 유적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용천동굴에 형성되어 있다. 용천동굴은 만장굴-김녕굴-용천동굴-당처물동굴로 이어지는 동굴계에 속한 용암동굴로 알려져 있으나 동굴의 원래 입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입구는 수직형태로

되어있는데 공사과정에서 동굴천정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동굴의 길이는 2.6km, 호수 880m로 동굴의 북단부에 깊은 웅덩이와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거의 동굴 전체에 형성되어 있다. 유물은 현 입구를 중심으로 남쪽 방향, 동굴내부 이동이 불편한 곳(낙반석, 폭포 등)과 북쪽 호수와 그 인근에 다량의 토기편 밀집되어 확인된다. 총 61개 지점에서 토기류를 비롯한 철기류, 동물뼈, 패각류, 목제품이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통일신라시대 토기로 장군, 병, 인화문토기 등 다양하며 단지와 병의 비중이 높다. 철제류는 봉상철기, 칼, 망치, 철기조각 등이 확인된다. 용천동굴의 사용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절대연대는 목탄: AD 420~820, 목재: AD 570 ~ 780, 패각: AD 240 ~ 440로 분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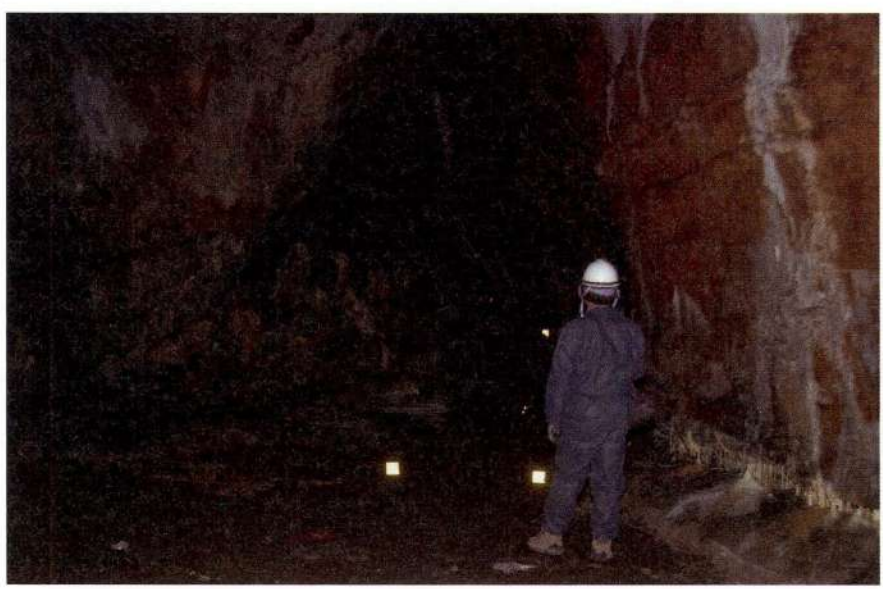


그림 3-7. 용천동굴유적 모습

남사면 동굴유적

남사면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안덕면까지의 지역이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급한 경사도가 있으며 하천과 해안단구가 제주도 내에서 가장 발달된 곳이다. 유적은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의 하천변과 해안가에 자리한 소규모의 해식·하식동굴에 형성되어 있다. 대표 유적은 색달동 들렁궤유적, 대포동 오등이궤유적, 상예동 바위그늘유적군, 신례리 바위그늘유적, 창고천 바위그늘유적군, 영실 수행굴유적 등이 있다.

① 색달동 들렁궤유적(다람쥐굴)

서귀포시 색달동 해안단구에 위치하고 있는 해식동굴이다. 예래동과 색달동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 하류에서 동쪽해안단구를 따라 약 300m 지점에 위치한다. 동

그림 3-8. 색달동 들렁궤유적 모습

굴은 현 해수면에서 약 25m 정도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는 남향을 하고 있다. 유적이 형성된 범위는 입구에서 약 18m 정도까지로 입구 부분에 형성된 넓은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굴 내부는 전체적으로 흑갈색점토와 천석으로 약 0.3~1m 정도가 복토된 것으로 보이며 유물은 복토층 아래에서 확인되고 있다. 입구 부근의 북벽 가장자리에 소규모의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와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편이 확인되며, 그 외 다량의 패류와 소량의 동물뼈가 확인되었다.

② 대포동 오등이궤유적

서귀포시 대포동 1506-1번지에 위치한다. 완만한 구릉지대에 자리한 이 동굴은 3개의 입구가 만들어져 있다. 입구는 먼저 굴의 중앙부에 수직으로 뚫린 입구와 남

그림 3-9. 대포동 오등이궤유적 모습

쪽과 서쪽으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입구가 있다. 수직으로 뚫린 입구는 그 모양이 장타원형이고 지름이 1.62m이며 바닥까지의 높이는 1.57m이다. 동편 입구의 트인 모양은 장방형이며 직경 1.42~1.62m에 이른다. 서쪽 입구는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이며 굴 입구 직경은 1.23m, 높이 45㎝ 내외이다. 굴의 중앙홀은 전체적으로 서고동저의 레벨을 보이며 바닥은 계속적으로 낙반현상이 일어나 자잘한 낙반석들이 깔려 있는 상태이다. 굴의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굴의 크기는 동쪽 입구에서 안쪽까지 5.42m(장축), 남북 폭(단축) 3.4m이다.

굴의 퇴적층위는 45㎝ 두께의 암흑색 부식토층이 퇴적되어 있었다. 이 부식토층에서 적갈색경질토기 1점과 석창 1점이 출토되었다. 아직 굴 내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행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부식토층은 서고동저의 굴 바닥 생토레벨에 의해 동편으로 퇴적층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 밀감나무 식수시 동굴 내부에서 흙을 채굴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석창 1점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조사시 동편 입구에서 깊이 34㎝, 직경 56㎝의 후대 교란 구덩이를 확인하였는데, 이 교란 구덩이가 그 흔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③ 창고천 바위그늘유적

하천급류의 계속되는 침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바위그늘을 이용한 유적이다. 안덕면 화순리 화력발전소에서 북쪽 방향으로 700m 정도 올라온 창고천 절벽의 하단에 위치한다. 이곳의 지형은 감산리에서 월라봉 줄기를 타고 내려오던 창고천 자락이 화순리로 들어오면서 'S'자형으로 굽이치는데, 이 꺾이는 부분에 바위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트인 방향은 북서향이며 3개의 바위그늘이 연결된 아치형 그늘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의 입구 직경은 5.7m, 높이는 3.5~3.0m이고 왼쪽은 연접되어 있는데, 비교적 소형으로 입구직경은 2.9m, 높이는 2.7~2.2m이다. 중앙은 입구에서 안쪽까지 3.0m, 왼쪽굴은 1.7m정도이다. 중앙의 바닥은 심하게 경사져 있고 암반층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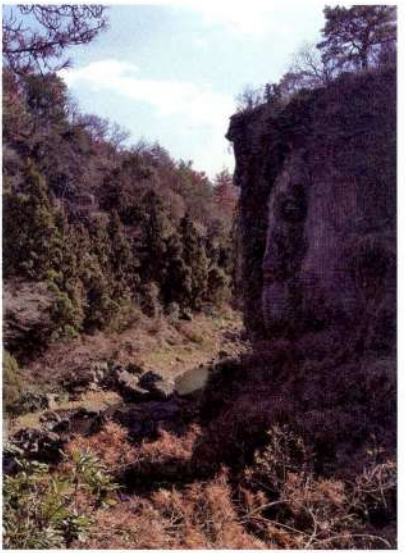


그림 3-10. 창고천 바위그늘유적

10~15cm 정도의 흑갈색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왼쪽도 마찬가지다. 입구전면은 경사져 내려와 하천 유로면과 연결되며 유로면과의 높이차는 1.5m 정도이다. 왼쪽굴의 토층상태를 보면 흑갈색부식토층의 깊이가 30cm이며 유물은 주로 이 층의 상면에서 확인된다. 유물은 다수의 적갈색경질토기, 공이, 홈돌 등이 확인되었다.

④ 상예동 바위그늘유적2호

서귀포시 상예동 1501번지에 위치한다. 유적이 형성된 지점은 하천이 지그재그형으로 꺾이는 부분인 단구의 하단에 있다. 현재에도 단구면이 계속 절리되고 있는 중이며 원래는 바위그늘이 드리워진 면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위그늘의 길이는 3.5m, 높이는 1.5m, 입구에서 안쪽까지 길이는 2.2m이다.

유적 내 퇴적층위는 총 7개의 층으로 명갈색점토층(1층) - 흑색재층(2층) - 명갈색점토층(3층) - 적갈색니질점토층(4층) - 갈색점토층(5층) - 흑갈색점토층(6층) - 암반층

(7층)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암반상면에 놓인 인공적인 할석이 몇 군데에서 확인되었는데, 그늘 중앙에서 확인되는 판석과 할석 3매는 노지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층~4층 부분에서는 인골편으로 추정되는 골편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유적이 최종적으로 무덤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과거에 인근 주민이 바위그늘 바로 앞에서 곡옥을 수습했다는 내용이 이를 보완해 준다. 이와 함께 완형의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가 내부 상면에서 확인되었으며 우각형파수부토기와 토기뚜껑도 함께 확인되었다.

그림 3-11. 상예동 바위그늘유적 2호 모습

⑤ 신례리 바위그늘유적

서귀~위미 간 12번 국도(하례~신례2리간)변, 즉 세기내 다리에서 북쪽으로 100m 지점인 하류 동벽에 자리한다. 해안 700m 정도 거리를 두며 하천의 급류에 의한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그늘이다. 바위그늘이 트인 방향은 북서 방향이며 그늘 면적은 대략 5평 남짓이다. 전체의 규모는 입구의 동서 길이가 8.6m, 높이 2.4m, 깊이 4.2m이다.

유적 내 퇴적층위는 50cm 정도의 두께를 가지며 고운 회색 모래층(1층)과 회색 재층(2층) 그리고 흑갈색 부식토층(3층)이 퇴적되었고, 입구 쪽이 안쪽보다 퇴적층이 깊다. 유물은 주로 적갈색경질토기와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외 공이, 홈돌 등의 석기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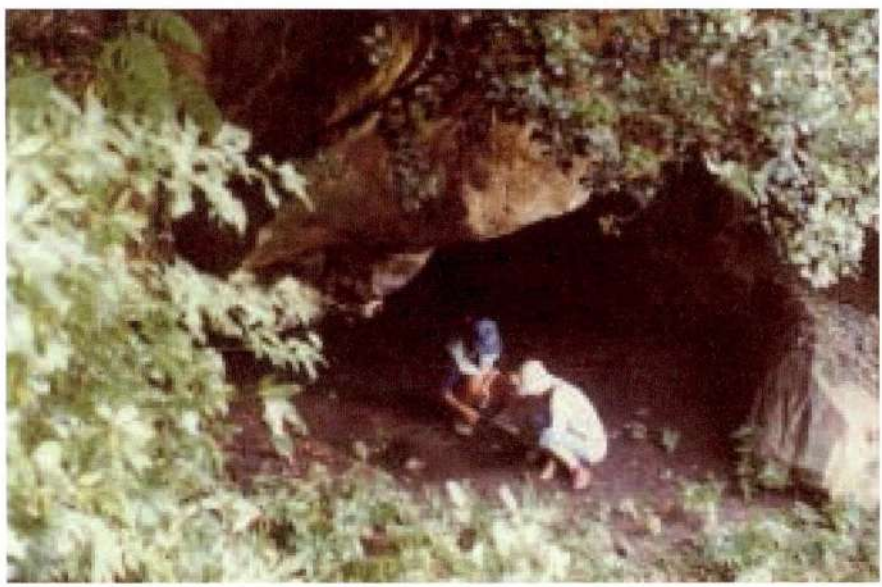


그림 3-12. 신례리 바위그늘유적 모습

예전에는 그늘 앞 하천에 물이 고여서 은어와 민물게 등이 서식하였고, 빨래와 목욕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또 일제하 공습 때에는 방공호 대용으로 대피하는 장소였다.

⑥ 영실 수행굴유적

유적은 해발 1,356m지점(N33°20′46.94″, E126°30′14.38″)에 자리하고 있다. 영실휴게소 주차장에서 동쪽방향 직선거리 약 750m정도에 위치한다. 유적의 입구가 트인 방향은 남쪽(입구정면 N20°E)이며 서귀포시 강정동을 비롯한 서귀포시 일대와 해안 조망권이 아주 우수하다. 유적 인근에는 도순천 발원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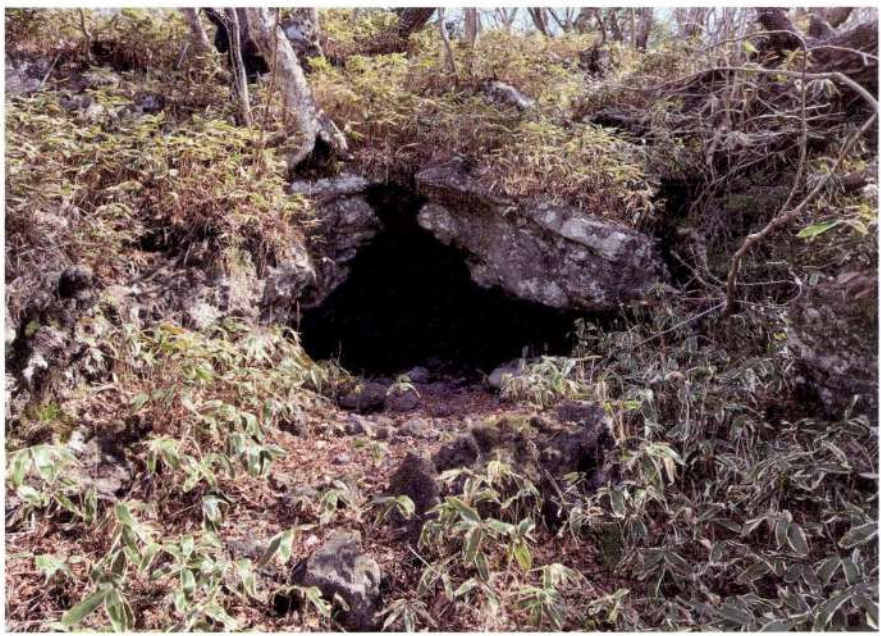


그림 3-13. 영실 수행굴유적 모습

천은 제주도에서 이른 신석기시대에서 탐라시대 유적인 강정동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주요하천이다.

수행굴은 용암동굴로 입구부는 남향으로 트여 있다. 동굴은 터널형태의 아치형의 천장을 이루고 있다. 내부는 북에서 남쪽으로 경사를 이루는데 상부와 하부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상부는 약간의 돌무더기와 비교적 넓은 암석으로 단을 조성하였다. 유물은 동굴 전체에서 확인되는데 탐라시대 적갈색토기와 마제석기, 기와, 옹기, 철제 끌 등이 확인된다. 특히 탐라시대 적갈색토기와 마제석기는 동굴 입구 채광이 이루어지는 부근에서 확인되었다.

유적 인근에 확인된 유적 외에 다수의 바위그늘유적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동혈보다는 넓고 얇은 바위가 경사져 지붕의 형태를 취하는 곳에 돌담으로 벽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북사면 동굴유적

북사면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제주시 조천읍에서 애월읍까지의 지역이다. 남사면에 비하여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편이지만 동서사면에 비하면 경사가 있다. 대형 하천이 발달되어 있고 해안에는 비교적 넓은 조간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일부 해안에 형성된 동굴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곶자왈지대의 동굴을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북촌리 바위그늘유적, 억수동바위그늘유적, 관전동동굴유적, 가문동바위그늘유적 등이 있다.

① 북촌리 바위그늘유적

북촌리 275번지에 위치한다. 제주도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동굴 지형을 자연그대로 이용한 대표적인 유적이다. 해안에서 600m 가량 떨어진 해발 20m의 평탄대지에 형성되어 있는데 동굴 함몰부의 최대직경이 50m에 이르며 그 동북쪽 절벽 아래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3-14. 북촌리유적 모습

바위그늘은 정면폭 11m, 높이 2.5m, 길이 3m이며 입구는 정남향으로 트여 있다. 바닥면 서쪽은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큰 암반으로 평탄면을 이룬 반면, 동쪽에서는 무질서하게 천장에서 떨어져 내린 낙반석에 인위적으로 잡석을 깔아 면을 평탄하게 다듬었다. 유적내에는 여러 시대의 문화층이 확인되는데 총 5개 층위가 확인되었다.

① 제1층(표토층)은 지하 15~25cm까지로 조개 및 동물뼈 파편이 비교적 다량 혼입된 흑갈색토층이다. 근래에 버려진 유물도 포함된 교란층이나 원래는 탐라시대 문화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제2층(갈색사질토층)은 표토 아래 30~45cm까지로 두께는 15~35cm이다. 역시 조개 및 동물뼈 조각이 많이 섞여 있는 층위이다.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편이 다

량 출토되었다. 층위 바로 밑과 제3층 사이에 회갈색의 곱고 푸석푸석한 재층과 목탄층이 3~6cm 두께로 일부 간층을 이루고 있다.

③ 제3층은 표토 아래 35~55cm로서 두께는 15~25cm 정도인 다소 밝은 흑갈색 점토층이다. 조개 및 동물뼈는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와 함께 우각형파수부토기가 출토되었다.

④ 제4층은 표토 아래 52~72cm이고 두께는 12~27cm로 밝은 갈색 점토층으로서 조개편이 3층보다 다소 많아진다. 이 층에는 유물이 거의 없으나 수점의 공렬토기편과 각목토기편출토되었다.

⑤ 제5층은 최하층으로 밝은 갈색의 사질토층이며 조개편은 서로 엉켜 붙어 화석화 과정에 있는 고형질로 되어 있는 층위이다. 표토 아래 67~83cm까지이며 두께는 25~37cm이다.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원상으로 출토되는 층위로 이 문화층의 탄소측정연대는 B.P.2950~25년이다.

유물은 모두 신석기시대 토기로 구연부 아래에 3열 혹은 4열의 원형·삼각점렬무늬토기, 구연이 이중으로 된 겹아가리토기, 조갯날 같은 시문구를 연속적으로 비스듬히 눌러 만든 무늬가 장식된 집선문계토기, 빗창과 유사한 골각기가 확인되었다.

② 관전동 바위그늘유적

하귀1리 관전동마을 해안절리면 하단에 위치한 유적이다. 파도에 의해 형성된 해식동굴로 입구는 사다리꼴모양을 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하는 곳은 북사면 해안에서는 드물게 바다에서 약 4~5m의 높이를 가지는 절리단애가 형성된 곳이다. 절리면은 현재 절리가 진행 중으로 유적의 주변에 절리석들이 다수 존재한다.

유적은 바다에서 약 1.5m 상단에 있으며 내륙방향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절리단애면의 하단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동혈과 전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동혈의 트임방향은 N20。W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450m, 높이 60~70cm, 깊이 350~400cm

그림 3-15. 관전동 바위그늘유적 모습

정도이다. 전정부는 동혈의 입구 앞부분으로 반타원형의 평탄면을 이루고 있으며 입구에서 약 7m, 길이 10cm 넓이를 가지고 있다.

동혈 내부에는 황갈색점토가 약 50cm 정도로 퇴적되어 있으며 소량의 적갈색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전정부에는 약 40cm의 흑갈색점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자잘한 적갈색토기편들과 일부 석기들이 확인되었다. 흑갈색점토층의 하부에는 자잘한 자갈층이 형성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적갈색경질토기편들이며 일부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가 소량 확인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서쪽의 약 30m 지점의 조간대에 지석묘 1기가 자리하고 있다. 유적 바로 앞 약 30m 지점의 현무암 암반 위에는 직경 10cm 내외, 깊이 5cm 내외의 구멍 7개가 다소의 차이를 두고 자리하고 있고 그 앞으로 원이 축조되어 있다.

2. 동굴유적의 유형

제주도 내에서 확인되는 동굴은 크게 동굴과 바위그늘로 구분할 수 있다. 바위그늘은 다른 지역 바위그늘과 달리 대부분 동혈(洞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유적으로 이용된 곳은 2002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보존·관리지침』의 기준을 따르면 모두 동굴의 범주에 포함된다. 유형분류에 있어 형태적인 분류작업이 일차적이지만 대부분의 유적은 동혈 형태를 가지고 있다. 동굴에서 유적이 형성되는 범위는 바위그늘은 전체, 동굴은 동굴 밖 입구부와 동굴내부 입구부(채광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유적의 규모와 반경은 유사하다. 따라서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굴의 형태보다는 유적의 입지가 유형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유형은 입지를 기준으로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Ⅰ유형

해안에 위치한 해식 동굴을 이용한 유적이다. 이 유형은 해안선에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단애에 형성된 동굴을 이용한 것으로 대체로 입구 앞에는 비교적 넓은 조간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주변에는 이와 연관된 유물산포지가 있으며 음용수로 이용이 가능한 용천수와 양질의 토양이 넓게 퇴적되어 있다. 유적의 규모는 대략 15㎡ 이하의 소형으로 입구가 일부 북서향으로 트인 곳도 있으나 대부분 남향이다. 유적이 형성된 곳은 동굴 입구 밖 일부와 동굴 내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토유물은 다량의 패각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량의 토기이 혼재되어 있다. 도내에서 단구가 발달된 남사면의 중문동, 색달동을 중심으로 다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적은 상예동 바위그늘유적군과 하예동 바위그늘유적군이 있다.

② II유형

주로 하천의 절리단애면에 위치한 용암이나 하식에 의해 형성된 동굴을 이용한 유적이다. 대부분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1㎞ 정도의 하천단구에서 확인된다. I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5㎡ 정도의 동굴을 이용하고 있으며 입구는 거의 남향이다. 유적 형성 범위는 입구부를 포함하여 동굴 전체에 형성되어 있으며, 출토유물은 토기편과 공이·홈돌·갈판 등의 석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적 주변의 평탄대지상에는 유물산포지가 존재하기도 하나 거의 단독으로 자리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서귀포 생수궤유적, 하례리, 신례리, 창고천 바위그늘유적군이 있다.

③ III유형

해안에서 1㎞ 내외의 거리를 두며 특히 해안과 중산간지대의 중간부에 위치한 동굴을 이용한 유적이다. 유적으로 이용된 동굴은 규모가 15㎡ 이상으로 비교적 넓은 용암동굴을 이용하고 있다. 유적이 자리한 주변 일대에 비교적 양질의 토양이 넓게 분포하며 음용수 획득에 유리한 하천이나 용천수가 자리하고 있다. 유적 형성 범위는 동굴 밖 입구부와 내부 빛이 비치는 부분까지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토기편이며 동물뼈와 패각류는 거의 동일한 양이 확인된다.

유적 주변에는 동굴유적과 연관된 대단위 마을유적과 유물산포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북촌리 바위그늘유적 제2층, 김녕 궤내기동굴, 신천 한못궤굴유적, 대포동 오뎅이궤유적 등을 들 수 있다.

④ IV유형

해안에서 2㎞ 이상에 자리한 유적으로 대부분 중산간지대에 위치하며, 특히 곶자왈이 형성된 주변의 동굴을 이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곶자왈 지대에는 넓은 수림, 다양하고 풍부한 식용식물, 인간과 동물이 쉽게 은거할 수 있는 바위그늘과 동굴이 다수 형성되어 있으며, 음용수 획득에 유리한 소규모의 습지도 형성되어 있어 최근

까지 도민은 물론 야생동물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제주도 선사인들에게도 삶을 영위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곶자왈지대에 유적으로 형성된 동굴은 대체로 동굴 입구는 작고 천정고는 낮은 소형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적 형성 범위는 동굴 밖 입구부와 내부 전체이며 출토유물은 토기편과 동물뼈가 주로 확인된다. 유적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유물산포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물의 집중적인 분포위치는 동굴의 입구부에 집중되는데 일부는 유수(流水)의 유입으로 인하여 동굴의 깊은 곳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고산동굴유적, 선흘리 목시물굴유적, 김녕리 묘산봉동굴유적이 있다.

⑤ V유형

해발 600m 이상 1400m 내외에 자리한 유적이다. 대체로 산간 및 한라산체에 위치한 유적이다. 주변에 해안으로 이어지는 대형 하천 발원지가 인근에 있다. 유적으로 이용된 동굴은 15㎡ 정도로 작은 편이다. 유적 형성 범위는 동굴내부 전체이며 출토유물은 토기편과 석기편이 확인된다. 현재까지 보고된 유적은 많지 않으나 '영실 수행굴'유적이 유일하며 유적 내부에서 탐라시대 적갈색토기와 마연된 석기가 확인된바 있다. 이 유형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3. 동굴유적의 성격

제주도 동굴유적의 특징은 ① 대체적으로 동혈이 형성되고 입구가 남향인 곳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② 동굴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입구를 중심으로 입구의 앞과 동굴 내부 채광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③ 유물 퇴적 양상은 대부분 단일토층이나 얇은 퇴적상황에서 여러 시대의 생활상이 혼재되어 있다. ④ 유적 형성 연대는 구석기시대는 물론 대단위 야외취락이 형성되는 탐라시대를 거쳐 근현대, 최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동굴유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능과 성격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유형별 유적형성 시기

제주도 동굴유적의 특징 중 하나는 앞서 살폈듯이 동굴 내 토양 퇴적이 미미하거나 퇴적두께가 얇으며, 여러 시대의 유물이 거의 단일층 내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유적에 대한 세밀한 연대구분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굴유적의 연대는 유적 출토 토기 연대를 통한 대략적인 사용 시기를 추정할 뿐이다. 제주도 동굴유적 중 이른 시기유적으로 '어음빌렛못굴(중기 구석기)'과 '서귀포생수궤(후기 구석기)'가 있으나 출토유물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여 추후 정리하고자 한다.

① Ⅰ유형

탐라시대 전·후기의 적갈색토기, 고내리식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이 혼재되어 확인된다. 소량의 패각이 확인된다.

② II유형

철기시대와 탐라시대 전·후기의 적갈색토기, 고내리식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이 단일층 내에서 확인된다. 확인되는 유물의 양은 아주 소량이지만 토기의 점유비율을 볼 때 탐라시대전기 적갈색토기의 비율이 다소 높다. 석기는 공이, 홈돌, 갈판 등의 제분구가 중심을 이룬다. 소량의 동물뼈가 같이 확인된다.

③ III유형

신석기시대에서 탐라시대 후기에 이르는 유물상이 확인된다.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얇은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두껍게 퇴적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북촌리유적인 경우 최하층에는 신석기시대 후기의 점렬문계토기, 만기의 이중구연토기 등이 확인되고 중간층에는 탐라시대 전기의 적갈색경질토기, 탐라시대 후기의 고내리식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가 확인된다. 특히 유적 내에는 상당량의 유물이 퇴적되어 있으며 패류와 골류의 출토비율이 비슷하다. 신석기시대에서 탐라시대 후기, 최근까지 이용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④ IV유형

III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석기시대 조기에서 탐라시대 후기까지 토기가 확인되나 대부분 신석기시대 말기와 탐라시대 전기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⑤ V유형

탐라시대 전기 적갈색토기와 석기가 확인된다.

제주도 동굴유적의 형성연대는 '어음빌렛못굴(중기 구석기)'과 '서귀포생수궤(후기 구석기)'를 제외하면 신석기시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라 할 수 있다.

유형별 동굴유적의 형성연대를 보면 신석기시대에는 II·III·IV유형의 동굴을 중심

으로 이용되었고, 청동기시대는 Ⅲ유형, 철기시대와 탐라시대 전기에는 Ⅰ·Ⅱ·Ⅲ·Ⅳ·Ⅴ 모든 유형이 확인되지만 Ⅲ유형이 중점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탐라시대 후기에는 대체적으로 Ⅰ유형을 중심으로 유적이 이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적의 기능

유적은 주거용과 특수목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주거용

주거용(장기주거와 단기주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말하고자 함)으로 이용된 유적은 대체로 Ⅲ·Ⅳ유형이 해당하며 시대는 각 유형 중 신석기시대, 철기시대와 탐라시대 전기 퇴적층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Ⅲ유형의 북촌리 바위그늘유적 최하층을 들 수 있다. 유적의 입지에 있어 해안의 조간대와 인접한 곳에 자리하여 음용수와 해산물 채취에 용이하고 유적 주변으로는 넓은 목초지대 혹은 인접한 곳에 곶자왈이 형성되어 있어 사냥이나 식물채집에도 매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주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토기편과 갈판·갈돌·공이·홈돌 등이 확인되며 이와 함께 다량의 패각과 소량의 동물뼈가 확인된다. 유적 주변으로는 해당유적과 연관시킬 수 있는 야외유적이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지 않는 단독의 형태를 띠고 있다.

Ⅳ유형의 대표 유적으로는 김녕 묘산봉동굴유적이 있다. 유적은 해안에서 2km 이상에 위치한 중산간지대에 있으며, 유적 주변에 넓은 목초지대와 곶자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유적과 연관될 수 있는 야외유적이 없다, 출토유물은 저장용으로 이용되는 대형토기가 다수 확인되며, 석기는 갈판·갈돌·공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유적들을 주거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배경은 출토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유물 중에서도 저장용구인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 일부 공이석기와 홈돌이 확

인되는 점, 견과류 또는 곡류를 분쇄시키는 갈돌·갈판이 존재하는 점 등이 주된 근거로 작용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신석기시대 단계에는 일부 야외주거지를 축조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소규모 수렵·채집단계의 집단의 경우는 현재 확인되는 동굴유적만으로도 충분히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 탐라시대에는 이미 제주도에 대규모 야외취락이 형성되는 시기로 주거용으로의 동굴에 대한 활용도는 감소하지만 사냥이나 원거리 이동과정에서 중간 거점지나 사냥을 위한 임시 캠핑장소, 수렵채집을 위한 소규모집단이 상주하여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② 특수목적으로 이용

제주도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에 대단위 야외주거유적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유물산포지나 패총이 제주도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동굴유적 Ⅰ·Ⅱ·Ⅲ유형이 대단위 야외주거유적이나 유물산포지와 관련되어 그 수가 이전보다 많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청동기시대 이후 철기시대, 탐라시대의 대단위 야외주거지가 조성되는 상황은 신석기시대의 주거지나 이동과정에서의 거점지 또는 사냥을 위한 캠핑유적으로서의 이용보다도 야외취락과 관련된 특수목적을 띤 용도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이후 동굴유적은 야외취락유적과 관련된 무덤, 공동제의(共同祭儀)장소, 어로·채집 후의 채집물 정리장소, 도구나 음식물의 공동보관창고, 병자 또는 죄인의 격리처, 대피소 등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Ⅰ유형의 대표 유적인 하예동 바위그늘유적군을 들 수 있다. 이 유적 주변에는 유적과 연관시킬 수 있는 야외주거유적과 유물산포지가 넓게 분포하고 소규모의 형태로 어족자원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해안선이 발달된 조간대 위치한 유적이라 점에서 알 수 있다. 아울러, 동굴 내부에 퇴적된 문화층은 아주 얇거나 미미하고,

확인되는 유물 또한 토기류와 어패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어로와 관련된 복합공간으로 대피소, 어로도구의 보관, 어획물 집하 등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Ⅱ유형의 대표유적인 하례리, 신례리 바위그늘유적은 주로 하천변 단애면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주변에는 유적과 관련한 유물산포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과 공이석기, 홈돌이 확인된다. 이 유형은 입지적 특성에서 보듯이, 하천변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범람시에는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출토유물도 공이 홈돌 등 1차 가공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음용수 취수 관련, 채집물의 1차 정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Ⅱ유형 중 상예동 바위그늘유적 2호에서는 완형의 고내리식토기 1점과 인골편 등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주변에서는 곡옥(曲玉) 등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병자의 격리처로 활용되거나 이후 무덤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의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은 Ⅱ유형의 창고천바위그늘유적을 들 수 있다. 청고천바위그늘 유적의 입지는 창고천이 'S'형태로 곡류하는 선단부 단애의 중간에 형성된 바위그늘에 형성되어 있다. 단애의 하단에는 비교적 많은 수량을 보유한 웅덩이가 있고 단애의 상부에는 창고천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창고천에서 절벽과 단애가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곳이며 하천을 따라 약 1km 아래에는 제주도 탐라시대 대표 취락유적인 '화순리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단애 상단부에는 화순리유적에서 출토되는 다수의 토기편이 제사유적의 특징에서 볼 수 있는 자잘하게 부서진 형태로 퇴적되어 있다. 유적이 위치한 입지와 주변 고인돌과 취락유적, 유물의 퇴적양상을 종합할 때 화순리유적과 제의장소로 추정할 수 있다.

Ⅲ유형의 대부분은 용암동굴을 이용한 유적으로 해안을 조망하면서 내륙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 특히 야외주거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내의 문화층은 여러 시대에 걸친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고 출토유물 또한 다량의 토기류와 동물뼈류, 어패류가 확인된다. Ⅲ유형의 동굴은 자연적인 항온·항

습이 이루어지는 비교적 긴 동혈이 있는 공통점이 있다. 신천리 한못궤유적은 동굴 내부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장용구인 토기는 소량 출토되는 반면 패각의 채취에 필요한 전복 껍데기를 가공한 빗창과 다량의 전복도 확인되었다. 해산물 정리 장소 또는 해안과 내륙에서 획득된 음식물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유형 중에서도 제의와 관련한 유적을 찾을 수 있다. 대표유적으로 김녕 궤네기굴유적과 용천동굴유적을 들 수 있다. 김녕 궤네기굴유적은 입구부에 다량의 동물뼈 편이 퇴적되었는데, 특히 두개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동물뼈의 비율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제의(祭儀)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용천동굴은 제주도 탐라시대후기의 대표적인 제사유적이다. 동굴전체에서 유물이 확인되고 있지만 동굴의 북쪽 끝에 자리한 깊은 웅덩이와 호수에 유물이 밀집되어 있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액체를 담는 병(甁)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당시 이 병 종류는 일상용기 보다는 제기(祭器)로 자주 이용되던 그릇이다. 한편 용천동굴과 연결된 김녕사굴은 뱀과 관련한 제물을 받치던 전설이 있는 곳으로 과거 제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제의 및 대피장소의 기능은 Ⅴ유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유적으로는 1개소이지만 향후 유적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유적이 '한라산 수행굴'유적이다.

이 유적은 해발 1380m의 한라산체 남사면에 자리한 유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유적주변 지형은 한라산의 급경사 부분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불리한 지형 및 기후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 유적과 연관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사시대유적은 제주도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탐라시대 취락유적인 '강정동유적'이 있다. 유적에서는 소량의 토기편과 마제석기편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 한라산 등반 또는 의례관련 은신처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 동굴유적은 제주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데, 유적의 입지, 출

입구의 방향, 유물의 집중분포 위치, 야외유적의 공반관계를 토대로 할 때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용측면을 보면 신석기시대에는 주로 Ⅲ형과 Ⅳ유형이 주거용으로 이용되었고, 야외주거지가 축조된 청동기시대 이후에는 야외유적지와 관련하여 Ⅰ, Ⅱ, Ⅲ유형이 상주가 아닌 특수목적용으로서 무덤 및 제의, 획득물의 분류 및 도구의 공동보관, 혹은 사냥의 거점지나 격리처 등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가능성만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연구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동굴유적이 가지는 역할과 용도 등에 대한 분석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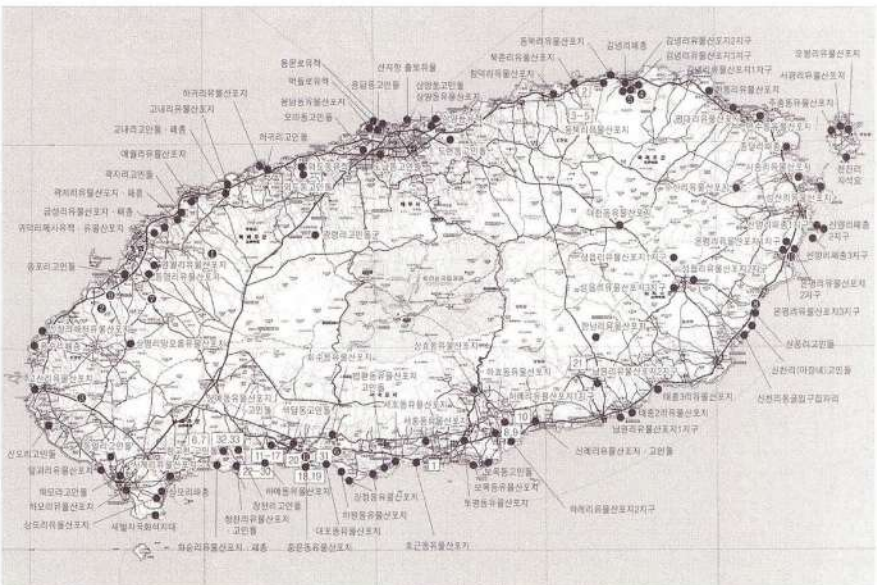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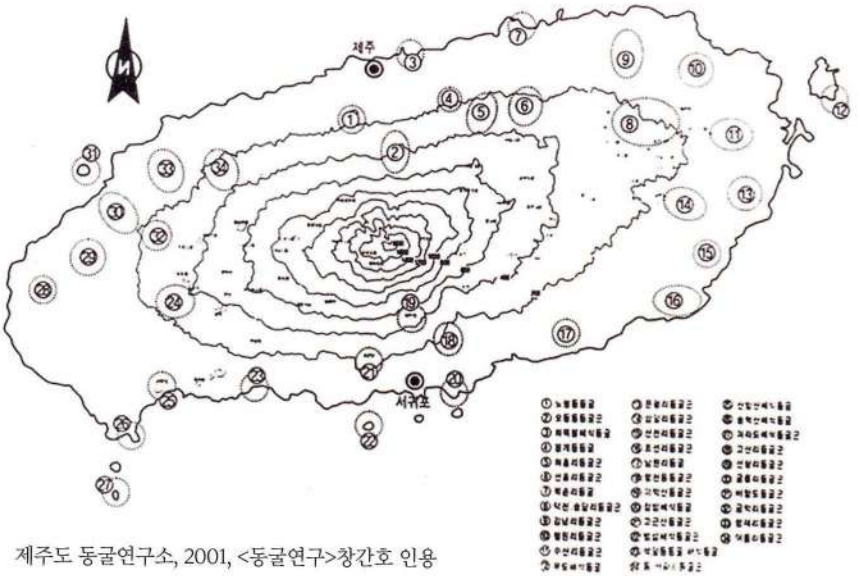


그림 3-16. 제주도동굴유적 및 야외유적 분포도



제주도 동굴연구소, 2001, <동굴연구>창간호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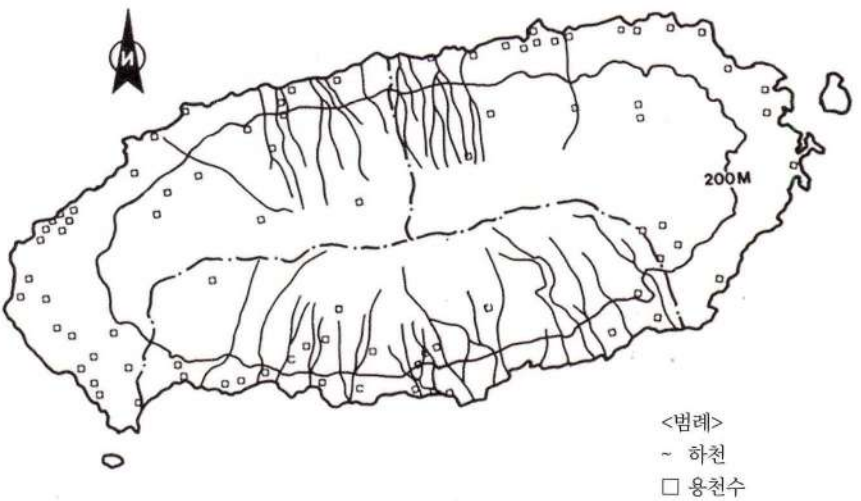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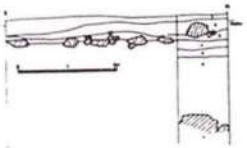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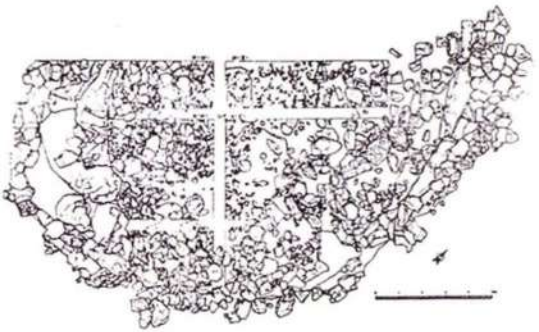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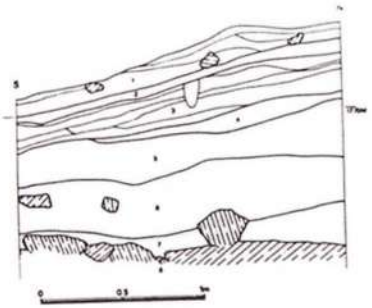
그림 3-17. 제주도 천연동굴 분포도 및 용천·하천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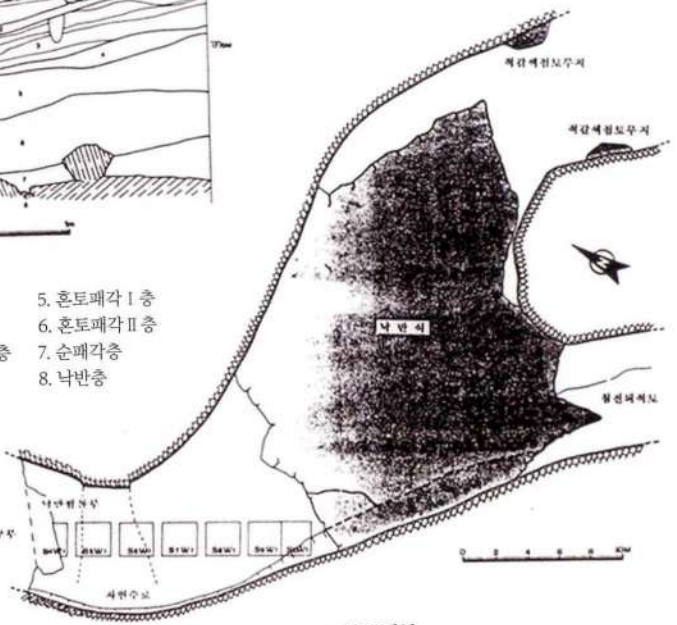
1. 표토층
2. 흑갈색부식토층
3. 흑갈색점토층
4. 황갈색점토층
5. 황갈색점
6. 생토층



함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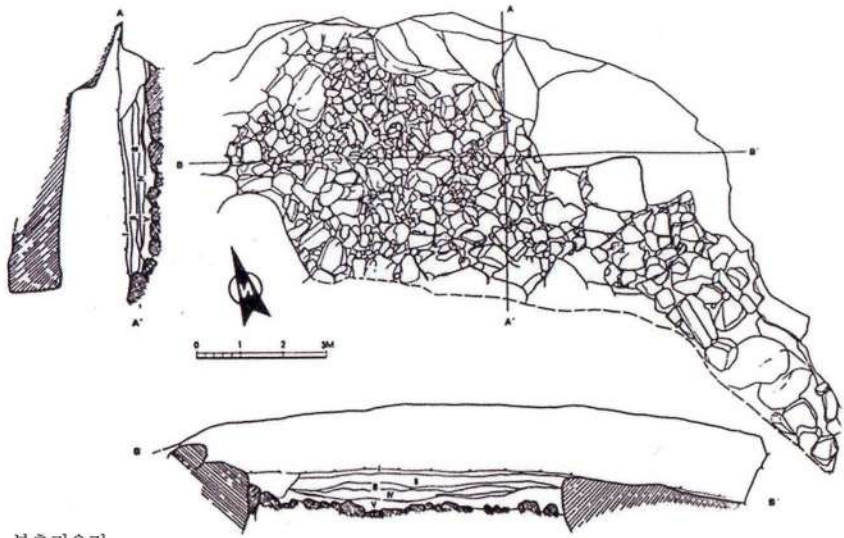


1. 표토층
2. 명갈색점토층
3. 흑색혼토패각층
4. 흑갈색점토층
5. 혼토패각 I 층
6. 혼토패각 II 층
7. 순패각층
8. 낙반층



동굴내부

그림 3-18. 신천 한못궤굴유적 평면·층위도



북촌리유적
Ⅰ. 표토층 Ⅱ. 갈색사질토층 Ⅲ. 흑갈색점토층 Ⅳ. 갈색점토층 Ⅴ. 갈색사질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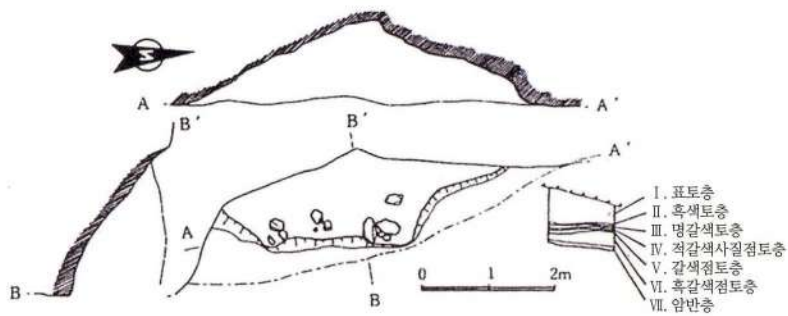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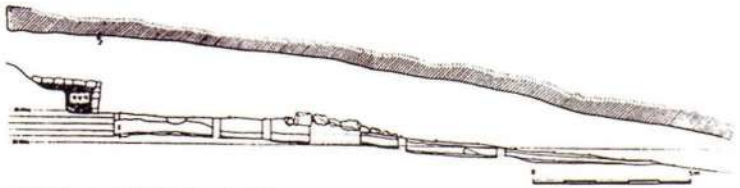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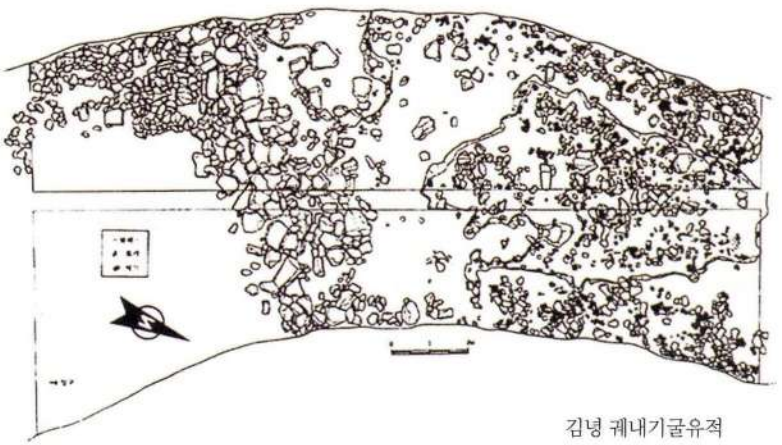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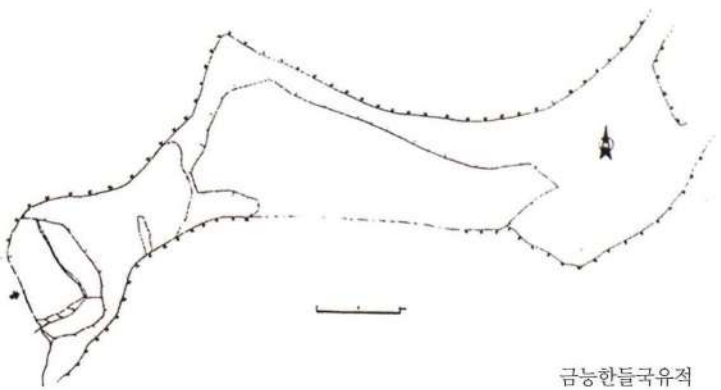
그림 3-19. 각 유적의 평면·층위도



1. 표토층 2. 흑갈색토층 3. 재층



김녕 궤내기굴유적



금능한들국유적

그림 3-20. 각 유적의 평면·층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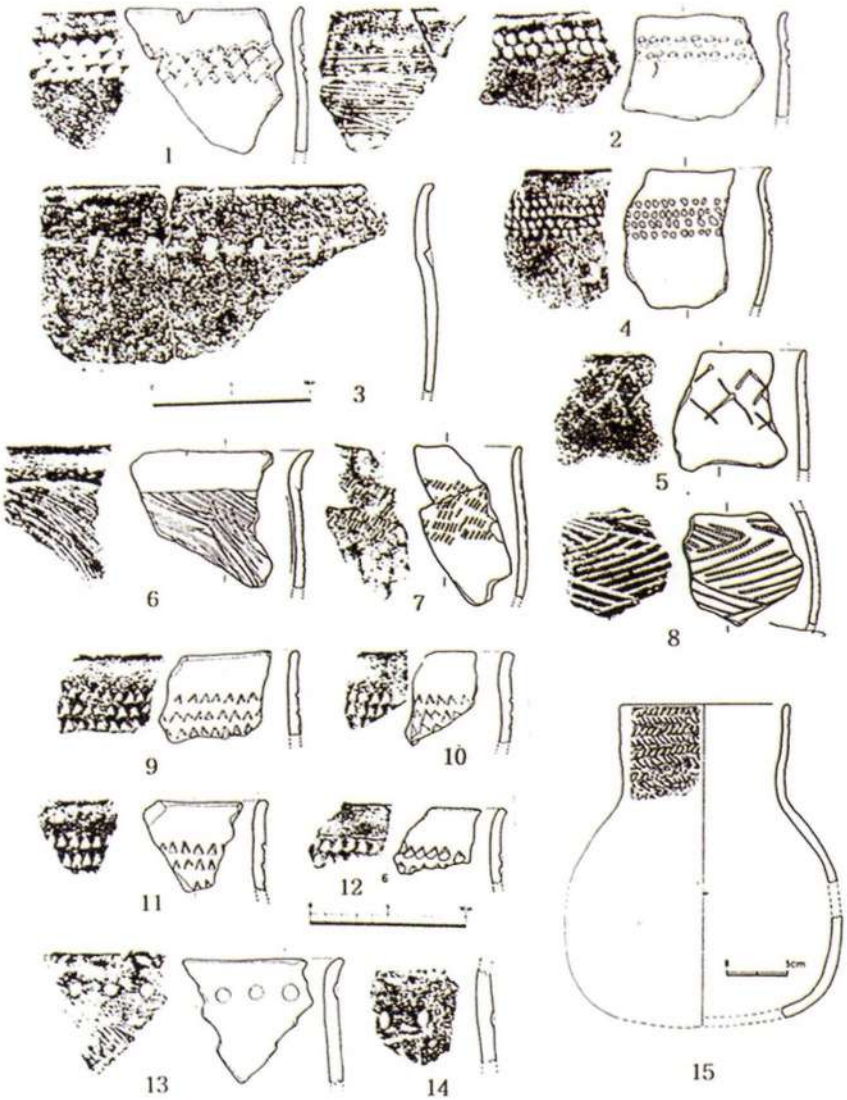


그림 3-21.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토기류(북촌리:1~8, 한들굴:9~14, 고상동굴유적: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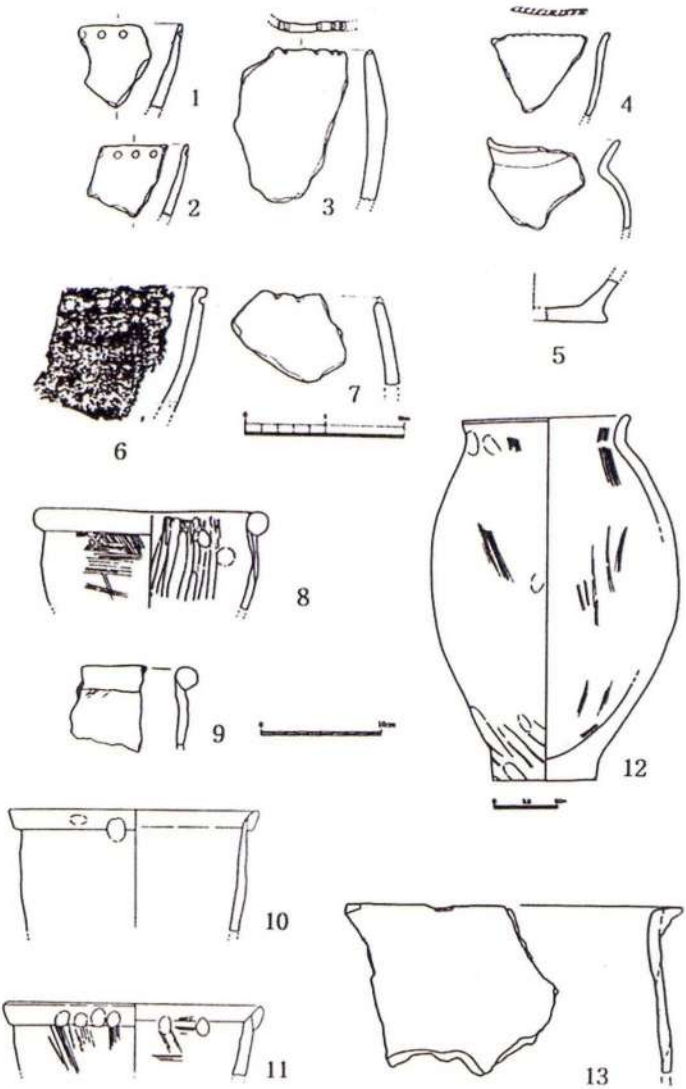


그림 3-22.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토기류(북촌리:1~7, 오등이궤:12, 묘산봉동굴: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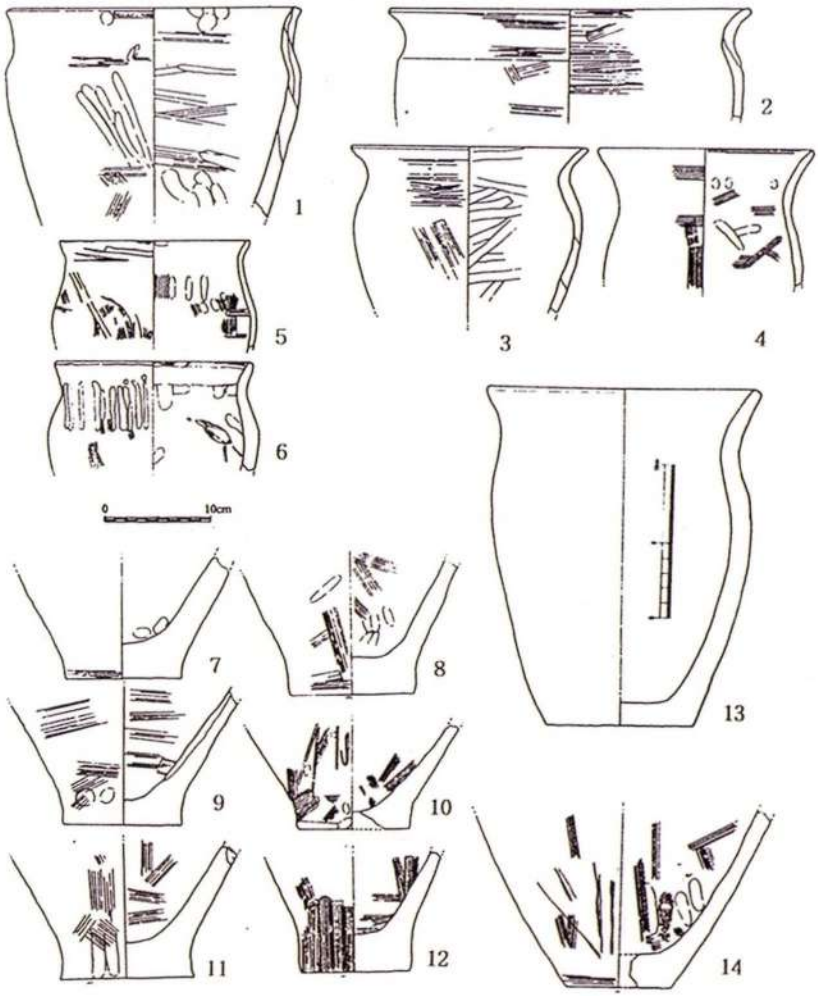


그림 3-23.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토기류(김녕궤네기굴:1~12, 북촌리: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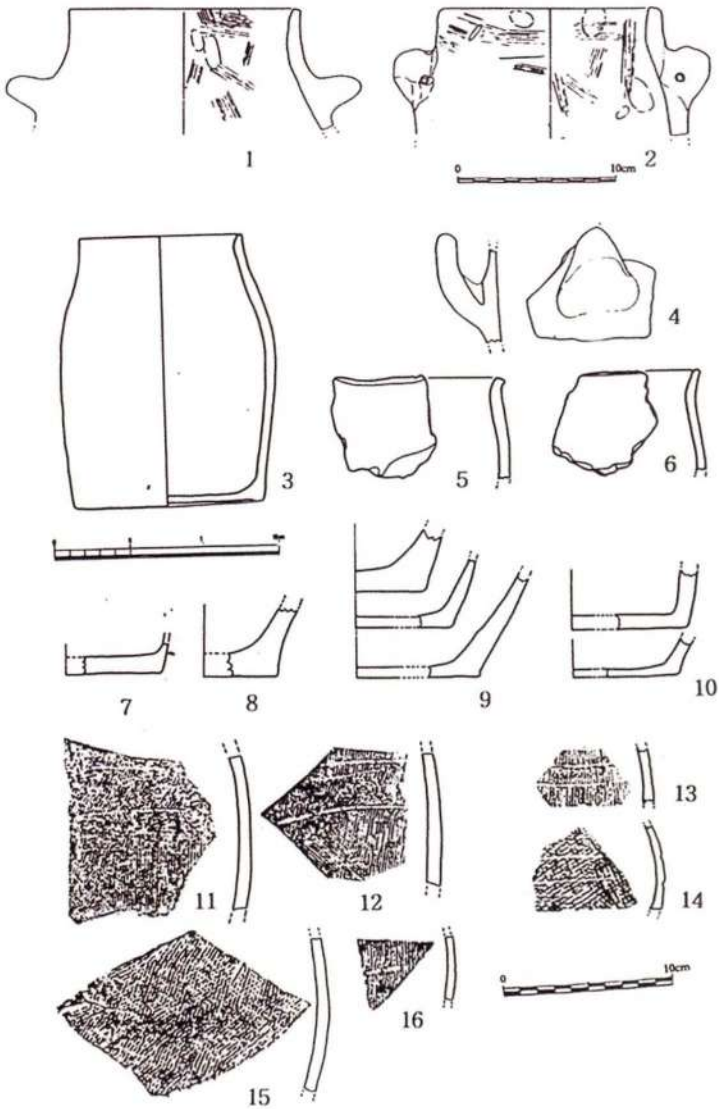


그림 3-24.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토기류(궤네기굴:1~2·11~16, 상예동바위그늘유적2호:3·5~10, 북촌리:4·13·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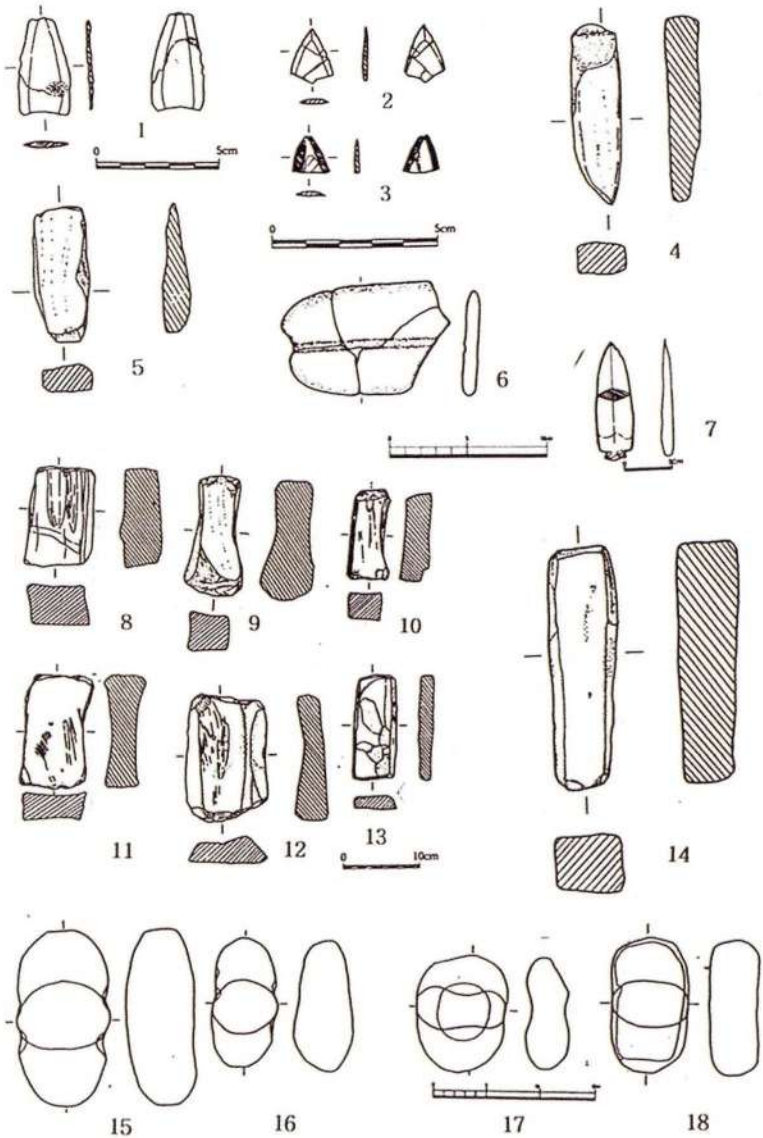


그림 3-25.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석기류(궤네기굴:1~5.8~14, 한들굴:6, 대포동오등이궤:7, 하예리바위그늘: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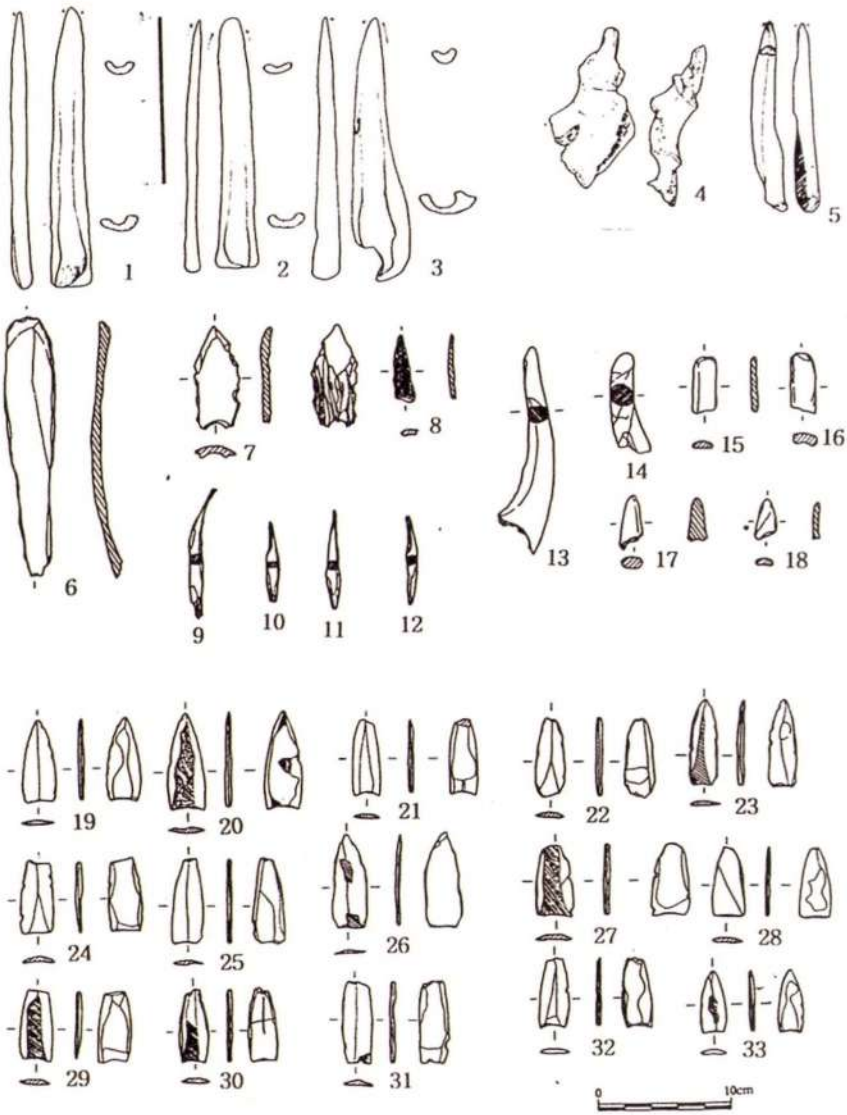


그림 3-26. 제주도 동굴유적 출토 골각기 및 기타(북촌리:1~3, 한남리바위그늘:4~5, 궤네기굴:6~33)

한라산총서 3

한라산의 역사와 유적

제4장
제주도내 오름과 일제군사유적

여 백

제주도내 오름에는 거의 빠짐없이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군이 파놓은 참호 및 갱도진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대부분은 1945년 일제의 '결(決)7호 작전'에 따라 일본 본토 수호를 위한 '옥쇄(玉碎)작전'을 상정해서 미군과 최후의 일전을 펼칠 목적으로 파놓은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목마장으로, 19세기 후반부터는 화전으로 활용되던 오름 일대에 삽과 곡괭이, 다이너마이트가 동원되어 미로와 같은 갱도가 뚫리면서 삽시간에 오름은 내부에 심한 상처를 안게 되었다.

오름 속을 관통하는 갱도는 몸체 한라산의 혈관을 할퀴어버린 상처 자국이 되었다. 인간과 자연을 말살하는 전쟁을 일으킨 인간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 모습을 오름은 간직하고 있다. 오름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60여 년의 세월을 지내왔다. 가끔은 사람들이 이 갱도를 찾아 피해 들어오곤 했다. 4·3 당시 탄압과 학살을 피해 무장대와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오름은 자신의 상처투성이를 피난지로 내어 주곤 하였다.

이제 오름에 생채기를 낸 인간들이 그 오름의 상흔을 찾아 보듬어 줄 때이다. 일본군의 무력과 강제력 앞에 군말 없이 동원되어 고난을 겪은 징용자들 또한 오름과 더불어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온 또 다른 희생자들이다. 이들의 과거 실상을 헤아리고 그들의 역사적 기억을 되새기는 것 또한 오름을 찾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알려져 온 한라산 오름의 일본군 군사유적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7만 명 가까운 일본군 병력이 한라산 자락의 어떤 오름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들이 그 지역을 골라서 진지로 구축한 까닭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오름에 남아 있는 군사유적을 유형별·지역별로 아울러 개관해 보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

제주도 내에는 일제 말기(특히 1944년 후반부터의 '본토 결전' 시기) 일본군이 조성해 놓은 거대 군사 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일본군 군사 시설은 육군·해군의 비행장, 포대, 참호, 고사포진지, 육·해군의 훈련장 및 감시초소, 대피소, 진지동굴, 특공대기지, 비행기 격납고, 탄약고, 폭탄매립지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라산 중턱에 '머리띠를 두른 형국'이라는 뜻에서 '하치마키[鉢卷]'라는 군사도로가 만들어졌으며, 이 외에도 각 진지와 진지, 진지와 포구를 연결하는 군사도로도 요소요소에 남아 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미군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근해의 상황이 심각해졌다. 1944년 봄부터 미 해군 잠수함이 제주근해에 자주 출몰하였다. 일제는 1944년 5월 제주도비행장을 완성하여 미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1944년까지만 하여도 제주도 수비 병력은 총 200여 명에 불과했다.

1944년 10월 미군에 의해 필리핀이 점령당하자, 일제는 제주도의 방위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 1944년 12월 일본방위총사령부는 미군의 제주도 공략을 상정, 제주도를 전략상 요지라고 인식하게 됐다. 일본 군부에서는 막료를 파견하여 제주도를 시찰하게 하고, 연안진지의 요새·보루·포대·참호 등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1945년 초부터 제주도에 임시 포대의 엄호와 상륙방어를 위한 해안가 진지구축 작업이 시작되었다.

1945년 2월 9일 일본방위총사령관은 미군과의 본토 결전에 대비하여 7개 방면의 육·해군 결전작전 준비를 명령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 방어작전으로서, 이른바 '결(決)7호 작전'이다. 1945년 4월 15일 제주도 방비 강화를 위해 제58군사령부가 신설 편성되었으며, 일본 본토의 부대와 만주의 관동군 등을 포함하여 종전 직전까지 4개월 사이에 무려 7만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제주도에 집결하였다. 제주

도를 미군의 침공으로부터 사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일본군 7만 대군은 제주도 전역을 요새화 하였다.

일본군은 8월이 되면서 해안선을 포기하고 중산간 지역 오름 일대로 옮겨갔다. 일본군은 이때부터 지구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해안선을 통한 미군의 상륙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중산간 지역에서 유격전을 통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다 죽겠다는 '옥쇄(玉碎) 작전'을 계획하였다.

당시 제주 주둔 제58군 사령부의 총지휘에 놓여 있던 부대는 제58군 직속부대,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 제12포병사령부, 해군부대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부대의 구체적인 병력 배치 현황, 무기 및 장비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군 방위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당시 일본군 기밀문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1] 이 기밀문서에는 제주도 주둔 각 부대병력의 이동 및 배치 상황, 각 사단 예하부대의 편제, 인원, 마필, 자동차 수량, 주요병기 현황 등이 상세히 밝혀져 있다. 또한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군사시설 관련 지도, 도표 등이 수록됨으로써 일본군 군사시설유적을 해명하는데 1차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필자는 해방 직후 일본군 무장 해제를 담당하였던 미군정의 다양한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미군은 9월 28일 제주도에 특별히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 해제를 담당할 '항복접수팀'과 '무장해제팀'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이 남긴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또한 1945년 8월에 일본군이 작성한 두 장의 지도(〈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 마찬가지로 1945년 9월에 주한미육군사령부의 주간정보요약에 수록된 두 장의 지도(〈일본 제58군 방어진지 위치도(1945. 9. 25.)〉, 〈일본군 병력배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도 내에 산재한 일본군 군사유적의 현재 위치

1) '일본 15년전쟁연구소' 츠카사키 마사유키 선생의 도움으로 자료를 입수하였음을 밝혀둔다.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표시한다.

를 현장 조사를 통해 비정하여 보았다. 이들 지도 가운데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는 제주도 내에 산재한 각 진지의 위치와 개별 성격(주저항진지/복곽진지/전진거점/위장진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지도는 실제 지도와 맞추어 볼 때 진지 및 병력이 있는 거점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지도이다.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는 일본군이 예상한 미군의 제주도 상륙 지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제주도의 권역별 진지 성격(복곽진지/주진지/공세준비진지/유격진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군이 작성한 〈일본 제58군 방어진지 위치도(1945. 9. 25.)〉는 위 일본지도가 표시하지 못한 각 사단 및 여단 예하 보병연대·대대, 공병부대, 야전병원 등과 독립포병부대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어서 각 지역별 부대 배치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군의 〈일본군 병력배치도〉는 제주도 내 일본군 참호진지와 갱도진지 분포 지역을 구분하여 놓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완성된 갱도진지만을 표시하여 놓았기 때문에 해방 직후 일본군의 갱도진지 구축작업의 진척 상황 및 현재 보존상태와의 비교를 시도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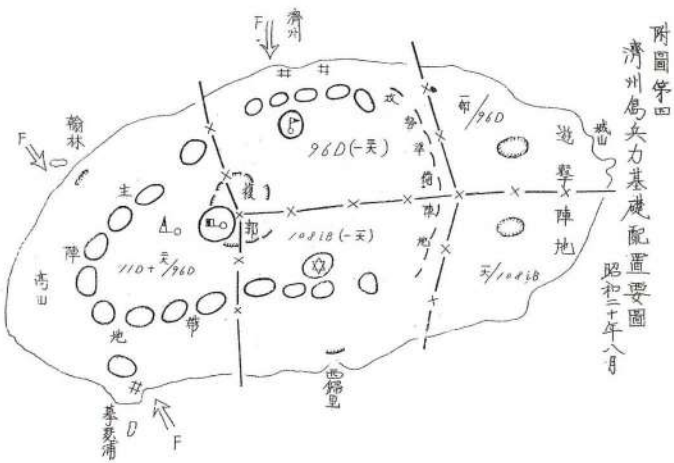


그림 4-1.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

그림 4-2. 제58군 배비개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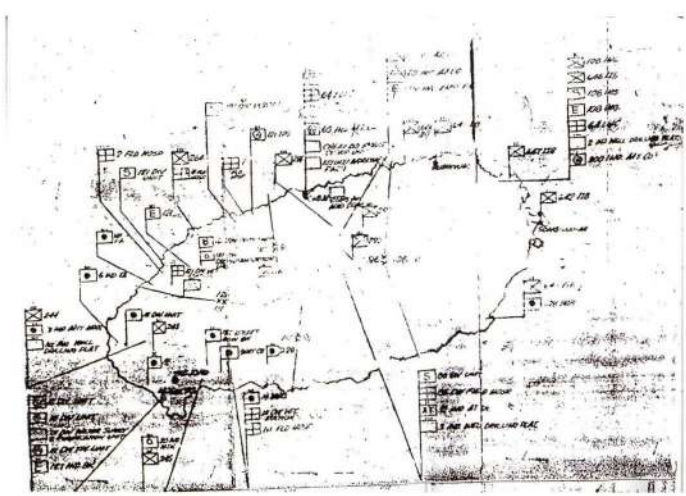


그림 4-3. 일본군 병력배치도(미군정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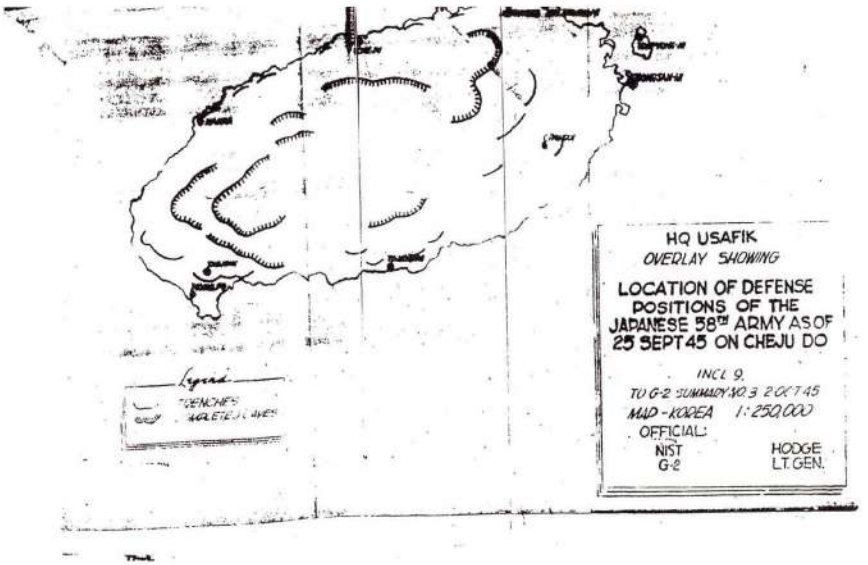


그림 4-4. 일본 제58군 방어진지 위치도(1945.9.25.;미군정보고서)

일본 방위청 소장자료와 미군정이 남긴 각종 보고서에는 제주 주둔 일본군의 배치 현황, 일본군의 구성, 무기 장비 실태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미군정 보고서에는 특히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 해제, 일본군이 남긴 장비와 군사시설의 처리, 일본군의 철수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선 일본 방위청 소장자료인 〈조선에서의 전쟁 준비〉와 〈기밀전보철〉 등을 통해 제58군 사령부를 비롯해 각 사단 및 여단 병력의 제주도 배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 제96사단(사단장 중장 飯沼守 이이누마 ; 玄부대)

제96사단은 제주도 방어에 대비하여 혼성여단을 개편한 것으로서 편성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수비가 시급하여 편성된 직후 곧바로 제주

표 4-1. 제96사단

부대명	편제대요	인원	마필	자동차	주요병기
사령부		302		10	LG 2, MG 2
보병연대 292/293/294 3개	3대(9중, 3MG중) 1A중, 작업중	2,432	11		MW 85, LG 81, MG 31, iA 6
사단박격포대		577	271		중박 18
사단공병대	2중	426			
사단통신대		189			
사단야전병원		305		3	

(※ 약어 풀이: LG 경기관총, MG 기관총대, A 야포병, TL 통신중대, MW 척탄총, TA 속사포대, iA 보병포대, RiA 연대포대)

도에 진주시키게 되었다. 1945년 3월 하순 제주도 파견의 군 명령을 하달받았다. 당시 제주도에는 이미 유수제30사단의 일부 부대에 의해 축성[진지구축] 작업을 개시하고 있어서 한동안 유수제30사단장의 지휘하에 편입되어 있었다.

제주도 내 모든 부대는 제96사단에 배속을 변경시켜 여수 요새사령관의 제주도 방위 임무를 해제시켰다. 제96사단은 3월 하순에 편성지를 출발하여 4월 3일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독립속사포 제32대대가 배속된 제96사단은 제주도 상륙 후 주력을 제주지구(산천단 일대)에, 일부를 모슬포지구에 주둔시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지구축 작업을 계속하였다. 뒤에 제58군 사령부가 제주에 신설되면서 그 예하에 편입되었다.

■ 독립혼성 제108여단(여단장 소장 히라오카 츠토무 ; 翠부대)

독립혼성 제108여단은 4월 중순 제주도에 상륙하여, 제96사단장의 지휘 하에 편입되었다. 제108여단은 장교 이하 사병에 이르기까지 연장자가 많았다. 사령부는 검은오름·부대오름 일대에 주둔하며 제주도 동부지역을 관할하였다.

■ 제58군 사령부(사령관 중장 永津佐比重, 뒤에 遠山登 도야마 노보로 ; 砦부대)

1945년 4월 제주도의 독자적 방어를 위해 제58군 사령부를 신설했다. 제주도의 배치와 아울러 작전 지도에 관해서는 제58군 사령관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제17방면군의 작전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58군사령부의 편성이 완결되자 사령부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제주도 소재의 병단 이하를 사령부의 지휘 하에 편입시키도록 하였다. 사령부는 4월 20일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제58군 직할부대로는 독립(臼砲)제23대대, 분진포제1대대, 전신제11연대, 제1·제3독립작정소대, 전차1중대, 야전중포병연대의 1중대, 제1특설근무대 등을 두어 병단의 수송과 병행하여 4월 내지 5월 사이에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한편 공병대사령부를 따로 편성하여 제58군의 진지구축 작업을 원조하기 위해 제주도에 파견되었다. 제주농업학교에 주둔하다가 1945년 7월 4일 어승생오름으로 이동 주둔하였다. 제주도 주둔 일본군 부대를 총지휘하였다.

표 4-2. 제111사단

부대명	편제대요	인원	마필	자동차	주요병기
사령부		245	17		MW 1, LG 2
보병연대 243/244/245 3개	3대(9중 1MG중 1iA소) 1A중 1TL소 1승마소	3,454	734		MW 85, LG 84, MG 24, iA 6, RiA 8
사단포병대	1대 (3중, 1대대단열)	540	476		10H 12
사단공병대		288	43	2	
사단통신대		207	40		
사단치중대	2만차중	1,022	472	119	LG 5
병기근무대		112		8	
제1야전병원		277	97		
제4야전병원		284	83		
방역급수부		239		29	
병마창		119	45	2	

■ 제111사단(사단장 중장 岩崎民男 이와사키 도미오 ; 市부대)

1945년 4월 중순부터 만주로부터 직통으로 제주도에 이동 배치되어 제58군의 예하에 편입되었다. 5월 상순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사령부는 당오름·원물오름 일대에 주둔하며 제주도 서남부 지역을 관할하였다. 미군의 상륙지점으로 예상되는 제주도 서남부 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가진 주력부대였다.

■ 제121사단(사단장 중장 正井義人 마사이 요이히토 ; 榮光부대)

1945년 5월 만주 하얼빈으로부터 대전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6월 상순으로부터 6월 중순에 걸쳐 제주도에 파견되어 제58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편입되었다. 사령부는 발이오름·노꼬메오름 일대에 주둔하며 제주도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였다.

표 4-3. 121사단

부대명	편제대요	인원	마필	자동차	주요병기
사령부		195	17	21	MW 1, LG 2
보병연대 262/263/264 3개	3대(9중 1MG중 3iA소) 1iA중 1TL중 1승마소	3,409	734		MW 85, LG 84, MG 24, TA 2, RiA 2
사단제독대		187		20	
야포병연대121	3대(9중3대대단열) 1연대단열	1,923	1,464	2	A 27, LG 4
공연연대121	3중 1기계소	961	125		LG 3
사단통신대		239	44		
치중병연대	3만마중, 1자동차중	1,041	472	119	
사단병기근무대		112		9	
사단병마창		125	45	2	
사단위생대	3담중, 1차량중	1,109			
사단야전병원124		277	79		
사단방역급수부		239		29	

(인원 13,000, 자동차 160, 마필 2,800)

■ 기타

전차연대가 몽고로부터, 박격포대대가 북중국으로부터 제주도로 이동 배치되어 제58군의 예하에 편입되었다.

〈제주도 병력 증가 추이〉

1944년 6월 : 수비대 및 기타 병력 포함 총병력 약 3백 명에 불과

1944년 7월 : 비행장 중대 및 기타 병력 배치, 총병력 약 1천 명

1945년 2월 중 : 평사작업대 배치, 총병력 약 3천 명

1945년 3월 중 : 96사단, 108여단 배치, 총병력 약 2만 명

1945년 4월 중 : 111사단 및 기타 병력 배치, 총병력 약 3만6천 명

1945년 6월 중 : 121사단 및 기타 병력 배치, 17방면군 직할부대 병력 배치, 총병력 약 6만5천 명

1945년 7~8월 : 총병력 약 7만5천 명

결국 제주도에는 1945년 초까지 1개 사단이었다가 1945년 8월 해방 직전에 3개 사단 1개 여단의 강력한 병력을 구축하였다. 제58군은 주진지선을 해안 근처로 잡았고, 관동군 제111사단 및 제121사단 등 주력을 제주도 서쪽 방면으로 결집시켜 공세 병력으로 삼았다. 아울러 제58군은 진지 구축에 전력하여 7월에는 골간이 되는 진지를 이미 구축하였다. 7월 이후로는 훈련과 진지구축을 병행하며 작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데 매진하였다. 이 기간에 제64병참병원, 독립야포병연대의 일부, 제41건축근무중대가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

7월에 들어와 전세가 긴박해지자 대본영은 다시금 1개 사단을 제주도에 증강할 것을 적극 검토하였다. 조선 주둔 제17방면군은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대본영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① 제주도에서 작전 목적은 적의 공해 기지 설정의 기도를 깨뜨리는 것이지만 작전 초동에 있어서 공세를 시도하는 적을 격멸하는 작전을 시도한다.

② 제17방면군 사령관은 1사단 기간 병력을 남조선에 준비하고 제주도에 대하여 적의 침공이 확실시되면 적정한 때에 제주도에 투입하여 제58군 전력을 증강시킨다.

이에 대하여 제17방면군은 7월 하순경 정세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8월 중순 새로운 사단을 제주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곧바로 8월 5일 대구 주둔 제120사단의 파견 준비를 명령하였다. 제120사단은 급거 전진을 준비하고 8월 13일부터 승선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8월 15일 전쟁이 끝나게 되자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한편 미군정 보고서(주한미육군사령부 주간정보요약, G-2 Weekly Summary)에는 제주도 주둔 일본군 주요 부대 및 병력 현황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제58군 : 제58군은 1945년 4월 제주도에서 섬의 모든 군을 총괄하는 사령부 조직으로 편성됐다. 도야마 노보루 중장이 사령관이다.

제96사단 : 제96사단은 1945년 3월 서울 부근에서 활동했으며 4월 이후에는 제주도 북부지역을 경비하고 있다. 병력은 8,603명으로 적은 편이다. 사령관 이이누마 중장이 일본으로 전출된 뒤 다마다 요시로 중장이 공백을 메웠다.

제111사단 : 1944년 7월 만주에서 활동했던 제111사단은 1945년 5월 제17방면군 휘하로 편입된 이후 제주도 서부해안을 경비하고 있다. 사령관은 이와사키 도미오 중장이다.

제121사단 : 제120사단과 함께 만주에서 활동했던 제121사단은 5월 제17방면군 휘하로 편입된 이후 제주도 서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사령관은 마사이 요시토 중장이다.

독립혼성 제108여단 : 독립혼성 제108여단은 1945년 5월 (규슈의) 서부관구군 휘하에서 활동하다 경계임무를 위해 제주도 동부지역으로 이동했다. 5개 대대로

구성됐으며 사령관은 히라오카 츠토무 소장이다.

다음은 종전 때까지 제주도에 증강된 병력 추이 및 부대명칭이다.

표 4-4. 제주도부대 일람표(1945.8.15.현재)

부대명	편제·장비 개요	인원개수	원래소속부대
제59군 사령부		370	경성에서 신설
제96사단	보연3개(3대, 보포중, 작업중), 박격 3중, 공 2중, 통, 야병	9,000	일본에서 신설
제111사단	보연3개(3대, 보포중, 통중, 승소), 포 3중, 공 2중, 통, 輜(만 2중,, 자 1중), 병동, 위생, 야병 2개, 방급 소, 마창	12,000	관동군
제121사단	보연 상동, 야연(3대, 3중), 공 3중, 輜(만 2중, 자 3중), 통, 병동, 마창, 제독, 위생, 야병 3개, 방급	13,000	관동군
독립혼성108여단	보대 6개(4중), 포(박격 2중, 야포 1중), 공, 통	6,000	일본 중부군
독립전차 제14중대		120	
독립속사포 제32대대	3중, 단열/47㎜ TA12	480	
분진포 제1대대	3중, 단열/20㎝ FU 36	850	중국파견군
박격포 제29대대	12㎝ LM 36	1,400	
독립구포 제23대대	2중, 단열/구포 16	640	관동군
제12포병사령부		120	
독립야포병 제6연대	3대(야포 2중, 10輜 1중), 단열/A24, 10H 12	2,100	
독립산포병 제20연대	3대(3중), 단열/BA 36	2,900	
야전중포병 제15연대	3중, 단열/ 15H 12	1,100	
독립주유포병 제9중대	15K 2	110	
독립고사포 제59중대	10AA 4	120	
독립고사포 제60중대	10AA 4	120	
전신 제11연대	유선 2중, 무선 1중, 재료청	850	북중국방면군
독립공병 제126대대		890	

부대명	편제·장비 개요	인원개수	원래소속부대
독립공병 제127대대		890	
제1독립작정소대		40	관동군
제2독립작정소대		40	관동군
제3독립작정소대		40	관동군
독립자동차 제300중대		180	
독립輜重兵 제65대대		400	
제1특설근무대본부		20	
특설근무제4중대		660	
특설근무제5중대		660	
특설근무제6중대		660	
특설근무제7중대		660	
특설근무제8중대		660	
특설근무제9중대		660	
특설근무제10중대		660	
특설근무제11중대		660	
특설근무제12중대		660	
특설근무제13중대		660	
특설육상근무 제110중대		20	
제64병참병원		400	
계		74,781	

(출처 : 〈조선에서의 전쟁준비〉 등 일본군 자료)
(※ 약어 풀이: TA 속사포대, LM 경박격포대, H 유탄포, BA 산포병, K 기병, AA고사포병)

부대	장교	하사관	사병	전체
제58군 직할부대				
제58군사령부	57	79	141	277
전신 제11연대	23	92	679	794
제1특설근무대(특설근무대제4~제13중대)	13	135	307	455
제64병참병원	25	31	99	155
지구(제58군) 건축근무대	6	13	-	19
일본대본영 전신부대 예하의 1개 부대	2	7	38	47
해주병참부 제4이동병참 수리대	2	1	54	57
제5항공군	27	87	551	665
제24항공정보통신대, 1개 분대				-
제57비행장대대				-
제247비행장대대				-
제14대공무선대, 1개 분대				-
제4기상연대, 1개 소대				-
제8항측원조연대, 1개 분대				-
서부항로부, 1개 부대				-
제96사단 및 예하 부대				
제96사단	324	1,389	6,740	8,453
독립대전차 제32대대	16	56	381	453
독립전차 제14중대(원래 제12전차연대 소속)	9	46	65	120
독립공병 제126대대	18	20	36	74
독립고사포 제59중대	4	6	25	35
독립고사포 제60중대	3	4	25	32
특설육상근무 제110중대	2	3	23	28
제3독립 作井 소대	1	7	16	24

부대	장교	하사관	사병	전체
제111사단 및 예하 부대				
제111사단	414	1,574	9,791	11,779
독립박격포 제23대대	4	71	559	644
로켓포 제1대대	26	115	691	832
독립공병 제127대대	17	32	49	98
제1독립 作井 소대	1	7	21	29
제37(원래 제36) 항공정보대, 1개 부대	9	8	35	52
제121사단	512	1,618	12,988	15,118
독립혼성 제108여단 및 예하 부대				
독립혼성 제108 여단	224	672	5,102	5,998
독립 輜重兵 제65대대	7	30	362	399
독립자동차 제300중대	4	20	87	111
제2독립 作井 소대	1	8	20	29
제12 포병사령부 및 예하 부대				
제12 포병사령부	11	13	34	58
독립야포병 제6 연대	64	100	466	630
독립산포병 제20 연대	74	116	733	923
박격포 제29 대대	20	42	167	229
야전重포병 제15연대	29	114	757	900
독립重포병 제9중대(이전 여수)	5	11	43	59
헌병				
헌병 파견대	2	14	26	42
보조 헌병(보병사단에 파견 근무)	11	34	246	291
제58군 전체 병력	1,966	6,541	41,112	49,619

(출처 : 주한미육군사령부 주간정보요약, G-2 Weekly Summary)

2. 오름에 남아 있는 일제 군사유적

전체 지역별·유형별 개괄

일본군의 제주도 진지 구축은 1945년 1월부터 계획되었다. 일본군 방위총사령관은 1월 중순부터 사단 막료와 함께 진지구축 공사 담당부대에 필요한 정찰반을 편성하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정찰을 실시하면서 진지구축 계획을 입안하였다. 2월 상순부터 공사부대의 수송을 개시하였고, 2월 중순부터는 세부 정찰과 아울러 진지구축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제주도에 대한 선박 수송의 지연, 진지 구축에 필요한 자재의 마련, 동원에 수반되는 요원의 교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3월 말경에는 30%의 공정 진도를 예정하였다. 일본 규슈로부터 제11공사대가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2월 상순부터 방위축성부로부터 파견된 교관이 공사 지도 기간요원인 장교 이하 80명에 대하여 동굴식 갱도(洞窟式 坑道)와 엄체식 포병 엄체(堀開式 砲兵 掩體) 공사 교육을 10일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축된 제주도 내 일본군 참호진지 및 갱도진지는 제주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는 2003년에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제주도)로 작성되었지만, 군사유적의 전체적인 역사성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지역별, 유형별 분류가 뚜렷하지 않고, 각 군사유적별 구축 인력과 주둔 부대의 병과별 특성, 조선인·제주인 배속 현황 등이 검토된 바 없다.

먼저 제주도 내 군가유적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보면, 〈제주도병력 기초배치요도〉에 그려져 있는 대로, 제주도 전역을 서부[主陣地帶], 중부[攻勢準備陣地], 동부[遊擊陣地]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부지역은 〈제58군배비개견도(제주도)〉에 특별히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주도 서부지역은 미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군사거점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 지역을 매우 중시하였고 다양한 군사시설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이 구분 방식에 따라서 제주도를 행정권역별로 나눠보면, 서북부는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서남부는 대정읍·안덕면·중문면(구), 중부는 제주시·조천읍·서귀읍(구)·남원읍, 동부는 구좌읍·성산읍·표선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각 군사유적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제58군배비개견도(제주도)〉를 보면, 본토 결전 준비를 위해서 제주도에 4종류의 진지가 마련되었다. 위장진지(僞裝陣地), 전진거점(前進據點), 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 복곽진지(複郭陣地)이다. 위장진지는 적의 포 폭격의 흡수·교란 등 적의 진행 방향을 틀리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진거점은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두고 한 부대를 파견하여, 요점이 적에게 뺏기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적에게 전개방향을 틀리게 하여 주저항진지에 접근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저항진지는 모든 진지의 골격에서 주력을 다해 방어하는 진지대로서, 보병의 항전지대와 그 후방의 주력 포병 및 그 설비로 이루어진다. 복곽진지는 주저항진지가 함락되었을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마련된 것이다.

표 4-6. 지역별·유형별 군사유적 분포 현황

지역별 (주둔부대) / 유형별	서남부 (제111사단)	서북부 (제121사단)	중부 (제96사단)	동부 (제108여단)
사령부 위치	동광 당오름	애월 발이오름	영평동 삼의악오름	교래 부대오름
위장진지(수)	2	3	5	11
전진거점(수)	5	5	6	2
주저항진지(수)	22	7	17	8
복곽진지(수)	5	1	7	-
비행장	알뜨르비행장		동·서비행장	교래리비행장
해군특공기지	송악산·수월봉		서우봉·삼매봉	일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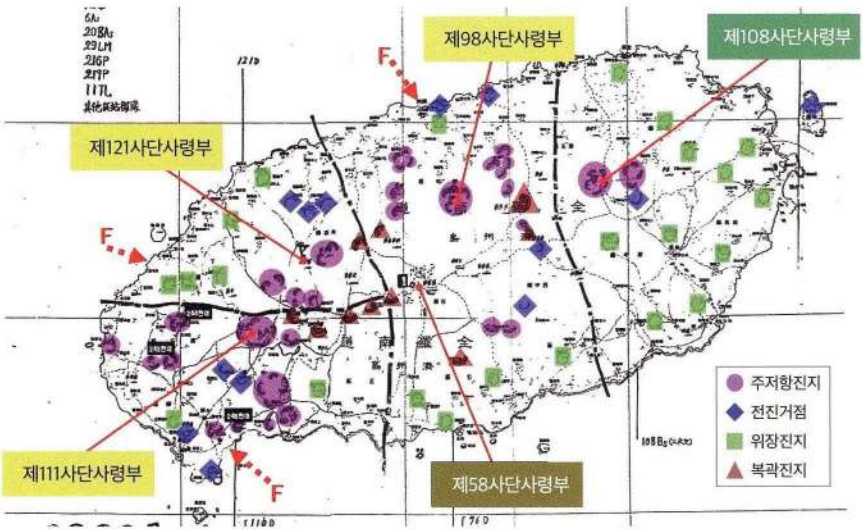


그림 4-5. 제58군배비개견도를 통해 본 군사유적 분포 형황

전체적인 구도로 보았을 때, 제111사단과 제96사단은 구속병단으로서, 각각 서남부, 북부의 해안부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북서부에 설치된 제121사단과, 제58군 직할 포병대 등의 기동결전 병단이 당도하기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는 일 없이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역별·유형별 군사유적 분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복곽진지(제58군 사령부)

■ 채(砦, 토리데)부대, 제58군 사령부 : 어승생악

복곽진지는 섬 안으로 깊숙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제58군의 사령부도 이 복곽진지의 일각으로서 어승생악에 설치되었다. 어승생악 정상에는 콘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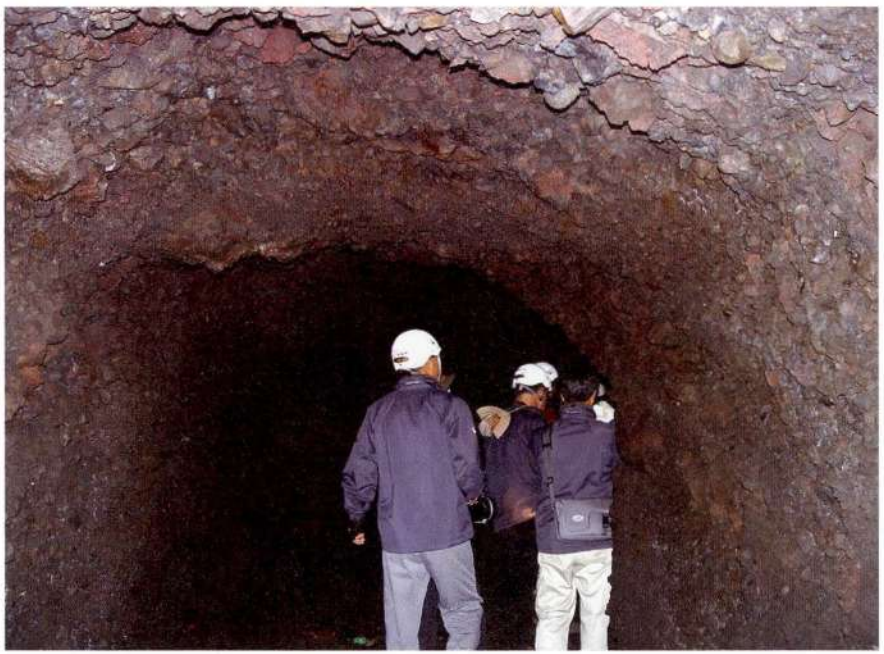


사진 4-1. 어승생악 갱도 내부

트 요새가 남아 있다. 각 요새는 개폐식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복곽진지와 내륙부의 진지를 잇듯이, 군용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군사도로가 만들어져, '하치마키(머리띠) 도로'라 불렸다.

"어승생굴은 첫 번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도[입구]가 세 개. 또 여기 이 세 개 들어가면 이 가운데 가면은 또 이것이 통로가 쫙 붙었어. 이편에 가면 큰 방이 있어. 요 방을 의지해가지고, 이거는 다 통로고, 요 방을 그걸, 예상해가지고 한거고. 또 여기로 들어가는 굴, 바로 이 도 발라 여기 이 통로에 가서 하면 위로 오름 꼭대기에 구멍을 내었어."

- 고석돈 증언(1924년생)/2005. 10. 14. 탐라문화연구소 일제군사유적 조사팀의 증언채록 인용

7월 1일, 2일에, 미야자키[宮崎] 제1부장이 스스로 제주도를 찾아와, 작전준비를 실제로 보았다. 미야자키 부장은, "금후중점을 서남부에 집약하기를 요함"이라고 메모를 남겼다. 해안부로의 전진을 역설하고, 그 대가로 병력을 증강할 얘기도 나왔을 것이다.

7월 4일, 제58군 사령부 주력부대는 한라산 북서 5㎞, 산속 깊은 표고 1,169m의 어승생악으로 이전하는데, 7월 13일, 우메즈[梅津] 참모부장은 제17방면군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 사령관에 대해, "제주도에 있어서의 작전목적은 적의 공중, 해상

사진 4-2. 어승생악 갱도 내부

기지설정 기도를 분쇄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 작전 초기에 있어 공세를 취하여 적을 격멸하도록 작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직접 명령, 우격다짐으로 해안결전으로 작전을 변경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 후, 제58군은 참모본부의 의향대로, 해안부에 배치의 중점을 옮겨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서남부

<서귀포시> 볼래오름

<안덕면> 돌오름, 영아리오름, 왕이메(왕이악) 일대

▶ 서북부

<애월면> 천아오름

▶ 중부

<제주시> 어승생(어스생이·어승생악), 개오리오름(개월오름·견월악)

<조천읍> 검은오름(물찻·흑악)

<서귀포시> 살오름(쌀오름·미악)

사단·여단사령부 및 예하부대

■ 제111사단 사령부 및 예하부대(서남부)

- 시(市, 이치)부대, 제111사단 사령부 : 당오름
- 7월말 현재 시병단(제111사단)의 주력은 산방산과 넙게오름의 선에 배치하여 약 1개 연대를 기동예비대로 삼고, 군산 북측지구에 유리하게 전개하는 상황에 따라 특기동을 준비한다.
- 독립산포병제20연대 및 박격제29대대 : 도너리오름 주변
- 독립구포 제23대대의 주력(640명), 분진포 제1대대의 주력(600명), 야전중포병

제15연대의 주력(750명) : 단산-산방산-월라봉-군산 일대에 배치

● 제111사단 예하 보병연대 주둔지

243연대 : 가마오름 일대, 244연대 : 새신오름 일대, 245연대 : 단산-산방산 일대

일본군은 미군부대가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제주도의 서남부 지역으로 판단하고 가장 정예주력부대인 관동군 제111사단 1만 2천명을 배치하였다. 사단사령부는 해안부에서 약 10㎞ 북으로 올라온 안덕면 동광리 산속으로, 현재의 이시돌 목장 남동쪽이며 당오름과 원물오름 부근에 자리하였다. 서남부 지역에는 이미 제96사단이 주둔하고 있다가 제111사단이 이동해 오면서 제주도 북부지역의 삼의악 일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1945년 4월 이후부터는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도 내 여타 권역에 비해서 참호 및 진지갱도의 구축 공정이 해방 전에 완결된 곳이 많고 지금도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유적이 많다.

● 위장진지

<대정읍> 가시오름(가스름), 섯알오름

<서귀포시-중문> 모라이(모라이악)

● 전진거점

<대정읍> 절울이(송악산), 모슬개오름(모슬봉)

<안덕면> 남송이오름(남송악)

<한경면> 당오름(당산봉)

● 주저항진지

<안덕면> 당오름(당악), 원물오름(원수악), 도너리오름(돌오름·도을악), 바굼지오름(단산), 산방산(굴산), 다래오름(월라봉), 군메(굴메오름·군산), 논오름(논악), 족은대비오

름(조근대비악), 거린오름(북오름), 넙게오름(광쳉이오름·광해악)

<서귀포시-중문> 구산봉(개오름)

<한경면> 저지오름(새오름·저지악), 이계오름(이계악), 굽은오름, 가마오름(부악)

<한림읍> 정물오름(정수악)

사진 4-3. 당오름 갱도 내부

사진 4-4. 원물오름 갱도 입구와 내부(한라일보 탐사팀 촬영)

사진 4-5. 도너리 오름 갱도 내부

사진 4-6. 단산의 갱도 위치(탐라문화연구소 조사팀 촬영, A지점은 길이 6m, 폭 1m, 높이 1.6m 정도의 일직선 갱도이며, B지점은 입구가 막혀 있어서 볼 수 없었고, C지점의 갱도는 알뜨르 일대를 관측하기에 최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음. 좌측으로는 화순 일대와 송악산이, 정면으로는 알오름과 비행장 활주로가, 우측으로는 모슬포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음.)

사진 4-7. 산방산 갱도 내부(탐라문화연구소 조사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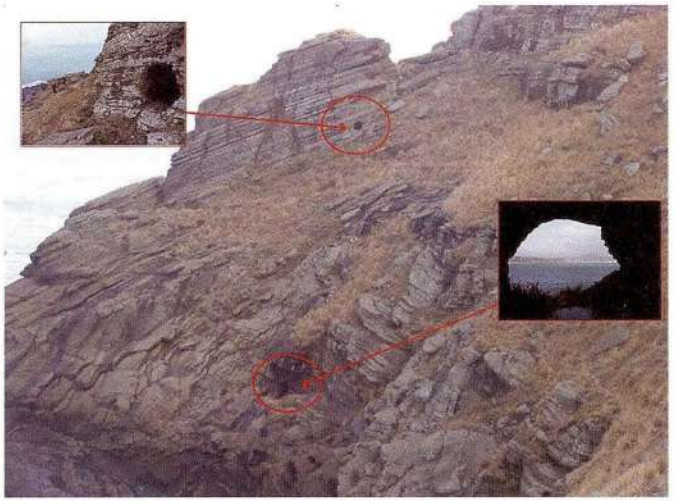


사진 4-8. 용머리 해안의 갱도 위치(탐라문화연구소 조사팀 촬영)

사진 4-9. 논오름 갱도 내부

사진 4-10. 월라봉 갱도 내부 콘크리트 구조물(탐라문화연구소 조사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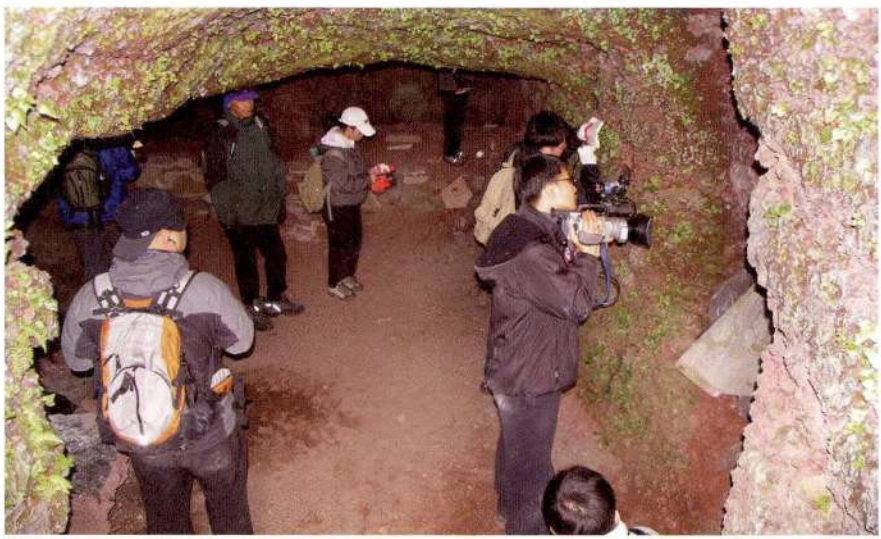


사진 4-11. 군산 갱도 내부(탐라문화연구소 조사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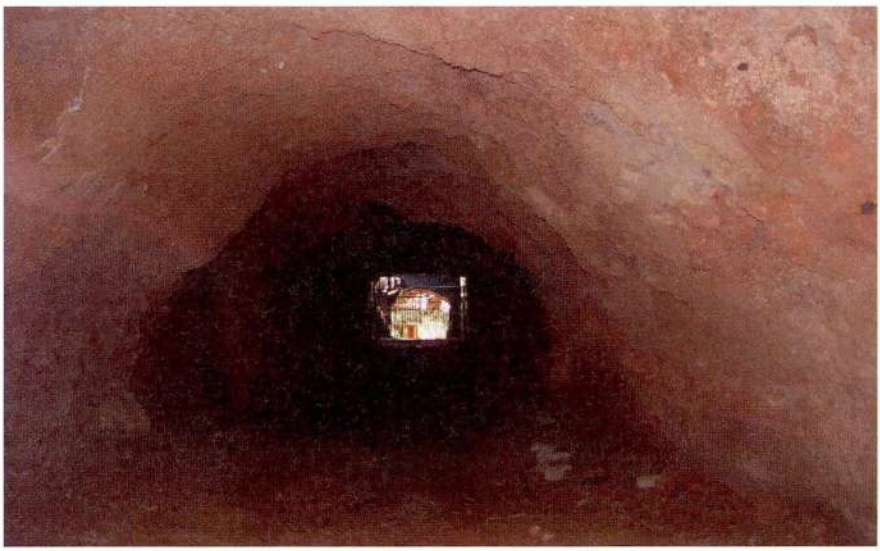


사진 4-12. 알오름 갱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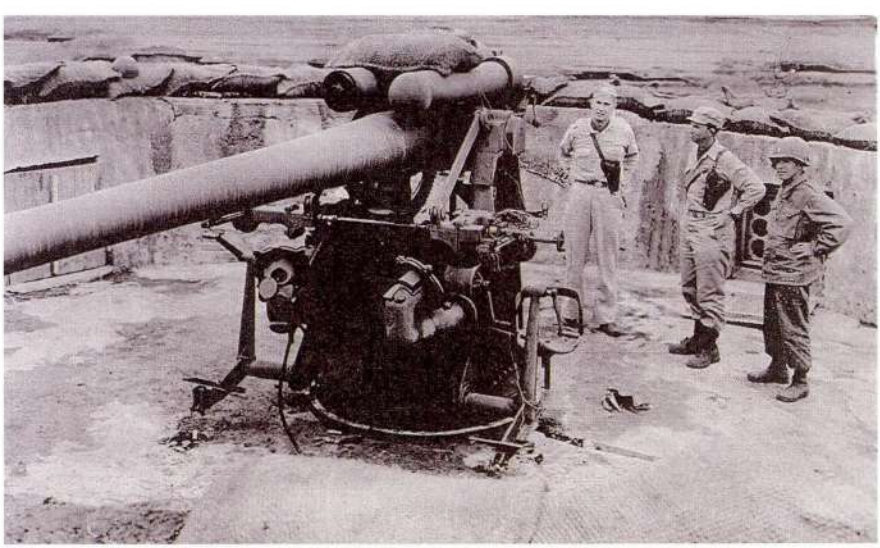


사진 4-13. 알오름 정상에서 본 송악산(중턱에 일렬로 참호가 뚫려 있음. 미군 무장해제팀 촬영)

사진 4-14. 가마오름 갱도 내부

사진 4-15. 새신오름 갱도 입구(한라일보탐사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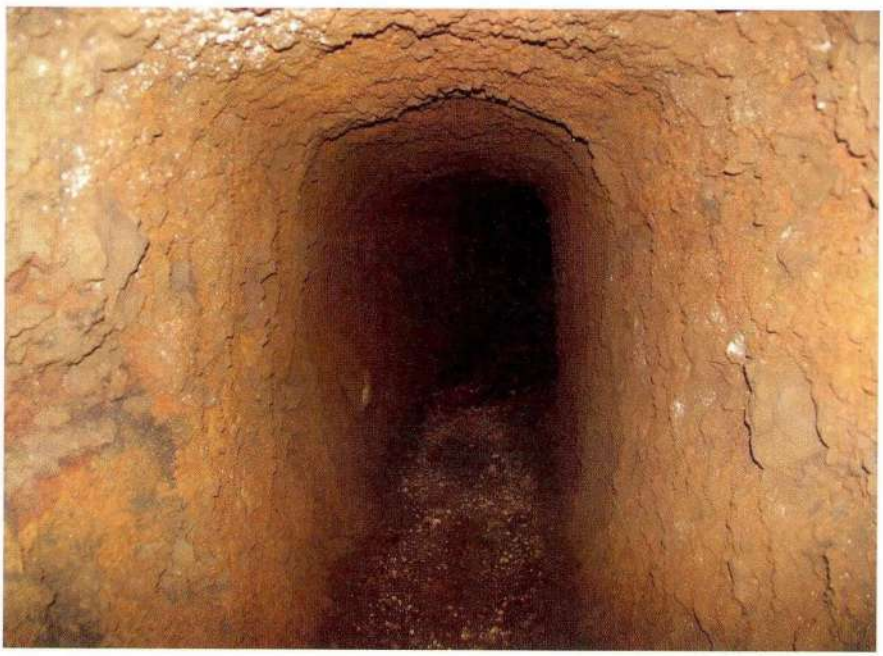


사진 4-16. 새신오름 갱도 내부(한라일보탐사팀 촬영)

■ 제121사단 사령부 및 예하부대(서북부)

- 영광(榮光, 에이코)부대, 제121사단 사령부 : 발이오름
- 제12포병사령부 : 다래악
- 7월 말 현재 榮光병단(제121사단) 주력은 금악, 바리메, 금덕리 부근에 기동 준비를 시키며, 일부는 북서부 연안 외곽에 배치시켜 경계를 맡긴다.
- 제121사단 예하 보병연대 주둔지
  262연대 : 노꼬메큰오름 일대, 263연대 : 금악 일대, 264연대 : 금덕 일대

제주도 서북부에는, 제121사단 1만 3천명 등이 배치되었다. 여기에 배치된 부대는, 이 지역에서 싸우는 것에 주안이 놓인 것이 아니고, 기동 결전병단이라 생각해도 된다. 다시 말해, 서남부에서 전투가 일어나도, 중앙북부에서 일어나도 무관하도록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121사단의 전투 사령부는 바리메에 설치되고, 제121사단 지휘하의 제264연대 사령부가 그 동쪽 2㎞에 있는 노꼬메큰오름에 설치되었다. 제121사단의 주력은 패전이 가까울 때에는, 애월읍 소길리와 금덕리 주변에 집결해 있었다. 또, 제12포병 사령부가 애월읍 어도리 다래오름에 설치되어 있었다. 패전시에 배치 준비가 진행되고 있던 제120사단도 이 서북부에 설치하여, 기동결전병단으로 할 예정이었다. 지금 금악 주변에 주력을 두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위장진지

<애월읍> 어도오름(도노미·어도봉), 고내오름(고내봉)

<한림읍> 정월오름(정월악)

● 전진거점

<애월읍> 검은덕오름(금덕오름), 극락오름

<한림읍> 느지리오름(망오름), 금오름(검은오름, 금악)

● 주저항진지

<애월읍> 바리메(바리오름), 족은바리메, 노꼬메큰오름, 다래오름, 새별오름, 이달오름(이달산), 괴오름(괴미오름)

■ 제96사단 사령부 및 예하부대(중부)

● 현(玄, 겐)부대, 제96사단 사령부 : 민전동[제주시 오등동]

● 7월 말 현재 玄병단(제96사단) 주력은 제주동서비행장 가까이 추진하여 해당 비행장을 확보함과 함께 해당 방면에 대한 군 공세를 지탱하게 한다.

사진 4-17. 족은바리메 갱도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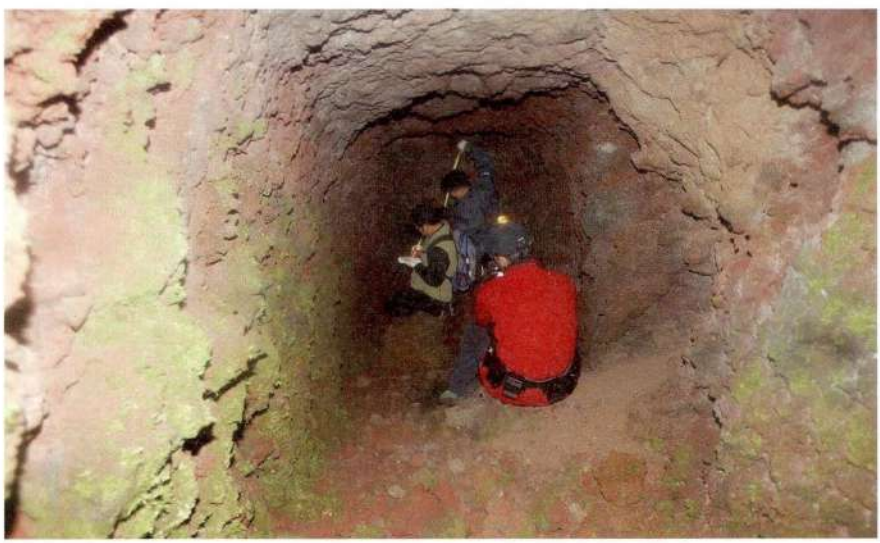


사진 4-18. 족은바리메 갱도 내부(한라일보 탐사팀 촬영)

●제96사단 예하 보병연대 주둔지

292연대 : 삼의악 일대, 293연대 : 명도암 일대, 294연대 : 민오름 일대

제주도 중앙북부로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지대이고, 제주 동 및 서비행장의 확보가 주안이 되었다. 여기에는 제96사단을 중심으로 1만 명 가까운 병사가 배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제96사단의 사령부는 제주 남방 약 8㎞의 만전동(敏田洞, 제주시 오등동)에 위치했고, 산천단·삼의악 일대에 연대본부 등이 자리 잡았다.

■ 중앙북부

● 위장진지

<제주시> 도들오름(도두봉), 원당오름(원당봉)

<서귀포시> 고근산(호근산), 삼매봉, 영천오름(영천악), 자배오름(망오름)

● 전진거점

<제주시> 사라오름(사라봉), 베리오름(별도악·화북봉)

<표선면> 붉은오름(적악봉)

<남원읍> 동수악

● 주저항진지

<제주시> 새미오름(삼의악), 민오름(민악), 남짓은오름(남좃은오름), 오드싱오름(오등봉), 노리손이(노리생이·노리오름), 안새미오름(명도오름명도악), 거친오름

<조천읍> 거문오름(물찻·흑악)

<남원읍> 물오름(수악), 이승이오름(이승악)

사진 4-19. 삼의악 부근 하천 갱도의 입구

사진 4-20.삼의악 부근 하천 갱도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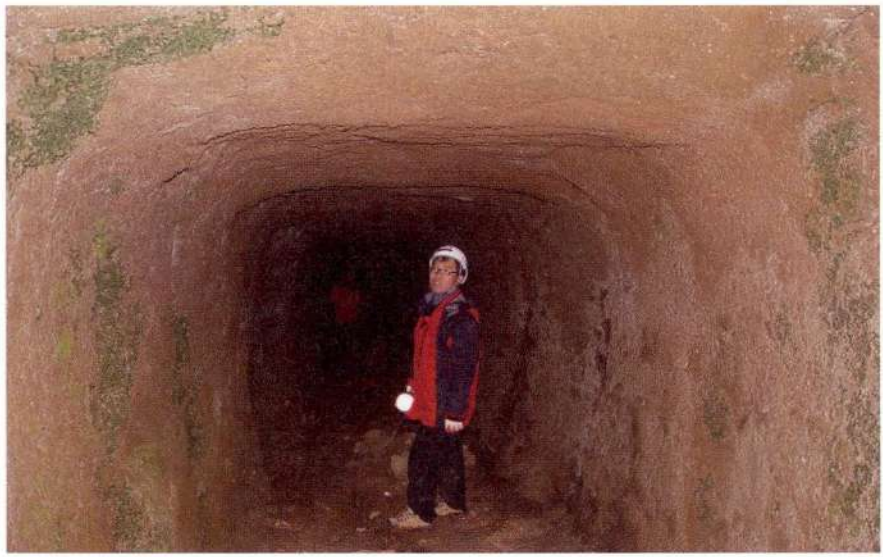


사진 4-21. 오등봉 갱도 내부

사진 4-22. 사라봉 갱도 내부에서 본 입구

사진 4-23. 별도봉 갱도 입구

사진 4-24.수악교 부근 석축진지

■ 제108여단 사령부 및 예하부대(동부)

● 취(翠, 스이)부대, 제108여단 사령부 : 검은오름 일대

● 7월 말 현재 독립혼성 제108여단 주력(5대대)을 서부지구 청수부락 부근에 배치하여 공세를 지탱하게 한다. 제주도 동부 및 남부지구에는 각 1대대를 배치하여 교래리비행장의 직접 엄호 및 상륙하는 적군의 행동을 방해하는 임무를 갖는다.

일본 방위청에 소장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동부에 배치된 부대는 제108여단으로 주력 약 4천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제주도 서부지역으로 미군이 상륙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위장진지로 삼았다가 최종 유격전을 치를 것으로 상정한 부대였다. 제108여단 전투사령부는 구좌읍 송당리와 조천읍 교래리 사이 산악지대인 이곳 검은오름 일대에 배치됐던 것이다. 이 병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래리에 있던 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한 1개 대대 약 1천 명을 남겨두고 주력을 제주도 서부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일대로 이동시켰다.

검은오름 일대에 주둔한 일본군 병력 중에는 내륙지방에서 직접 들어온 기마병이 섞여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이 소지한 무기들은 전부 수거하여 함덕리 앞바다에 던져버렸고, 말들은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였다. 주민들은 일본군이 버리고 간 철바퀴가 달린 수레를 가져다 고쳐서 사용하였는데, 이를 '쇠구루마'라고 불렀다. 리어카가 나오기 전 제주도민들에게는 매우 긴요한 생활 수단이 되었다.

● 위장진지

<구좌읍> 괴살메(묘산악), 둔지오름(둔지봉), 다랑쉬(월랑봉), 윤드리오름(은월봉)

<성산읍> 말미오름(두산봉), 큰물뫼(대수산봉), 독자봉

<표선면> 달산봉(망오름), 가세오름, 큰사슴이(대록산), 영주산

● 전진거점

우도, <구좌읍> 민오름

● 주저항진지

<조천읍> 검은오름(서검은이), 부대오름, 부소오름

<구좌읍> 체오름, 거친오름, 밭돌오름, 안돌오름

사진 4-25.검은오름 분화구 내 석축진지

사진 4-26. 부대오름 갱도 내부

사진 4-27. 대록산 갱도 내부(탐라문화연구소 조사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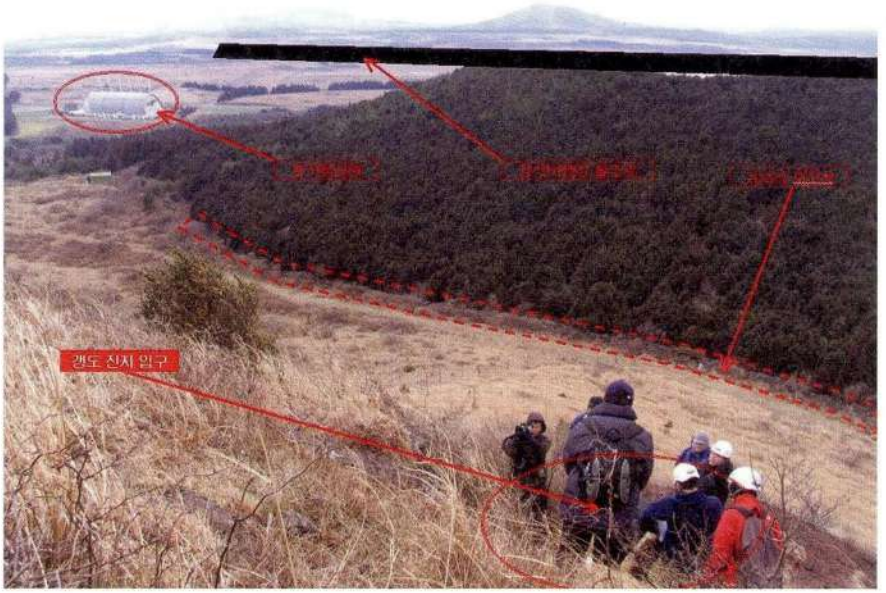


사진 4-28. 교래비행장과 연결된 대록산 갱도 진지(탐라문화연구소 조사팀 촬영)

3. 오름에서 평화를 추구하며

제주도내 오름에 산재한 일제 군사유적은 제주도내 대학 연구소와 언론기관의 현지 조사와 일본학자의 자료 발굴 등으로 그 전모가 드러났다. 이들 유적은 일제가 일본 본토를 지켜내기 위해 제주도민을 볼모로 삼아 옥쇄(玉碎)하겠다고 했던 결(決)7호 작전의 결과물이다. 또한 제주도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노역을 했던 피와 땀이 어린 역사적 현장이다. 일제의 전쟁 유산이라고 해서 무시해 버려서는 안 될 역사 교훈의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군사유적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과거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평화운동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군사유적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일본군이 당시에 제주도를 무대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으며, 현지 주민들을 어떻게 동원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켰으며, 그 결과 제주도의 자연이 얼마나 훼손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었는지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제주도민들과 제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에는 일반적으로 타국의 유적이 많으며, 또한 전쟁요충지는 대부분 평화 시 타국과의 교류와 협력의 가교이자 현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북아가 역사평화벨트로 서로 연결되어 기억 기념된다면 전쟁·군사유적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평화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동북아 평화벨트(지대) 구축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한라산총서 3

한라산의 역사와 유적

제5장
한라산의 4·3유적

여 백

1. 제주4·3사건

제주4·3사건은 미군정기 한반도 변방의 섬 제주도에서 발생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는 이 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 정의하고 있다.

1947년 3월 1일 제주북국민학교에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마친 도민들은 거리 행진에 나섰다. 행진 대열이 제주경찰서 앞을 빠져나갈 즈음 경찰서 망루에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시위를 구경하던 주민 6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총파업으로 맞섰다. 총파업에는 상가와 기업체는 물론, 교사와 학생, 도청 공무원, 군정청 관리, 심지어 경찰까지 참여했다. 미군정과 경찰당국은 이 사건을 정당방위라고 강변하면서 경찰과 극우단체인 서북청년회를 통해 파업참가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과 테러를 가함으로써 민심이반과 함께 제주 사회를 긴장상태로 몰아갔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상황을 당시 정치적 이슈였던 5·10단독선거 반대운동과 결합시켜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를 조직했다. 이로써 제주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제주주둔 9연대장과 무장대사령관이 4·28협상으로 평화적 해결의 물꼬를 텄으나 5월 1일 '오라리방화사건'으로 평화협상은 무산되고 말았다. 유혈사태는 지속되었고 결국 제주도에서의 선거는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화됐다. 이로써 제주도는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5·10 단독선거를 거부한 유일

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에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주도 상황은 즉각 해결되어야 할 상황으로 인식되며 정부의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군경 토벌대와 극우단체들은 제주도민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고 즉결처형을 일삼았으며, 재판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통해 수많은 정치범을 만들어 내고 이들을 학살했다. 특히 1948년 11월부터 1949년 3월 사이에 벌어진 산간지역에 대한 방화와 소개(疏開) 등의 초토화 작전과 집단학살은 제주도 전역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무장대 또한 일부 마을에 대한 무차별 습격으로 민간인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는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 정부에 신고된 희생자 수만 해도 14,500여 명에 이르며,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 수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의한 제주도민의 희생'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2. 한라산과 4·3유적

'한라산의 4·3유적'이라면 우선 그 범위가 방대하다. 한라산 거의 모든 곳이 4·3유적이 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죽었을지 모를 수많은 무장대와 피난민의 뼈가 묻힌 곳도 한라산 자락이고, 고단한 피난 생활 속에 기아로 죽어간 노인들과 아이들도 한라산을 벗 삼고 있을 것이다. 한라산 주변은 이렇듯 무장대의 활동 근거지가 되었던 곳도 있고, 그들이 훈련을 했음직한 곳도 있다. 또, 중산간 초토화 작전 및 토벌대의 무자비한 횡포를 피해 입산했던 주민들의 피신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군경의 진압작전에 따라 설치됐던 경찰이나 군의 주둔소와 초소도 한라산 자락에 있었다. 특히 한라산 주변에 산재한 수많은 오름은 무장대나 피난주민 혹은 군경토벌대에게도 애환이 서린 곳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한라산의 4·3유적은 70년 가까이 흐른 장구한 세월 그리고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침묵의 세월이 반세기 넘게 지속됨에 따른 망각과 무관심에 의해 훼손되고 방치되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무장대 및 주민 은신처 그리고 경찰토벌대의 주둔소, 기념비 등을 중심으로 한라산의 4·3유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장대 훈련장

무장대 관련 유적을 찾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세월 탓도 있지만, 그것을 증언해 줄 관련 증언자가 없다는 점이다. 당시 무장대로 활동했던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웠고, 설령 귀순하거나 1950년대에 자수 혹은 검거되어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50여 년 쉬쉬하며 살다 유명을 달리하거나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이다. 4·3의 제반 사료가 지극히 제한적인 데다가 특히 무장대 관련 사료가 희박한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한미보병 제6사단 정보일지 1948년 4월 22일~23일(№917)의 보고에는 당시 "폭도들의 집결지를 애월면 샛별오름, 애월면 발이오름, 구좌면 거문오름"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국방경비대 제9연대 고문관 찰스 웨슬로스키(Charles L. Wesolowsky)의 1948년 7월 21일의 보고에 의하면 "약 150여 명의 폭도들이 어승생악 부근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폭도들 대다수가 무장하고 있는 노루악의 소규모 폭도들과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방첩대로부터 보고 받음"이라 적고 있다.

《제주민중항쟁 I》에도 "1948년 접어들자 애월면 어도리 근처의 샛별오름 일대에서 청장년 100여 명이 훈련을 받았다. 경찰이 샛별오름 일대에서 이들을 발견 추적하여 1명을 체포했으나 나머지는 한라산 속으로 도주하여 자연동굴을 거점으로 무장근거지를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4·3 관련 유일한 무장대측 자료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도 "1948년 3월 20일경 샛별오름에서 67명이 참가해 합숙훈련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샛별오름은 초기 무장대의 훈련장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어승생 인근에도 너른 초지를 이룬 분지가 있다. 특히 어승생오름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군단사령부가 미로처럼 진지동굴을 구축해 최후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었던 곳이다. 주한미육군사령부(HQ USAFIK) 일일정보보고(G-2)의 1948년 6월 15일 보고에 "어승생악 인근에서 폭도들의 보급소를 발견"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4·3 발발 초기 남로당제주도당의 군사부가 어승생오름을 근거지로 인근에서 훈련을 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무장대의 훈련장으로 쓰였다고 추정되는 곳은 남원읍 신례리의 오림반과 제주시 봉개동의 물장오리·테역장오리 인근이다.

《제주4·3유적Ⅱ》에 의하면 "오림반은 4·3 발발 초기 무장대의 훈련장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은 한라산의 천연 밀림 속에 자리한 약 3천여 평의 초지이다. 주변에는 계곡과 동수악, 논고악, 이승이오름 등이 이 너른 분지를 감싸고 있어 더없이

사진 5-1. 오림반(사진 제공 : 제주4·3연구소)

좋은 요새였다. 오림반은 일제강점기 제주도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남제주군(지금의 서귀포시) 지역의 산림구역을 41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구역"이었다.

물장오리·테역장오리 또한 천연적인 요새와 초지로 형성된 너른 분지를 갖춘 곳이다.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숨어 있는 물장오리에는 전설에 걸맞은 깊은 분화구와 산정호수가 있다. 이 물장오리와 테역장오리 사이에 있는 너른 초지를 중심으로 무장대의 훈련장으로 쓰였다고 전해진다.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의 1949년 3월 보고에도 훈련장으로 물장오리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물장오리에는 남로당제주도당 본부가 한동안 있었다고 알려졌고 토벌대와 무장대간의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다.

사진 5-2. 한수기곶(사진 제공 : 제주4·3연구소)

이밖에 《4·3은 말한다》1권에는 무장대 훈련장으로 표선면의 '녹산장'도 거론되며, 한경면 청수리와 대정읍 무릉리로 이어지는 '한수기곶' 등지에서 죽창이나 철창을 준비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한수기곶'은 대정읍 무릉리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몇 안 되는 곶자왈 지대이다. 지금은 온통 자왈이 우거져 들어가기 힘들지만, 이곳에는 굴이 많아 4·3 당시 대정면과 한경면 주민들 중 토벌대가 무서워 소개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은신처로 이용하기도 했다.

무장대 근거지

역사유적으로서 4·3 당시 무장대 근거지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무장대가 일정한 지역에 머물며 4·3의 모든 시기를 버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로당제주도당의 근거지는 일반적으로 해안마을의 민가를 여러 곳 전전하다가 1948년 4·3 발발 전후로 하여 중산간 마을로 옮겼고, 토벌이 강화되면서 날이 갈수록 더욱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장대가 거의 궤멸된 1949년 3월 이후의 잔여세력들은 이렇다 할 진지를 갖추지도 못하고 천연동굴이나 궤 그리고 일본군 진지동굴 등 이곳저곳을 전전했을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4·3 당시 무장대는 어느 일정한 지역 혹은 일정한 장소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다. 먼저 《제주민중항쟁》에서 《좌익사건실록 I》과 《제주도지 上》을 토대로 작성한 4·3 발발 전후 '자위대의 주요 거점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위대의 주요 거점지역>

△ 대정지구-세미곶, 남송악(南松岳), 군산, 다래오름, 산방산 등

△ 한림·애월지구-샛별오름, 발이매오름, 노루오름, 정물오름, 눈오름 등

△ 제주읍·조천지구-관음사, 산천단, 검은오름, 개미목속발, 천문오름, 바늘오름, 어승생오름 등

△ 중문지구-모라리오름, 녹화오름, 법정오름

△ 남원지구-남이악(南伊岳), 민오름

△ 성산·표선지구-서월악(西月岳), 녹산봉, 영주산, 백약오름 등

또,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의 1949년 3월 30일~4월 1일 현장보고에는 "반도 부대의 위치가 영림소(교래리 검은오름 주변, 반도 제12군단 100여 명), 성판악(반도 제8군단 100여 명), 평지(반도 제23군단 12명), 돌오름(반도 제3군단 30명)이며, 훈련소는 물장오리 인근에 위치하고 도당사령부는 제주읍 삼의악 주변"이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장대는 전세가 유리할 때는 보급 및 연락이 수월한 중산간 일대의 마을이나 인근의 천연동굴 혹은 일본군 진지동굴 등을 근거지로 삼고, 전세가 불리해지고 잔여 세력이 미미해져 생명 연장에 급급하던 시절에는 깊은 산중의 이곳저곳을 매일 옮겨 다니며 토벌대의 포위망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주민피신처

1948년 11월 이후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주민들은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에 따라 피난길에 나서야 했다.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해변 마을로 내려간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야산으로 피난지를 택했다. 이는 토벌대의 명령이 도달하지 못했거나, 토벌대가 느닷없이 들이닥쳐 무조건 불을 지르는 통에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건지지 못한 채 우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 더러는 가을걷이한 곡식과 우마(牛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마을과 가까운 산을 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해안마을로 피난갔던 주민들도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 대한 총살이 계속 이어지자 하나 둘 다시 피난입산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산으로 피난지를 정한 주민들은 초기에는 불타버린 집을 의지해 움막을 지어 생활하다 토벌이 강화되자 마을 인근 야산으로 밀려나고, 1949년 1~2월경에는 한라산 가까운 깊숙한 산간으로 쫓겨났다. 열안지오름 인근 '비남도', '가미왓', 관음사 인근, 물장오리, 물영아리 오름 일대, '한수기곶', 대나오름과 거친오름 일대의 '머흘뿔', '못밧', '샛머흘', 밧세미오름, 와산리 '왕모루곶', 교래리 '뒷곶', 말찻오름,

늡서리곶, 바농오름, 이덕구산전, 한남리 '제안이곱지', '고냉이든밧', 어리목 인근 '청산이도' 등 한라산을 포함한 인근의 모든 산야가 주민피신처였다.

《제주4·3유적Ⅰ·Ⅱ》에는 주민피신처 중 '바농오름', '북받친밧'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바농오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 108번지 일대의 바농오름은 조천면 중산간 일대의 마을이 초토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숨어 살던 곳이다. 또한 무장대도 일시적으로 주둔했던 곳이다. 바농오름엔 대흘리, 와흘리 등 산간지역 주민만 아니라 조천리 등의 해안마을 주민들도 은신했었다.

조천리 양천동 출신인 신태호(남, 1932년생) 씨는 "불 타버린 양천동 집 주변에서 은신 생활하다 토벌이 심해지자 바농오름 서쪽으로 옮겨 피난생활을 했다. 토벌대가 들이닥치면 산속으로 숨고 토벌대가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듬해 봄 함덕 대대본부로 귀순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의 부모와 이름도 모르는 어린 두 동생은 도피자 가족이란 명분으로 1949년 1월 6일 조천지서 앞밭에서 총살당했다.

바농오름은 표고 552m, 비고 약 130m의 옹골찬 오름이다.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는 바농오름 서쪽 기슭에는 당시 피난민들이 움막을 지었던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북받친밧('시안모루', '이덕구산전')

1948년 11월 20일 제주읍 봉개리가 초토화되자 주민들은 인근 야산의 궤나 동굴 등지에 피신하게 된다. 낮에는 들에서 밤에는 불타버린 집을 의지해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 그러나 1949년 2월 4일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거친오름 뒤편과 대나오름 서남쪽의 숲속에 임시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하지만 토벌이 강화될수록 피난주민들은 더욱 산 깊숙이 들어갔는데, '시안모루', '밤남도왓' 등으로 불리는 이곳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사진 5-3. 이덕구산전(사진 제공 : 제주4·3연구소)

사진 5-4. 북받친밧(사진 제공 : 제주4·3연구소)

이곳은 난리를 피해 숨어들어온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 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도 간혹 보인다.

토벌대 주둔지

<제주신보>(1952. 9. 30)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경찰국장이 잔여 무장대에 의한 주민 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간출입금지구역을 정해 발표했다.

<산간출입금지구역>

△ 제주읍 관내 : 명도암(明道岩)-영평(寧坪)-죽성(竹城)-금악(琴岳)-유신동(有信洞)을 연(連)하는 선

△ 애월면 관내 : 유신동(有信洞)-금덕(今德)-서광(西廣)-금악(今岳)을 연하는 선

△ 한림면 관내 : 금악(今岳)-정물오름-도을악(道乙岳)을 연하는 선

△ 안덕면 관내 : 도을악(道乙岳)-병악(並岳)-녹하지(鹿下旨)를 연하는 선

△ 중문면 관내 : 녹하지(鹿下旨)-세초지(細草旨)를 연하는 선

△ 서귀면 관내 : 세초지(細草旨)-미악(米岳)-수악(水岳)을 연하는 선

△ 남원면 관내 : 수악(水岳)-456고지-민악(敏岳)을 연하는 선

△ 표선면 관내 : 민악(敏岳)-대록봉(大鹿峯)-모둔악(母屯岳)-개미오름을 연하는 선

△ 구좌면 관내 : 개미오름-높은오름-체오름을 연하는 선

△ 조천면 관내 : 체오름-알바마기-천미악(泉味岳)-수기동(水基洞)-명도암(明道岩)을 연하는 선

위 출입통제선 발표 직후 제주도경찰국은 1952년 11월 1일, '제100전투경찰사령부'(100사령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잔여 무장대 토벌에 나섰다. 100사령부는 산하에 4개 대대를 두고 위 통제선을 기준으로 제주도 산간 곳곳에 주둔지와 초소를 구축했다.

한상봉의 연구《제주4·3시기 군·경주둔소》에 의하면 위 통제선을 잇는 주둔소는 "명도암 - 영평 동샘이 - 죽성 새가름 - 아라동 들렁귀 - 노형동 알캐왓 - 월산마을 신물동산 - 해안동 윗동산 - 광령리 칠성동산 - 유수암 큰동산 - 상가리 원동 - 어음리 뒷동산 - 광평리 행기소 - 상창리 대남도 - 색달리 모라이악 - 중문동 녹하지악 알오름 - 대포동 섯지방턱 - 도순동 법정이 - 영남동 어점이오름 앞 - 시오름 알 - 신례리 수악케 - 위미리 감낭굴 - 한남리 멋모르 - 한남리 머체왓 - 수망리 영 모루 - 신흥리 뒷버들 - 가시리 사슴이 - 교래리 새몰리 - 선흘리 선인동 - 대흘리 동원 - 와흘리 웃노늘"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주둔소와 초소는 훼손된 곳도 많지만, 아직도 그 형태를 유지하거나 흔적을 남는 곳도 있다. 흔적이 뚜렷한 주둔소 중《제주4·3유적Ⅰ·Ⅱ》에 수록된 알오름주둔소, 수악주둔소, 시오름주둔소, 관음사주둔지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알오름주둔소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알오름은 녹하지오름 남쪽 바로 밑에 있는 자그마한 오름을 말한다. '알오름'이란 지명은 오름의 위치가 녹하지 밑에 있다고 하여 알오름이라고 불렸다고도 하고, 동산이 둥그스름한 형으로 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도 한다.

이 알오름 정상에는 4·3 당시 설치됐던 주둔소 흔적이 아주 잘 남아 있다. 이 주둔소는 겹담으로 단단하게 쌓아졌다. 축성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증언에 의하면 100사령부 소속의 경찰토벌대가 주둔했었다. 이곳은 동북쪽으로 거린사슴과 법정악, 북서쪽으로 돌오름과 영아리 오름, 서쪽으로 병악, 남서쪽으로 모라이악과 우

보악이 잘 관측되는 토벌작전의 요충지였다.

한편, 1950년대 초반 잔여 무장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토벌활동에 참가한 경찰들은 산속을 헤매며 숨 막히는 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의 몸에는 이가 북적였고, 또한 쾨쾨한 냄새 때문에 경찰과 무장대가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알오름주둔소는 레이크힐스 골프장 안 해발 620.5m 지점의 녹하지오름 남쪽, 속칭 '알오름'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이 주둔소에 대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가 2002년 레이크힐스 골프장 공사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 의뢰를 받고 조사한 후, "이곳은 4·3성으로 보존이 요청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알오름주둔소 성에는 회곽도가 설치되어 있고, 모퉁이마다 망루(望樓)가 세워져 있었다. 현재 길이는 가로, 세로 각각 약 40m, 높이 1~4m, 폭은 3m 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쪽면은 현재 훤히 뚫린 채 성담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아마 인근 목장에서 울타리를 쌓으면서 성의 돌들을 이용하며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성 밖에는 깊이 1.5m, 폭 1m가량의 해자가 있다. 현재 그 주변에 가시덤불이 무성히 자라고 있는데, 그때에도 가시나무로 해자를 덮어 위장하지 않았나 싶다.

한편 성밖 동남쪽에는 보초막 형태의 돌담이 둘러쳐진 움막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용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화장실로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수악주둔소

남원읍 신례리 산 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수악주둔소는 수악의 동남쪽, 신례천과 하례천의 계곡 사이에 있는 동산에 위치해 있다.

주둔소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해서 쌓았으며, 외성은 회곽을 이루고 있다. 회곽의 바깥쪽 높이는 3.5m 정도였으며, 내벽은 2m가량 되었다. 주둔소의 내부 면적은 대략 250평 정도이다.

사진 5-5. 수악주둔소(사진 제공 : 제주4·3연구소)

이 주둔소는 주변을 조망하기에 아주 적지라고 마을 주민들은 설명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신례리와 하례리, 효돈 쪽까지 깨끗하게 조망할 수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한남리 지경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서쪽으로는 수악의 주변과 북쪽으로는 물오름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수악주둔소를 축성할 때는 인근의 신례리와 하례리는 물론 서귀포시 상효동 사람들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성을 쌓고 나서 주둔소까지 물자를 나르는 지원사업도 대부분 가까운 신례리 사람들이 맡아서 했다.

현재 수악주둔소는 사람들의 출입이 없었던 까닭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형태가 남아 있다. 외성과 내성의 전체적인 둘레는 물론이고, 외성의 회곽과 높이 등도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내부의 모습도 건물이 있었

던 곳과 난방을 했던 아궁이의 모습 등이 남아 있다. 화장실 터도 확인할 수 있으며 외성에서 내성으로 들어오는 올렛목과 내성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길목의 흔적들도 밑돌로나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시오름주둔소

서귀포시 서호동 산 1번지 일대에 위치한 시오름주둔소는 서귀포시 서호동 고군산과 시오름의 중간쯤 목장 지역 안에 있는 돌로 쌓은 조그만 규모의 성이다. 경찰주둔소로 1950년대 초반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지역주민들과 무장대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 길목마다 경찰토벌대의 주둔소가 설치되었다.

삼각형 모양의 시오름주둔소는 한 면의 길이 약 40m, 전체 둘레 120m 정도이며,

사진 5-6. 시오름주둔소(사진 제공 : 제주4·3연구소)

높이는 약 3m, 폭은 1m 정도로 단단하게 쌓여 있다. 성벽에는 군데군데 총구를 들이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 또한 주둔소 안에는 당시 토벌대와 민간인 협조원이 잠을 잤던 숙소터도 큰 규모로 남아 있다. 성담의 흔적은 잘 남아 있으나 갖가지 잡목으로 우거져 있어 찾기가 쉽지 않다.

관음사주둔지 및 그 인근

이밖에 무장대의 근거지이기도 하고 피난주민들의 집단피난지며 최종적으로는 토벌대의 전진기지였던 곳도 많다. 그 대표적인 곳이 관음사와 그 인근이다.

1949년 3월부터 잔여 무장대 토벌을 위한 2연대의 작전이 강화되면서 2연대 2대대 병력이 관음사 인근에 주둔했다. 2연대는 제주도의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토

사진 5-7. 관음사주둔소(사진 제공 : 제주4·3연구소)

벌의 근거지로 삼았는데, 이곳 관음사 주둔지 외에도 서귀포 수악교 인근에 1대대를, 교래리와 산굼부리 사이에 3대대를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곳 관음사 일대는 4·3 발발 당시부터 무장대의 주요 길목이었고, 한때 무장대의 본거지가 되었던 어승생 진지와 가까운 작전상 주요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벌대가 이곳에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음사 경내 5만여 평의 밀림지대에 중대와 소대급 숙영지가 곳곳에 당시의 흔적을 간직한 채 남아 있다. 규모가 큰 중대급 숙영지는 가로 세로 25m 규모이고 그보다 작은 소대급 숙영지도 있으며, 3~4명이 잠복할 수 있는 초소도 여러 군데 남아 있다. 또, 관음사 뒷산인 아미봉(해발 650m) 정상에도 숙영지와 초소가 비교적 훼손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관음사 입구의 초소는 관음사 기반 정비를 하면서 일부 훼손한 것을 복원한 것이다.

한편 군대가 장악하기 이전에 관음사 주변에는 피난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집단 기거하기도 했다. 주로 아라리 주민들이 많이 숨어들었다. 이들 중 토벌대의 습격에 희생된 이들도 많았으나 많은 주민들은 한겨울을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 1949년 3월 이후 토벌대의 귀순권고 삐라를 보고 하나둘 귀순했다. 이곳 관음사 군주둔지로 귀순한 주민들도 많았다.

또, 관음사는 한때 무장대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1949년 2월 12일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지기 직전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중원 스님은 "이덕구를 한 번 봤다. 무장대원 여럿이 왔었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이 이덕구라고 말해줬다. 법당이 아닌 별관에 기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히 모르나 며칠 동안 머문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는 "관음사가 토벌대에 의해 불타자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증언했다.

이 밖에도《제주4·3시기 군·경주둔소》에 따르면 수망리와 가시리 경계에 있는 가친오름주둔소와 서귀포시 토평동 남성대주둔소, 안덕면 상천리 쳇망어음주둔소는 아직도 흔적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잃어버린 마을 영남리

4·3 당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제주도의 중산간마을은 대부분 폐허가 되었다. 이후 사건이 진정되면서 중산간 마을이 복구되었지만 산간 깊숙이 자리 잡았던 크고 작은 마을들은 복구가 늦어지거나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이중 법정동(法定洞)이었으나 끝내 복구되지 못한 유일한 마을이 당시 남제주군 중문면 영남리 마을이다.

해발 500m 고지에 위치한 영남리는 4·3 당시 리 단위의 독립된 마을이었다. 영남리는 영주산(瀛州山, 한라산) 남쪽 마을이라는 지명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한라산

사진 5-8. 영남동(사진 제공 : 제주4·3연구소)

남쪽 밀림이 끝나는 지경에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다. 16가호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살던 영남리에는 한문을 가르치던 서당도 있었다. 주민들은 옛부터 화전을 일궈 보리나 고구마를 재배했고, 숯을 굽거나 사냥하며 살았다.

이재수 항쟁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1918년 법정사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주민 6명이 일제 당국에 구속됐고, 그중 옥사한 김두삼은 독립유공자로 추서되기도 했다.

4·3은 평화로운 영남리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았다. 1948년 11월 18일 토벌대가 초토화작전을 벌이며 마을에 난입했다. 토벌대는 닥치는 대로 총을 쏘며 주민들을 학살하고 불을 질렀다. 주민들 대다수는 이런 토벌대의 만행에 해안마을로 내려갈 엄두를 못 내고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을 위 어점이악 주변의 밀림과 자연동굴에 몸을 숨기며 살았다. 그러나 그 겨울, 토벌대는 눈 덮인 산야를 헤매는 주민들이 발견되면 즉시 총살하고 체포했다. 영남리에서는 4·3으로 92명의 주민 중 5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희생당한 마을은 그 후에도 복구되지 못한 채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 있다. 현재 영남리의 마을터에는 2001년 제주도에서 세운 잃어버린 마을 표석이 세워져 있다.

기념비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

한라산 정상에 세워진 이 비석은 4·3의 종결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비석이다. 사실상 궤멸단계에 들어선 잔여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제주도경찰국은 1952년 11월, 100사령부를 창설하고 막바지 토벌에 임했다. 이후 1953년 4월에는 복구되지 못한 마을의 소개민에 대한 마을 입주가 시작되었고, 1954년 9월 21일에는 한라산 입산금지가 전면적으로 해제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년 뒤 한라산 정상부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5-9. 한라산개방 평화기념비(사진 제공 : 제주4·3연구소)

<전면>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漢拏山開放平和記念碑)

<후면>

영원히 빛나리라. 제주도경찰국장 신상묵(辛相默)씨는 4·3사건으로 8년간 봉쇄되었든 한라보고(漢拏寶庫)를 갑오년(甲午年) 9월 21일 개방하였으니 오즉 영웅적 처사가 아니리요. 다만 전도(全道)는 기여(寄與)된 자유와 복음에 감사할지어다.

신선부대장(神選部隊長) 허창순(許昌恂) 기(記)

동화임업사장(東和林業社長) 이광철(李光哲) 기립(其立)

단기 4288년 9월 21일

평정기념비(平定紀念碑)

4·3 당시 2연대 1대대 소속으로 진압을 위해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이윤씨는 자신의 수기인 『진중일기』(2002)에 1949년 7월 23일 백록담 서쪽 봉우리에 평정기념비(平定紀念碑)를 세웠다고 기록하며 그 사진까지 수록했다. 또한 수필가 현임종의 회상기 《보고 듣고 느낀대로》(2003)에는 작가가 1958년 평정기념비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비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참고 문헌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995.

아라리연구원, 《제주민중항쟁》 I, 소나무, 198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1권, 전예원, 199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제주4·3사건자료집》3·7·8, 2003.

제주도의회,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2000.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II, 도서출판 각, 2003·2004.

이윤, 《진중일기》, 여문각, 2002.

한상봉, 《제주4·3시기 군·경주둔소》, 도서출판 흥제, 2019.

현임종, 《보고 듣고 느낀대로》, D.D.P., 2003.

한라산총서 3

한라산의 역사와 유적

제6장

국가제사로서의 한라산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여 백

한라산에서 치러지는 제사는 사회적 단위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제사, 지역이나 혈연공동체 차원의 제사, 개인 차원의 제사 등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제사 중에서도 비교적 명백한 사료가 있는 국가제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국가제사란 제사 대상을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주제자(主祭者) 선정, 제사 일정, 제사 참여자, 봉헌물 등 제사 운영 전반에 대해 중앙이 규정을 정하여 관여하는 제사를 말한다. 국가제사도 종묘제, 계절에 따른 농경의례, 산천제(山川祭), 수호제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제사 중 범위를 좁혀 한라산신을 숭배하는 한라산제(漢拏山祭)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료에 나타나 있는 한라산 숭배의 여러 모습을 시대별로 심층적으로 정리하여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한라산제의 위상이 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국가제사를 통해 한라산 문화를 조사하는 것은 전통을 창출하고 지역문화의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글은 2006년 발간된 《한라산총서》3, 〈한라산의 역사·유적〉에서 김일우 선생께서 '신앙대상으로서의 한라산'을 정리해 놓은 내용 중에서 국가제사 부분만 사료를 첨가하여 한라산의 인문적·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1. 산악신앙과 한라산

산악신앙은 산을 신성시하여 믿음을 바치는 행위이다. 큰 산이나 아름다운 산은 인간을 초월하는 힘이 깃든 곳이며 인간세계와는 다른 곳으로 통하는 장소로서, 오랜 옛날부터 숭배의 대상으로 신성시되어왔다. 천지신앙, 천체신앙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연물 숭배의 하나이다. 특정 자연물 숭배는 자연물 자체에 대한 숭배가 아니다. 숭배 대상 자연물은 더이상 자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험한 힘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를 받는 것이다. 산악신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신화나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靈的) 자원이다. 세계 각국의 개국신화나 종교의 출현은 거의가 산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산악신앙이 상고시대로부터 생겨나 전승되어 온 보편적 신앙형태임을 말해주고 있다.

높은 산은 인간이 그 높이를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초월성을 지니는 존재다. 우주가 한 점에서 탄생한 후 팽창하여 오늘의 우주에 이르렀듯이, 산도 높이 솟아 있는 그 중심점에서 뻗어 나와 사방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대지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곳으로 거기에 신들이 산다고 여기는 것이다. 엘리아데(Mircea Eliade)도 산은 '세계의 중심'이자 지상과 천상을 연결 시키는 '세계의 축(axis mundi)'이라고 지적했다(멀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옮김, 《聖과 俗(성과 속)》, 학민사, 2006, p. 35).

한라산은 지형적으로 볼 때 지면에서, 아니 바다에서 우뚝 솟아 하늘과 맞닿아 있는 모습이어서 산꼭대기는 천신이 내려오는 장소였다. 하늘, 지상, 지하를 연결하는 장소라 인간의 소원을 산에 빌면 하늘에서 하강한 천신을 매개로 인간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다.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은 한라산은 기후적으로도 두렵고 경이로운 존재였다.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는 곳, 산에 어리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운무, 꼭대기에 덮여있는 새하얀 눈, 산에서 내리치는 뇌성벽력 등 고대인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산, 축복받

은 섬, 도교의 신선들이 사는 낙원, 이런 한라산을 조선 후기의 학자 김낙행(金樂行: 1708~1776)도 그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한라산을 읊었다.

한라산 위는 하늘에 한 자쯤 닿아 있고 / 漢拏山上天一尺
한라산 아래는 더 넓은 바다 푸르도다 / 漢拏山下滄溟碧
푸른 바다 만 리가 속세를 가로막으니 / 滄溟萬里隔塵土
천상의 뭇 신선들 산의 바위에 내려왔네 / 天上群仙下山石
봉래산과 방장산은 평지 위에 솟아 있으니 / 蓬萊方丈平地起
바다에 홀로 우뚝한 이 산과 어찌 같으랴 / 豈如此山孤拔水
푸른 노을과 흰 구름이 날마다 성대하고 / 靑霞白雲日蔚蔚
(중략)
찬바람과 부슬비가 그치는 때가 없구나 / 冷風霏雨無時歇
남방은 예로부터 뜨거운 열기에 괴롭지만 / 南方從古苦熱爍
유월에도 차가운 얼음이 암혈에 쌓여있네 / 六月寒氷堆巖穴
산꼭대기 푸른 못은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니 / 岡頭碧潭深不測
생각건대 해수가 솟는 곳과 응당 이어졌으리 / 想應海水湧相屬
(이하 생략)
《구사당집(九思堂集)》 제1권, 시, 삼가 〈한라산가(漢拏山歌)〉에 답하다

《영주산대총도(瀛洲山大總圖)》를 보면 한라산은 바다에서 우뚝 솟아 제주도 그 자체이다. 당당한 기세로 우뚝 솟아 섬 전체를 제압하는 모습이다. 섬 전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산자락에 사는 인간들을 보호하는 형상이기도 하다. 마치 태아가 배꼽에서부터 성장하듯이 제주도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뻗어 나와 사방으로 펼쳐지면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한라산 꼭대기는 제주도의 배꼽이다. 배꼽은 생명 탄생의 근거로서 의학적 의미 이상의 숭고한 의미가 있듯이, 한라산 꼭대기는 저절로

초월성이 느껴지는 거룩한 곳이다.

한라산에 대한 공간적 인식을 제주도 전체로 보는 것은 오늘날의 지리학적 지식으로 본다면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한라산과 제주도를 동일시하는 사고가 제주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라산을 접해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이었다는 것을 지도 한 장을 통해서도 느끼게 한다.

한라산이 지닌 위용, 그 신비로운 자태와 같은 자연적 환경조건과 신들의 땅, 망자들이 돌아가는 땅으로서 지니는 외경감 등이 어울려서 한라산 숭배를 불러일으킨다. 위(신령의 세계), 혹은 아래(망자의 세계)로 통하는 지상(한라산), 즉 한라산은 천상, 지상, 지하라는 세 개의 차원이 서로 교섭하는 곳으로서 신성성을 느끼게 한다. 거기다 산자락의 인간들에게 풍요와 보호를 제공해 주는 위대한 보호자로서 한라산은 오랜 시간을 거쳐 생활하는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지역의 신앙과 문화가 산과 깊이 관련되게 된다. 그래서 한라산은 제주도 문화가 응집되어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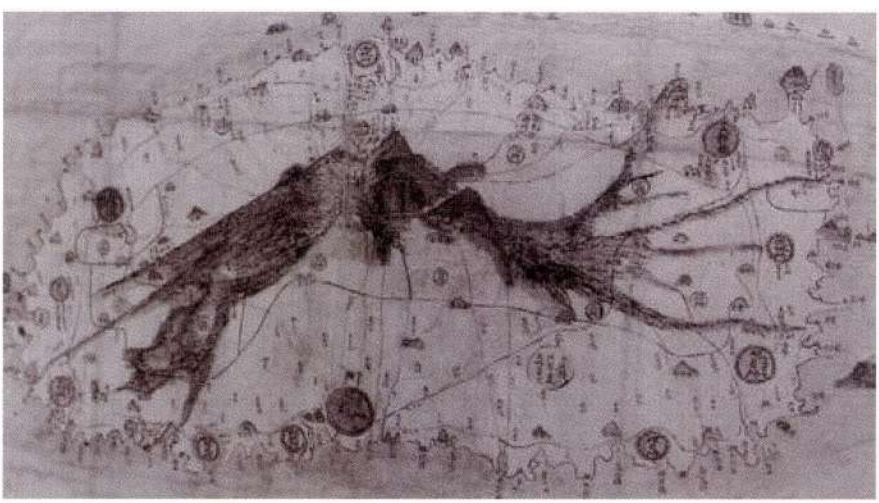


그림 6-1. 《영주산대총도(瀛洲山大總圖)》(1721년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나아가 한라산은 민속신앙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영산(靈山)으로서 국가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전통문화의 중심지였다. 국가가 승인하는 제도적 신앙으로부터 비제도적인 민간신앙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적 자원이자 제사의 중심지였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성공(成公) 5년에 "나라는 산천을 주인으로 삼는다(國主山川)"라고 하였다. 이는 국가와 산천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왕조 국가의 산천은 국가수호·왕조보존·재난극복 등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산천은 고대부터 국가권력에 의해 국가제사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잡아 왔다.

2. 한라산과 국가제사

통일신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악을 숭배하고 경외하는 산악신앙이 있었다. 명산대천을 비롯해서 오악(五岳), 삼산(三山) 등을 지정하여 제사드리는 풍습이 있었다. 《구당서(舊唐書)》 신라전(新羅傳)에 "신라인들이 산신을 제사하기 좋아했다"는 기록이 보이는 등, 일찍부터 산악은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확립한 삼국시대에 이르러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 산악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시작하였다. 수도를 중심으로 중앙과 동서남북에 명산을 선정하여 오악(五岳)이라 칭하고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각 고을에서는 고을의 산 중에서 주산(主山)을 선정하여 고을에서 봄·가을에 제를 올렸다. 《삼국사기》권32, 잡지(雜志), 제사(祭祀)조에는 삼국의 제사제도 중 고구려, 백제는 불명하고 신라의 것이 산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라는 통일 후 체제와 제도를 중국식으로 정비하는데, 국토방위를 위해 중국의 오악(五岳)제도를 모방하여 전국에 명산대천을 지정하고 여기에 제사를 지냈다. 전국을 중앙집권체제로 정비하기 위한 산악행정제도라 하겠다. 삼국 통일 후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성립·발전하기 위해서는 집권적 권력체제로 편성해야만 했고, 이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줄 의례를 마련해서 통일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제사하는 신의 종류에 따라 장소·시간·제물·참가인까지 제사마다 다를 수 있다. 특히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복잡다단한 제사를 일원화하여 그 권위를 국왕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신과 제사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권32, 제사(祭祀)조에 의하면 신라는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곳을 총 50곳으로 정하고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누었다. 그리고 해당 산천의

소재지나 관할 관청의 주재로 거행되었다. 이 같은 국가제사 정비의 의의는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거행되고 있었을 제사를 그 과정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제사 체계로 정비하였다는 점이다. 국가제사에 포함된 산천의 동서남북 경계는 당시의 영토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분포된 산천신을 대·중·소사라는 하나의 체계 속에 편제했다는 것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다.

고대 국가에서 국가제사의 중요한 기능은 국가가 천명을 받들어 지상 세계인 국가영토를 통치하고 있음을 정당화하는 한편 신령의 힘을 빌려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가는 하늘과 교류하는 특권을 가짐으로써 통치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가제사로 한라산에 제를 올린 기록이 없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제주도에 독립 국가가 존재했으므로 한라산은 통일신라의 영토 관념에서 제외되어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사기》권32, 제사(祭祀)조에 의한 신라의 국가제사는 다음과 같다.

표 6-1. 신라의 국가제사

대사	삼산(三山) : 나력(奈歷), 골화(骨火), 혈례(穴禮)
중사	오악(五岳), 사진(四鎭), 사해(사해), 사독(四瀆) 등
소사	각 지역 산천

고려

고려에서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산악숭배를 계승하였다. 산신은 인간의 길흉화복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으므로, 고려 시대에도 산신에 대한 숭배는 왕실을 비

롯한 지배층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크게 성행하였다. 충렬왕14년(1288년)에 감찰사(監察司)에서는 백성들이 송악산(松岳山)에서 제사를 올린다며 무리 지어 음주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을 붙였다. 충선왕3년(1311) 4월에는 "감악산(紺岳山)에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당시 귀신을 숭상하여 공경(公卿)이나 사서(士庶)가 모두 몸소 감악산에 제사 지냈는데, 혹은 장단(長湍)을 지나가다가 익사하는 자도 있었으므로 헌사(憲司)에서 상소하여 이를 금지"시키기도 하였다(《고려사》권85, 지(志)39, 형법2, 금령). 산신 제사의 폐해때문에 국가가 금지령을 내린 것에서 당시 산신에 대한 숭배가 매우 성행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교 행사라고 알려진 팔관회에서도 명산 숭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려사》권2, 세가2, 태조26년(943) 4월조에 고려 태조 왕건은 훈요십조에서 팔관회는 천령(天靈)과 오악, 명산대천, 용신(龍神)을 섬기는 행사라고 하였다. 고려의 신앙체계가 유교·불교·도교를 모두 아우르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려에서 산신을 국가제사의 대상으로 공식화한 것은 성종대였다.《고려사》권3, 세가3, 성종9년(990) 9월 9일의 기록을 보면, 성종은 서경으로 행차하여 산천의 제사를 산정하는 교서를 내린다.

> 기묘일에 교서를 내리기를 " (전략) 조상들의 옛 규례를 행하고 국가의 새 법령을 반포하려 한다. (중략) 고을 관원들의 수를 증감하고 명산대천의 제사 제도를 산정하려 하노라. (이하 생략)"

국가에서는 산신을 국가제사 대상 목록인 사전(祀典)에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제사했지만 오악이나 산에 대한 기록이 신라보다 구체적이지는 않다. 국가의 산천제는 봄·가을에 중앙에서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를 보내거나 안찰사가 드리도록 하여 산악신앙을 관리했다(《고려사》권8, 세가8, 문종18년 2월).

고려 시대는 전국 주요 산천을 대사-중사-소사 체계를 구성했던 신라와는 달리

명산대천 제사를 대-중-소사 체계에 편입하지 않았다. 국가제사를 대-중-소로 나누는 것은 중국의 길례(吉禮) 체계를 따른 것이다. 고려에서는 천지제사를 비롯한 유교 전통의 각종 제사를 대-중-소 제사에 두루 등재하면서 명산대천 제사는 잡사(雜祀)로 분류하였다. 이 같은 제사 체계는 신라나 조선과는 다른 고려 국가제사만의 특징이다. 그러나 잡사라고 해서 대중소사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모두 국가제사였다. 단지 유교제례의 길례(吉禮)에 잡사라는 용어가 없을 뿐이다.《고려사》예지(禮志)에 의한 고려의 국가제사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6-2. 고려의 국가제사

대사	원구(圜丘), 방택(方澤), 사직(社稷), 태묘(太廟), 별묘(別廟), 경령전(景靈殿), 제릉(諸陵)
중사	적전(籍田), 선잠(先蠶), 문성왕묘(文宣王廟)
소사	풍사(風師), 우사(雨師), 뇌신(雷神), 영제(禜祭), 마조(馬祖),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사한(司寒), 주현문성왕묘(州縣文宣王廟), 대부사서인제례(大夫士庶人祭禮)
잡사	압병제(壓兵祭), 초(醮), 남해신(南海神), 성황(城隍), 천상제(川上祭), 노인성(老人星), 오온신(五瘟神), 명산대천(名山大川), 기자사(箕子祠), 동명성제사(東明聖帝祠), 예조묘(藝祖廟), 독제(纛祭), 매제(禖祭), 천상제(天祥祭)

《고려사》예지 잡사조에 의하면 잡사는 대사-중사-소사와는 달리 의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역대 왕들이 거행한 사실이나 사묘(祠廟) 건립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필요시에 국가차원의 승인과 봉작이라는 형태로 국가제사가 거행되었다. 국가제사를 다룬 연구들에서 잡사가 대·중·소사의 제사보다 격이 낮다고 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실제《고려사》의 제사기록들을 보면 유교전통의 제사보다 잡사로 분류된 제사들이 더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고려사》에 전국적으로 명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한라산은 전라도 탐라현의 명산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사진 6-1. 《고려사》에 등장하는 한반도 명산 (월간 《산(山)》 10월호)

군현 수준의 명산이지만 《고려사》에 한라산 산신에 대한 국가제사는 신종 즉위년(1197년)과 고종 40년(1253년)에 걸쳐 두 차례 보인다. 신종 즉위년에는 왕의 즉위를 기념하여 그 종류를 알 수 없는 신호(神號)를 탐라의 신령에게 주고, 고종은 한라산 산신에게 제민(濟民)의 호를 더하고 제사를 올리게 한 것이다.

① 국내의 명산대천과 탐라의 신령에게 각각 존호를 덧붙여주고, 조상과 역대의 명왕들에게 시호를 높여 주도록 한다.

《고려사》 권21, 세가 21, 신종 즉위년 11월

② 국내의 명산(名山)과 탐라의 신기(神祇)에게 각각 '제민(濟民)'이라는 칭호를 더하고 태묘(太廟)의 9실(室) 및 19릉(陵)에 모두 존호를 덧붙여 올렸다.

《고려사》 권24, 세가 24, 고종40년 10월

《고려사》권24, 세가24, 고종40년 10월 1일조에 "몽고군이 등주(登州)를 포위하였으나 포위를 풀고 금양성으로 향했다고 보고했다. 후에 명산과 탐라, 능묘에 존호를 올렸다."라고 하고, 10월 3일에 ②와 같이 한라산에 '제민(濟民)'이라는 가호를 내렸다. 이는 전란이 일어났을 때 산신의 도움에 의해 전란을 물리쳤다고 가호로 보은하는 사례이다. 전란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산신이 구제했으니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내용을 보면 한라산신을 인격체로 보고 신호(神號)를 내리고 있다. 산신에 대한 봉작(封爵)은 유교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다. 《서경(書經)》권2, 순전(舜典)에서 순임금이 "12주(州)를 만들고, 12주(州)의 산을 봉하였다(肇十有二州, 封十有二山)"라고 하였으며, 《예기(禮記)》, 왕제(王制)편에도 명산대천에 제사할 때 "오악은 삼공(三公)의 예(禮)에 견주고, 4독은 제후의 예에 견준다(五嶽視三公 四瀆視諸侯)"라 하였다. 그러니까 산신에 대한 봉작은 유교의 산신제사의 규범인 셈이다. 산천을 왜 높은 예로 대하는가에 대해 《설원(說苑)》권18, 변물(辨物)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오악을 어찌하여 삼공처럼 여기는가? 이는 능히 구름과 비를 만들어 내며, 또한 그 구름과 비를 거두어 주기 때문이다. 구름이 산의 돌 틈에 생겨나서 조금만 모이면 합해져서 어디도 가리지 않고 천하에 비를 뿌려준다. 그 베푸는 덕이 넓고 크니 그 때문에 삼공 대접을 하는 것이다.

(중략)

산천은 어찌하여 자작(子爵)·남작(男爵)으로 여기는가? 이들은 능히 물건을 만들어 내고, 만물을 윤택하게 하며, 구름과 비를 일으켜 그 은혜가 많다. 그러나 산과 강은 그 수가 수백이나 된다. 그래서 조금 낮추어 자작·남작으로 대접한다.

중국의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의하면 산천에 내리는 봉작제도는 당나라 측천무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태종실록》25권, 태종13년 6월 8일조 참조).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인 무측천(武則天)은 황제로 등극하기 직전부터 대대적 국가제사를 수차례 거행하고, 낙양 부근의 산천에 봉호를 내렸다. 낙수신(落水神)에 현성후(顯聖候), 숭산신(嵩山神)에 천중왕(天中王)이란 봉호를 내렸다. 당 황제의 성씨인 이(李)씨가 아닌 무(武)씨에다가 여성인 무측천이 자신의 황위 계승이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대규모 제사에 집착한 것으로 보여진다. 황위 계승에 태생적으로 흠결이 있는 여성통치자가 그 흠결을 덮고 자신의 통치정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자연신을 활용한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목종(穆宗)대부터 명산에 훈호(勳號)를 내린 이후(《고려사》권3, 세가3, 목종 즉위년 12월·목종7년 11월), 역대 왕들은 수시로 영험한 산에 작호(爵號)·덕호(德號)·훈호(勳號)·존호(尊號)를 내렸다. 목종 이후 공민왕 때까지 《고려사》 세가의 기록만으로 41건의 가호(加號) 관련 기사가 나온다. 그렇다고 아무 산에나 봉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가 영험성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한 후에 부여되었다. 신비한 자연현상이 특정 산신 때문에 발생한다고 여기거나, 전쟁·질병·재난이 있을 때 산신에게 빌어서 효험이 있으면 그 영험성을 국가가 봉작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권42, 세가42, 공민왕 19년(1370) 7월 명(明)은 신령에게 숭명미호(崇名美號)를 주는 것은 예를 더럽히고 불경한 것이란 이유로 이를 제거하고, 다만 산수(山水)의 본래 이름만으로 그 신(神)을 칭할 것을 고려에게 강요하였다. 그 결과 고려에서도 산신을 비롯한 신령에 대한 봉작은 형식상 일단 중지 되는듯 하였으나,

실제로 산에 대한 봉작 관행은 조선왕조 초기까지 이루어졌다. 산에 대한 봉작은 명(明)의 눈치를 보느라 형식상 정부에서 금한다고 했지만, 실제 봉작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건국 직후부터도 사전개혁이 제기되면서 산천에 봉작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폐지된 것은 세종12년과 19년의 두차례 개혁을 통해서 산천 봉작제도는 폐지되었다(《세종실록》49권, 세종12년 8월 6일·《세종실록》76권, 세종19년 3월 13일조).

조선

조선 전기

조선은 건국 후 유교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전래의 토착신앙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유교적 제례의 대상으로 지정된 외에는 일체를 음사(淫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억압하였다. 고려 시대의 국가제사에서 비유교적인 형태와 민간에서 임의적으로 치러지는 치제는 음사로 여기고, 국가 주도의 유교적 제사체제로 바꾸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왕조 개국초기 산천에 대한 전체적 정비 및 개편이 이루어졌다. 고려에 비해 제사대상 산의 숫자가 늘어났으며 잡사는 두지 않았다. 명산을 소사에 편제했는데, 이는 지방행정체계의 정비와 궤를 같이하여 지방군현과 명산과의 관계가 설정되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吉禮)에 의한 조선의 국가제사체계는 다음과 같다(표 6-3).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도 국가제사 조항이 있는데, 《국조오례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사(小祀)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의례는 《국조오례의》에 의해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표 6-3. 조선의 국가제사

대사	사직(社稷)·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
중사	풍운뇌우(風雲雷雨)·악해독(嶽海瀆)·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文宣王)·역대시조(歷代始祖)
소사	영성(靈星)·노인성(老人星)·명산대천(名山大川)·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마제(禡祭)·포제(酺祭)·칠사(七祀)·영제(禜祭)·둑제(纛祭)·여제(厲祭)

명산대천·노인성제·독제는 고려 시대에는 잡사에 포함되었던 항목인데 조선에서는 새로이 소사에 편제되었다.

조선조에 들어 한라산신제는 태종대에 와서야 국가제사로 올리게 하였는데, "한라산제는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의 예를 따라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태종실록》태종18년(1418년) 4월 11일)고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제가 국가의 사전(祀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금성산의 예에 따라 제사를 지낸 것은 나름 한라산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개월 후인 태종18년 6월 28일 각도의 명산대천에 비를 빌게 한 기록이 있는데, 사전(祀典)에 등재되지 못한 한라산에는 제사를 올리지 않았던 것 같다. 예조에서는 한라산에도 제사를 올릴 것을 건의하자, 이에 태종은 "사전에 실려 있지 않다면 가벼이 거행하지 말라"고 하교하고 있다. 태종의 이 하교는 조선 초기에 사전에 올라있지 않은 것을 제사하는 것은 음사(淫祀)이므로 제사 지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전개혁의 기본방향을 의식한 것이다.

정도전(鄭道傳)의 《삼봉집(三峰集)》권7,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예전(禮典)에도 "사전에 오르지 않은 것을 제사하는 것은 아첨에 불과할 뿐 예가 아니며, 음탕한 짓에 불과할 뿐 복이 되는 일이 아니니,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 초기 집권층의 이같은 인식의 밑바탕은 《논어》나 《예기(禮記)》같은 유교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

공자께서 이르기를 "제사 지내야 할 귀신이 아닌데 제사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子曰 非其鬼而祭之諂)."

《논어》〈爲政(위정)〉

제사 드려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음사'라고 한다. 음사를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없다(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

《예기(禮記)》〈곡례(曲禮)〉 하

《세종실록》권43, 세종11년(1429) 11월 11일조에는 예조에서 지방의 영험한 곳을 혁파하여 제사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산천의 영험한 곳을 찾아 추가로 제사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완전히 혁파된 곳이나 제사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이전에 제사 드리던 곳에 국고의 미곡(米穀)으로 치제하게 하였다. 이때 추가한 것은 산천만이 아니고 섬이나 우물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어 기존보다 2배가 넘게 확대되었다. 여기에 제주 한라산이 포함되었다.

사진 6-2. 《세종실록》

이렇게 제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변계량(卞季良)은 "주공(周公)이 사전(祀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곳에도 질서 있게 제사한 것을 본받은 것이니, 진실로 이치가 있다"고 하였다. 변계량의 이 발언은 《주례(周禮)》3권, 지관사도(地官司徒), 대사도(大司徒)조에 황정(荒政) 12사(事) 중의 11번째 "索鬼神"(색귀신 : 버려진 조상이나 폐기된 제사를 찾아 제사하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니 합당한 처사라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초부터 유교의 제례에 맞지 않는 것은 음사라 하여 배척해왔던 터이다. 이 모순되는 시책에 대해 변계량은 경전의 근거를 들면서 합리화하고 있다. "색귀신"의 근거는 《詩經(시경)》에도 있다. 《시경》, 대아(大雅), 운한(雲漢)편에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가뭄을 걱정하여 지은 시에 이르기를 "신에게 제사를 거행하지 않음이 없으며, 이 희생을 아끼지 아니한다(靡神不擧 靡愛斯牲)"고 한 바가 있다. 모두 극심한 기근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색귀신"하고 있다.

유교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할 일을 다하지 않고 제사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본디 옳지 않으나, 폐한 귀신에게라도 비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극단적인 고난의 경우나 모든 시도가 헛되이 되는 경우에, 인간들이 이전에 가치 없다고 버렸던 것에 다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다른 종교현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평온할 때는 숭배하지 않고 버렸던 신(神)을 고통이 극심하면 다시 찾아 울부짖으며 기도 올리지 않았던가? 옛 이야기에는 제사를 받지 못하는 자연신이 노해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나온다. 가뭄·기근이 극심한 것은 이미 폐기한 제사의 신이 노여워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여 "색귀신"으로라도 폐한 귀신의 노기를 달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같이 한라산은 고려 때 한반도에 편입된 이후 조선 전기까지는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기적인 국가제사 대상이었다. 1531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八道總圖)〉에는 사전(祀典)에 등재된 중사와 소사를 지내는 주요 명산이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가 제작된 시기에 한라산은 사전에 올라있

지 않아 그려져 있지 않다. 오늘날 한라산은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유명하지만 조선 전기까지는 오늘날만큼 주목받지는 못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와서는 한라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1728년에서 1738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팔도총도(八道總圖)〉에는 한라산이 그려져 있고 한라산 옆에 영주(瀛州)라고 병기하고 있다. 삼신산의 하나인 지리산에는 삼신산 명칭인 방장(方丈)을 병기하지 않고 있다.

그림 6-2.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독도본부)

그림 6-3. 《여지도(輿地圖)》〈팔도총도〉(서울역사아카이브)

한라산이 조선 후기에 사전(祀典)에 오르는 명산으로 격상된 배경으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인식변화를 들고 있다. 지식인들 사이에 한라산이 삼신산의 하나로 인식된 것이 명산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명산으로 인식되면서 한라산의 문화·지리적 위상이 조선 전기 보다 훨씬 강화된다.

15세기 후반 이후 내적으로 정치적 참화가 거듭되고, 외적으로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쳐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의 양난을 겪으면서 신선사상이 유행하였다. 정치 권력 획득에 실패한 선비계층과 낙방한 유생들 사이에

신선사상의 유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삼신산(三神山)의 등장이다. 영주(瀛洲)·봉래(蓬萊)·방장(方丈)이 전설속의 삼신산인데, 조선 후기에 와서 영주산은 한라산, 봉래산은 금강산, 방장산은 지리산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라산은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으로서 신선이 사는 선계(仙界)로 인식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을 유람하고자 하였고, 한라산을 유람한 지식인들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렇듯 조선 후기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라산이 삼신산(영주산)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한라산은 명산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이 즈음에 중앙정부에서도 비로소 한라산을 정식으로 사전에 올려 국가제사급 명산으로서 제사하게 된다.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 전반까지 《사우수개등록(祠宇修改謄錄)》에 《조선왕조실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한라산제(漢拏山祭)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사우수개등록》은 예조 전향사(典享司)에서 인조15년(1637년)부터 영조12년(1736년)까지 전국 사당이나 사직단의 개수사항을 모아 등록한 것이다. 이 등록에 현종12년(1671년) 9월 14일·숙종1년(1675년) 3월 6일·숙종5년(1679년) 9월 26일의 기록에서 모두 한라산치제(漢拏山致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라산이 사전에 올라있지는 않지만 주현명산대천(州縣名山大川)에 준해 제사 지낸다는 내용이다. 조선 시대의 '등록(謄錄)'은 후대에서 전례나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공적 기록물임을 감안할 때, 국가제사를 전담하는 전향사의 등록에 수차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라산이 사전에 올라야 할 당위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라산에 대한 본격적인 국가제사는 숙종29년(1703년)에서야 조정의 논의를 거쳐 사전(祀典)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숙종실록》38권, 숙종29년 7월 29일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李衡祥)이 다음과 같이 치계(馳啓)하였다.

"명산 대천은 모두 소사(小祀)에 기록되어 있으나, 유독 한라산만은 사전(祀典)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오례의(五禮儀)》는 성화(成化) 연간에 편찬되었는데, 그 때에 본주(本

州)에는 약간의 반역(叛逆)이 있어서 혹 그것 때문에 누락이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일찍이 이 일로 장계를 올렸으나, 해조(該曹)에 기각당했습니다. 다시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

예조에서 한라산의 사전 등재에 대해 대신들에게 문의하니, 대신들 간에 찬반의 의견이 있었다. 영의정 신완(申琓)이 한라산이 사전 기록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추가해서 사전에 기록해도 무방하겠다"고 하자, 판부사(判府事) 서문중(徐文重)은 "증거 삼을 문헌도 없는데, 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 억지로 의례(義例)를 만들어 먼바다 밖에 향화(香火)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 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윤지완(尹趾完)은 "국전(國典)에 없는 것을 이제와서 처음 시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나, 명산에 제사가 없다는 것은 결점"이니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되 "제후(諸侯)가 봉토 안의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이 함이 무방"할 듯 하다고 의견을 올렸다. 이에 임금이 판하(判下)하기를 "한라산은 바다 밖의 명산인데 홀로 사전(祀典)에 들지 못했음은 흠궐(欠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상(領相)의 의견대로 시행하라."하였다. 그리고 치악산(雉岳山)과 계룡산(鷄龍山)의 제례와 축문식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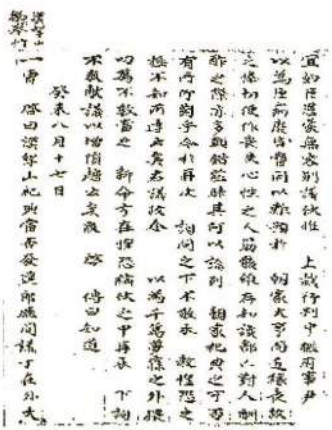


사진 6-3. 《제례등록》 5, 계미(1703년) 8월 17일

라 정월·2월·7월에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치악산과 계룡산은 모두 소사(小祀)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한라산은 예조의《제례등록(祭禮謄錄)》에 기록되었다.《제례등록》은 예조의 전향사(典享司)에서 국가제사를 직접 주관하면서 국가제사 관련 문서들을 재정리해 놓은 것인데, 한라산의 사전 등재에 관한 논의과정이《제례등록》제5, 계미(1703년) 8월 10일과 8월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의 사전 등재 결정 과정을 오히려 왕조실록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9월 5일과 9월 9일에는 한라산제 시행 일정과 관련 규정 확인 등의 사무처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국가제사의 쇠퇴

국가제사는 고종31년(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큰 변혁를 맞이한다. 갑오개혁은 일본제국이 조선 정부에 내정(內政)개혁을 강요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근대적 개혁이었다.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 아관파천 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혁이 단행되었다. 1차 갑오개혁(1894년 7월~1894년 11월초)의 개혁조치는 사회·경제구조의 개혁도 일부 있었지만, 가장 핵심은 조선의 행정조직 및 통치구조의 개혁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기 위해 조선 내정의 근대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그들의 목표에 장애가 되는 조선 왕권을 제약하려는 숨은 의도가 담겨있었다. 그 결과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제사제도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구한국 관보(舊韓國 官報)》, 갑오(1894) 6월 28일자에 의하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는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 각 아문관제(各衙門官制)를 공포하여 조선왕조 개국부터 난립해 있던 행정기관들을 정비·통합하였다. 그 중 국가제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첫째, 통치구조 면에서 왕실의 일반국정 관여를 억제하기 위해 왕실기관과 일반국정기관을 분화시켰다. 둘째, 행정조직 면에서는 국왕 아

래에 일반국정 담당의 의정부와 왕실사무 담당의 궁내부를 병립시켜 의정부 아래 내무(內務)·외무(外務)·탁지(度支)·군무(軍務)·법무(法務)·학무(學務)·공무(工務)·농상(農商)의 팔아문(八衙門)을 두어 종래의 육조(六曹)체제를 완전히 개편하고, 궁내부 아래에 잡다한 궁중기관을 정비·통합하였다. 이로써 이 개혁은 조선왕조 5백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구체제(舊體制)를 와해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제도상으로는 근대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종실록》32권, 고종31년(1894년) 7월 18일조에 의하면 군국기무처에서 각 부(府), 각 아문(衙門) 소속 관청 명세를 올렸는데, 종래 국가제사 업무를 담당했던 예조는 궁내부(宮內府) 종백부(宗伯府)에 소속되었다. 이로써 국가제사는 국가 전체의 대사(大事)가 아니고 영역이 제한된 궁내부 업무의 하나가 되어 그 의미가 크게 축소 되었다.

국가제사 담당 조직의 변혁과 아울러 제관(祭官)의 파견도 제한되었다.《고종실록》권32, 고종31년 8월 28일조에는 군국기무처에서 정부 각 아문의 관리들이 겸직할 수 없으니 경외(京外)에 제관을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관파견은 종백부에서 담당하라는 의안을 올리고 있다. 의정부 관리들의 제관 역할 금지는 결국 국가제사는 그 중요성이 감소되고 일반국정과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국가 사전(祀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진다. 고종은 같은 해 11월 21일 칙령 제7호 〈의식(儀式) 간소화〉와 12월 16일 칙령 제22호 〈대소사향(大小祀享)을 참작의정(參酌議定)하는 건〉으로 국가제사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를 정리하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고종실록》권32, 고종31년 11월 21일과 12월 16일 기사 참조). 이에 따라 구체적 사전 개편안이 고종32년(1895) 1월 14일 확정되었다.《한말근대법령자료집》I, 주본(奏本)제2책, 개국(開國)504년 1월 14일 〈대소사전(大小祀典)을 새로 작정(酌定)하는 건〉의 주내용은 제향(祭享)의 축소·폐지이다. 개편 사전(祀典)은 첫째, 자연의 변화를 관장하는 신들의 제사가 대부분 사전에서 폐지되었다. 폐지되는 제사는 우사(雩祀), 사한(司寒), 기우(祈雨), 영제(禜祭), 기설(祈雪), 마조(馬祖), 사현사(四賢祠) 등의 7개이다. 이 중 사현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연의 변화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제사들이다. 산천제의 대상도 자연신이지만 개편 사전에서는 존치되었으나 그 기능은 축소되었다. 산천제의 중요한 기능이 비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인데, 우사(雩祀)나 기우(祈雨) 같은 제사를 폐지한 것은 산신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제향의 폐지 뿐 아니라 제향의 횟수도 줄였다. 대부분의 제향에서 그 횟수가 줄어 들었다.

1896년에는 이전의 의례들이 회복된다. 《고종실록》권34, 고종33년(1896) 7월 24일조에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이 갑오개혁 때에 개편된 국가제사들을 이전으로 회복할 것을 지시하였다. 산천의 제사는 궁내부 대신과 장례원경(掌禮院卿)에게 지시하여 예법을 고찰하여 바르게 고치라고 하였다.

대한제국 및 통감부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성립되고 제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의례도 강화된다. 1898년 대한제국의 국가전례서인 《대한예전(大韓禮典)》이 편찬되었다.

표 6-4. 대한제국 국가제사

대사	원구(圜丘)·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社稷)·대보단(大報壇)
중사	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경모궁(景慕宮)·문묘(文廟)·역대군왕(歷代君王)·관왕묘(關王廟)
소사	산천단(山川壇)·전사악진해독명산대천(專祀嶽鎭海瀆名山大川)·사한(司寒)·마조(馬祖)·영제(禜祭)·포제(酺祭)·둑제(纛祭)·여제(厲祭)·계성사(啓聖祠)·사현사(四賢祠)

그러나 1907년 6월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폐위되, 1908년에 국가제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일어난다. 1907년(광무11년) 7월에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에 의해 통감부(統監府)는 대한제국의 전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통감(統監)은 대한제국 황제를 직접 알현하고 대한제국의 국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으며, 정부에 일본인 관리를 임명하여 내정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다. 통감이 황제에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이나 지시에 가까웠다. 1908년(순종1년, 융희2년) 7월 23일 순종은 모든 제도를 혁신하는 때에 제례만 옛것을 고집할 수 없으니, 현재의 조건에 맞게 제사제도를 개정하라는 조령(詔令)을 내린다. 이어서 칙령 제50호 <향사리정(享祀釐正)에 관한 건>이 발표되었다(《舊韓國 官報(구한국관보)》, 융희2년 7월 27일). 이 칙령은 대대적으로 국가제사를 폐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 내용은 ① 제실(帝室)과 무관한 제사의 궁내부 거행 금지, ② 시의(時宜)에 부적합한 제사 폐지, ③ 긴요하지 않은 허례 생략, ④ 희생(犧牲)과 제물 절약 등이다. 이로써 산천제를 비롯해 기존의 대·중·소사에 속해있던 제사들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삼국시대 이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국가제사가 일시에 사라진 것이다.

국가제사로서의 한라산제에 대해서만 자세히 서술하였지만 이 주제에 관하여 못다한 것들이 많다. 제한된 지면으로는 종교적·사회적 상황 전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가 민속종교나 역사학에 무지하지만 국가제사 연구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가제사 연구가 종교학·민속학·역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사회학·심리학·철학·현상학과 심지어 건축학 등에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상황을 알고, 그 시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일층 확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전통사회의 제례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구시대의 풍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를 형성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그로써 우리의 역사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행된 이후 국가제사 복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국가제사 대상지였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 문헌

1. 사서류

《經國大典》

《高麗史》

《舊唐書》

《九思堂集》

《舊韓國官報》

《國朝五禮儀》

《論語》

《大韓禮典》

《祠宇修改謄錄》

《三國史記》

《三峰集》

《書經》

《說苑》

《詩經》

《禮記》

《周禮》

《祭禮謄錄》

《朝鮮王朝實錄》

《春秋左傳》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Ⅰ·Ⅶ

2. 일반저서 및 논문류

김상범, 《당대 국가권력과 민간신앙》, 신서원, 2005.

김일우, 高麗時代耽羅史硏究, 신서원, 2000.

김철웅, 《高麗時代『雜祀』硏究 - 醮祀, 山川·城隍祭祀를 중심으로 - 》,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멀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옮김, 2006,《聖과 俗》, 학민사, 2006.

신상준, 《韓國行政史》개정판, 한국복지행정연구소,2006.

김용찬, <古代 中國의 山川 祭祀와 국가 권력>, 《中國古中世史硏究》 34輯, 중국고중세사학회.

이욱, <근대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1894~1908년 국가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학》27(2), 한국학 중앙연구원, 2004.

이욱, <朝鮮前期의 山川祭>, 《종교학연구》제17집, 한국종교학연구회, 1998.

한형주, <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시대적 특성>, 《民族文化硏究》41권,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4.

색인

ㄱ

감악산(紺岳山) 252
구린굴 63, 64, 65, 66, 67, 68
국가제사 14, 15, 16, 18, 245, 249, 250, 251, 252, 253, 254, 256, 257, 258, 260, 263, 265, 266, 267, 268
김낙행(金樂行) 247
김정호 56, 57, 58

ㄴ

남사록 28, 45, 52, 55
노인성제 258

ㄷ

대동지지 57
대사(大祀) 250, 252, 253

ㅂ

방장산 247, 263
병문천 64, 65, 66
봉래산 247, 263
빙고(氷庫) 63, 64, 66, 67, 68

ㅅ

사전(祀典) 14, 16, 252, 258, 260, 262, 263, 264, 265, 266, 267
산신 15, 250, 251, 252, 255, 256, 267
산악신앙 246, 250, 252
삼산(三山) 250
삼신산 261, 262, 263
선작지왓 53, 54, 55, 59, 60, 62, 79
세계의 축(axis mundi) 246
소사(小祀) 250, 252, 253, 257, 258, 260, 263, 265
수행굴(修行窟) 33, 37, 43, 45, 46, 47, 48, 49, 51, 54, 55, 149
수행동 36, 37, 42, 43, 46, 54, 55, 57
숭명미호(崇名美號) 256
십성대(十星臺) 56, 57

ㅇ

영실(靈室) 33, 37, 38, 41, 42, 43, 45, 46, 47, 48, 49, 50, 51, 53, 54, 55
영주산 213, 227, 238, 263
영주산대총도(瀛洲山大總圖) 247
오악(五岳) 250, 252, 255
음사(淫祀) 257, 258, 259, 260

ㅈ

잡사(雜祀) 253, 257, 258
제민(濟民) 14, 254, 255
제천의례 60
좌선암 45, 46, 52, 55
중사(中祀) 250, 252, 253, 260

ㅊ

천지신앙 246
천체신앙 246

측천무후 256
칠성도 52
칠성신앙 58, 60, 61
칠성암(七星岩) 43, 58

ㅌ

탐라십경도 58
탑궤 54, 55, 60, 79
튜물러스 59, 60

ㅍ

팔관회 35, 252
평굴 63, 64

ㅎ

한라산 산신 254
한라산신 14, 15, 50, 245, 255
한라산신제 17, 258
한라산제 36, 37, 40, 41, 43, 245, 258, 263, 265, 268
혈망봉(穴望峰) 41, 56

제3권 저자들

제1장 | 김일우

고려대학교대학원 한국사전공, 문학박사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역임
제주도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 역임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장/이사장
《고려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체계 연구》,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韓国・済州島と遊牧騎馬文化 : モンゴルを抱く済州』 외 다수

제2장 | 강문규

한라일보 논설실장 역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역임
《제주의 하천》(공저), 《일곱개의 별과 달을 품은 탐라왕국》외 다수

제2장 | 강만익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겸임교수 역임
제주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강사 역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한림고등학교 지리교사
《일제시기 목장조합연구》(2013), 《한라산의 목축생활사》(2017)

제2장 | 한금순

문학박사(한국사)
《한국근대제주불교사》경인문화사, 2013), 《제주법정사항일운동》(서귀포신문, 2018)

제2장 | 고윤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 수료
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전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한라산연구소
《한라산의 자연자원》(2009, 공저), 《한라산의 마애명》(2014, 공저),
《한라산의 목축생활사》(2017, 공저)

제3장 | 김종찬

제주대학교박물관 팀장
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박사수료(고고학)
(재)마한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임
(재)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역임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실장 역임

제4장 | 박찬식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4.3연구소장 역임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 역임
《4.3과 제주역사》, 《1901년 제주민란 연구》외 다수

제5장 | 장윤식

제주대학교 대학원(사학과) 박사수료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역임
제주4·3평화재단 팀장
《제주4·3유적 Ⅰ·Ⅱ》(공저) 외

제6장 | 박인순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한국보건의료행정의 발전과정(1894~1945)》, 《미군정기 한국보건의료행정의 전개과정》,
《혜민서연구》외 다수

한라산총서 3

한라산의 역사와 유적

94080
9 791197 735523
ISBN 979-11-977355-2-3
ISBN 979-11-968758-9-3 (세트)